

# BozartAppleWar

---



Twitt.1229

# 내가 “사과전쟁”을 쓰는 이유

by Bozart

## 1. 해변의 여인

그녀는 섬나라 A에서 태어나서 다른 섬나라 B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해변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갑자기 바닷물이 빨려나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이에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다. 쓰나미가 온 것이다. 엄청 양의 물은 그녀가 그동안 잘 살고 있던 집이며, 동네를 모두 휩쓸어 버렸다.

섬나라 A는 섬나라 B 뒤에 있으니, 이제 곧 쓰나미가 닥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 2. 아이폰 폭풍

아이폰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시장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사회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있다.

나에게는 아이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이통사들에 대해 비판들을 하는데, 그동안 미국 이통사들의 횡포에 비하면 양반이다. 지금은 ATT가 욕을 먹고 있지만, 다른 통신사들을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수준이다. (그나마 ATT가 좀 낫다고 본다.)

나는 한국에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한국이 대비하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다.

## 3. 애플의 힘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애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제품하나 잘만들어 놓고, 사겠다고 하니 파는 것뿐. 애플은 전 세계에 동일한 정책을 편다 (중국 제외).

애플은 언론 플레이하지 않는다. 언론들이 애플을 갖고 플레이하는 것이지. 오직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할) 제품을 만드는 것 뿐. 물론 스티브 잡스가 언론을 교묘히 이용해서 (비밀주의 - 아무말 안함) 광고 효과를 얻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물건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지.

애플은 유일하게 기대는 것은 소비자의 힘이다. 아이폰 처음 발표되었을 때, Craig Ferguson 이라는 스코트랜드 출신의 쇼 호스트가 하는 얘기를 보기바란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와 기존 질서 (MS) 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보일 거다. (..계속..)

<http://www.youtube.com/watch?v=TyuDAzzKnz8>

#### 4.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이끈 것이 IT였다. 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에게 기술은 단순히 삶을 편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작고, 인구가 작으니 남에 나라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우리가 늘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남들보다 뒤쳐져 (또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것이다. 자부심이 강한 한국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것이 사과전쟁이라는 글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 5. 당부의 말씀

나는 시간이 남고, 할일이 없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더우기 나는 얼리어답터도 아니고 애플빠도 아니고 파워블로거도 아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글을 쓰지 않겠는가?

내가 쓴 글들을 반복해서 찬찬히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내 글에서 미래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를 아는 것은 꿈을 꾸기위한 첫번째 단계니까...

사과전쟁 by Bozart



## Bozart's Twitt 1229

#	Bozart said
0	사과전쟁의 트위터 연재를 시작합니다. #Bozart로 시작하는 글을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맘에 드는 글들은 무한 RT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형식이니,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글이 성지가 되길바라며...
1	{트위터혁명1/3}트위터 현상은 나에게 통신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의사의 전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통신은 두 생명체 이상이 존재한 이후부터 생긴 자연현상이다
2	{트위터혁명2/3}트위터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된 통신시스템이다. 통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만든 사람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다
3	{트위터혁명3/3} 트위터 혁명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어떻게 진화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두렵다
4	{잡스인문학1/4}스티브 잡스는 십수년전 S/W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최근 그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존경받을만하다. 애플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다
5	{잡스인문학2/4} 스티브잡스가 강조하는 인문학이란 인문학자가 쓴 책에 있지않다. 대중예술가들이 그의 인문학 멘토이며, 최고의 스승은 밥딜런과 비틀즈였다. 그의 키노트 끝에 가수를 초대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6	{잡스인문학3/4} 잡스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애플을 보여주는 광고다. 교정기를 달아 부끄러운 딸과 아버지 얘기다. 경쟁자들이 기술 얘기할 때 애플은 기술보다 인간이 우선이라고 외치고 있다." <a href="http://goo.gl/S13u">http://goo.gl/S13u</a>
7	{잡스인문학4/4} 내가 자주 보는 아이폰 광고 하나 더. 실수로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와 남친 얘기다. 요즘 유저 경험, UX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이게 바로 UX다. 기술용어가 아니란 말이다." <a href="http://goo.gl/ga6R">http://goo.gl/ga6R</a>
8	전에 인텔이 만든 MP3플레이어를 보고 허잡함에 경악한 적있다. 인텔CEO가 UX를 들고 나왔지만, 인텔은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인텔은 황소같은 회사다. 그래서 성공했다. 지금은 세상은 박쥐같은 회사를 필요로 한다
9	-황소형 회사: 자신의 강점을 미는 인파이터.인텔,MS,아마존,삼성. -박쥐형 회사: 큰 그림을 그리고 주변환경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바꾸는 아웃복서. 구글,퀄컴,페이스북. - 애플은? 중간에 위치한다고 봄
10	아이폰 UI의 숨겨진 보석은 One button이다. 어디에 있든 두 번 선택으로 어디로든 이동한다. 버튼이 두개 이상되면 누르기전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보이지 않는 UI벽은 누구도 넘을 수 없다
11	{컨텐츠란1/3}컨텐츠란 무엇인가? 책,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은 컨텐츠를 담는 그릇일 뿐. 진정한 컨텐츠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영혼이다
12	{컨텐츠란2/3} 컨텐츠는 물이다. 이것을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질은 인간의 영혼이다
13	{컨텐츠란3/3} 첨단 기술은 인간의 영혼을 외부로 끌어내는 과정을 단축시킨다. 예전에 오랜 훈련받아야 하던 일들을 누구나 쉽게 한다. 콘텐츠 홍수의 시대를 대비하라
14	바퀴의 발명 이후 인류최대의 업적은 delete의 발명이다. Delete때문에 얼마나 창작이 쉬워졌는지 생각해본적있는가? 디카와 필카의 차이가 좋은 예다
15	트윗 메시지의 주목할 점은 지나치게 진실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기자들의 개인 트윗을 금지시켰다. 미디어의 이면을 볼 수 있다

#	Bozart said
16	트윗같은 단문 메시지가 진솔한 이유: 기술 장벽이 낮아 따끈 따끈 인간의 생각을 곧바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거칠지만, 지나치게 정제된 글에 식상한 대중에 먹히고 있다
17	바다에서 갓 잡은 잡어를 갑판에서 회쳐먹는 경험은 고급 횃집의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트윗 메시지는 바다에서 먹는 회다. 그 신선함이 거칠음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18	무한도전을 디카로 촬영하고, 남격에서는 디카로 영화찍고, 아이폰 영화제가 개최되는 시대다. 인간의 사상을 투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장벽이 사라지는 이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19	비니지스 관점에서 콘텐츠는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통칭한다. 스마트 전력망에선 전력도 콘텐츠라고 부른다. 구글은 올해 전력 판매 회사를 세웠다
20	내가 처음 iPad를 손에 들었을때 첫느낌: 흠... 이건 콘텐츠 먹는 하마군. 지금 앞다투어 내놓는 태블릿들, 주용도가 무엇인가? 어디에 써야하는지 얘기좀 해달라
21	크리스마스는 가전회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미국 최대의 대목이다. 컴퓨터 회사들이 급조된 태블릿 컴퓨터를 쏟아내는 이유다
22	크롬 OS에 대한 구글의 침묵으로 컴퓨터 회사들은 죽을 맛이다. 콘텐츠가 준비안된 지금, 태블릿은 넷북과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된다. 잘돼도 캐니발효과, 안되면 물론 손해
23	구글은 방황하는 컴회사들이 결국 자신들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11월에 출시될 Dell의 크롬 OS기반 태블릿이 열쇠다
24	오늘 SONY 구글TV를 봤다. 겉보긴엔 그냥 TV용 웹 브라우저일 뿐이다. 그런데 크롬 OS가 웹 브라우저 기반의 OS란 걸 생각하면...? 이건 트로이 목마다
25	미국에서 7' 갤럭시탭이 10' iPad와 유사한 600불에 팔린다. 7'는 10'의 따약 반이다. 12'노트북을 15'노트북가격에 사는 바보가 미국에 많다고 생각하나 보다
26	10월 잡스 키노트 후 한국은 온통 맥북 에어이야기뿐이다. 미안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차세대 OS인 Lion이다
27	잡스 키노트를 60mph로 달리며, 3G 커넥션으로 아이폰으로 시청했다. 화질 좋더라. North Carolina에 짓고있는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구글과 클라우드전쟁이 본격화 될 듯
28	애플 차세대 OS Lion에서는 App이 지원되고, 90일내에 맥용 앱스토어도 문을 연다. 애플 TV의 새로운 UI에서 예견되었듯, 애플의 모든 제품은 터치, 앱, 앱스토어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된다
29	잡스 키노트를 10년간 지켜보며 느낀 점. 순진한 처녀가 바람둥이 사탕발림에 번번히 속는 느낌이다. 사실 화려하게 등장한뒤 사라진 제품도 많다. 속아도 좋은걸 어찌란 말인가. 맥북에어 탐난다
30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기차의 창틀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창밖의 풍경이지, 창틀이 아니다. 여기서 풍경은 콘텐츠다
31	책은 콘텐츠 중 유일하게 전기나 플레이어가 필요없는 완전체이다. 이북이 나와도 수천년을 버텨온 종이책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다
32	사람들은 탄일을 하며 음악을 듣지만, 비디오는 아니다. 음악은 반복해서 듣지만, 비디오는 아니다. 이 차이가 애플이 리테일 기반의 영상 판매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다
33	현대 미디어에서 떠오른 새로운 콘텐츠가 사생활이다. 무도의 레스링 경기보다, 남격의 합창 본방보다, 연습 과정과 무대 뒷모습에 사람들이 매료된다. 옛보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34	사생활의 콘텐츠적 가치의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타블로 학력 진상 요구는 사생활 판매자에 대한 최초의 민간형 소비자 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35	트위터에서 연예인 밥 뷔먹는지까지 쫓다보니, 리얼리티 예능 프로보는 것 같다. 사생활의 콘텐츠화는 트위터를 방송의 영역으로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

#	Bozart said
36	나는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21세기 술래잡기라고 표현한다. 공통점: 여러사람이 참여한다. 공짜다. 재밌다.
37	이따금 재미는 공포보다 대중을 움직이는데 더 효과적이다. SNS가 급속히 퍼지는 이유는 재미 있기 때문이다
38	트윗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통신, 정보, 오락, 일) 들이 수렴하고 있다. 트위터는 지금 인.간.허.브. 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39	잡스가 공인의 이미지와 개인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알려져있다. 자기밑에 있던 사람들을 깔아뭉개곤 하는데, 팜과 아도비CEO가 희생자다. BUT 그냥 까는건 아니다. 잘 보면 애플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40	천기누설 하나. 잡스가 연일 아도비 플래시를 공격하는 숨은 이유는? 아이폰에서 플래시 기반 웹광고를 무력화시키려는거다. iAd가 출시 시기와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는다
41	진실의 추구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이다. 미디어와 대중은 진실 찾기라는 이름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42	신문 기사를 정신없이 읽다가 상단 구석에 쓰인 전면광고라는 표시를 보는 순간 김새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독자가 광고라는 사실은 아는 순간 광고 효과는 급속히 추락한다
43	광고가 주수익원인 현대의 신문은 원론적으로 찌라시다. 편집권의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가 기를 쓰고 가입자 기반으로 가려는 이유다
44	최대의 광고 효과는 우리가 광고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달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최고의 광고판은 트위터이다
45	화려하게 출발한 애플 iAD가 생각보다 빨리 뜨지 않는 이유는, 보기 전에 사람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다
46	구글의 성공은 서치엔진의 우수성뿐 아니라, 서치엔진을 가장한 광고판이란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데 사실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47	진실을 가리는 것은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틀어 막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원을 찾아 물러간다
48	SNS를 이용한 viral marketing이 최대의 화두다. 진실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교묘히 이용한다. 이게 친구 따라 강남가는 건데, 대중들이 친구를 맨날 바꾸니까 어렵다는 거다
49	구글이 흔들리는 이유는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가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50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SNS 친구에게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연다. 사회 생활에서 주변 사람에게겐 숨길게 많기 때문이겠지
51	결국 마이스페이스가 페이스북에 항복했다. 망한 이유? 지나친 광고로 버려진 놀이공원으로 전략했기 때문. 광고는 최대한 표나지 말아야 한다. 광고로 얼룩진 한국 사이트들 새겨들어라
52	애플이 SONY를 먹는다는 루머가 돈다. 만약 먹는다면 이유는 콘텐츠때문이다. 게임, 영화, 음악.
53	애플이 SONY를 먹으려는 두번째 이유. 바로 TV다. 애플의 다음 작품이 TV이기 때문이다.
54	스마트폰능장대응, OS 전략부재, 급격한 실적하락, CEO교체, 대규모 구조조정. 물론 노키아애기다. 가만... LG도 똑같네. 그럼 구조조정만 남은건가?
55	네이버 적자는 사람들이 더이상 사이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뺑뺑이가 파는 뺨술을 누가 믿고 사겠는가? 광고 확대이전에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	Bozart said
56	20년 인터넷 역사에서 사이버 캐릭터와 현실 캐릭터간의 관계 변화를 지켜보면,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사이버와 현실의 관계 1/3} 90년대 인터넷 초기 채팅 시대. 현실과 사이버의 불일치. 현실과 상반된 성격의 사이버 캐릭터를 창조하여 사회 문제 야기. 현실=진실, 사이버=환상
58	{사이버와 현실의 관계 2/3} 2천년대 SNS 초기. 현실과 사이버의 일치. 현실과 동일한 사이버 사회관계 형성.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됨. 현실=사이버=진실
59	{사이버와 현실의 관계 3/3} 2010년대 트위터 시대. 현실과 사이버의 불일치. 현실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사이버에서 해소. 지나치게 가벼운 인간관계 형성. 사이버=진실, 현실=위선
60	현대사회에 Privacy따위는 없다. 통신사가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이유는 금송아지를 벽장에 숨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당신의 사생활은 통신사의 재산이다
61	드디어 버라이즌이 iPad를 팔기 시작하며 애플-ATT 독점이 깨졌다. 아 참, 7' 갤럭시탭도 나란히 팔린단다. 참으로 예측불허의 (?) 승부다
62	애플이 CDMA iPhone을 만든 이유는 미국이 아닌 중국시장 때문이다. 애플의 중국사랑이 의심스럽다면, 상하이 스토어 구경해보라." <a href="http://yfrog.com/mtrncjx">http://yfrog.com/mtrncjx</a>
63	UX관점에서 iPad와 컴퓨터의 차이.컴퓨터는 공유할 수 있지만, iPad는 안된다. iPad는 일인당 하나씩 필요한 모바일기기다
64	트윗에서 가장 강력한 분노의 표현은 고작 언팔이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적다. 이게 사람들이 빠져드는 원인은 아닐까?
65	타이거우즈는 샷이 맘에 안들면 그자리에서 채를 던진다. 한번 화를 내면 뒷끝이 없어지기 때문. 대중도 불만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고, 일단 불만을 표출하면 뒷끝은 없다. 인터넷은 현대판 해우소다
66	정용진부회장은 똑똑하다. 그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든,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따금 여러 요인이 겹치면 부정적 상승효과를 유발하니 주의해야한다
67	80년 군사정권때 정치코미디가 인기였다. 부시정권때 코미디언 존 스트리트가 가장 존경받는 언론이 되었다. 암울한 시기에 정치풍자가 인기를 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아니면 의도일까?
68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면 하수. 대중의 불만을 풀어주면 중수, 대중의 불만을 표현하게 해주는 게 고수다. 핵심은 어디에다 풀게해주는냐이다
69	미드24에서 잭bauer가 찾아낸 테러리스트의 배후는 항상 미국 국우주의자들이다. 24를 극우방송인 Fox가 제작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70	LG를 보면 닛산이 생각난다. 도요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다 결국 망한 닛산말이다. 뭐든지 삼성 따라하다 가량이 찢어진거다
71	모토롤라가 4년만에 실적반등했다.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안드로이드에 올인한 결과가 나타나는 중.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기존 가치지키다 곤경에 처한 LG와 극명히 대비된다
72	아이폰은 손안의 서비스 허브다. 절름발이 아이폰이 있는 한국에선 핸드폰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팔다리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얘기다
73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기. 아이튠으로 책도 못사, 음악도 못사, 영화도 못사, 방송도 못사, 게임도 못사. 여러분은 아이폰 파워 반만 쓰고 있다. 그래도 잘팔린다니...이해할 수 없다
74	사회부조리를 접하는 대중의 반응: 처음 접했을때-뭐라고!, 두번째 접했을때-그러게 말이야, 세번째 접했을때-그래서 어찌라고.
75	외신에 갤럭시S 프로요 업데이트안해준다는 불만기사가 나왔다. 삼성이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전 세계에 뿌려진 폰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방법이 없다. 참고로 아이폰은 아이튠에 연결만하면 자동업데이트된다

#	Bozart said
76	안드로이드폰의 체계적 업그레이드 시스템 결여는 사용자의 불편 문제가 아니다. 바이러스에 너무 취약하다. 신도시를 지어놓고 병원 짓는 걸 잊어버린 격이다
77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치료인프라가 없으면 재앙이다. 안드로이드의 면역 체계 미비는 사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곧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78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 시스템의 미비는 구글의 오픈 정책이 빛은 비극이다. 지금 햅폰제조사, 통신사, 구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동안 소비자만 멍든다
79	한국이 늘 그렇지만, 정부를 포함하여, 모두 앱개발한다는 얘기뿐이다. 앱이란 콘텐츠/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수도꼭지일뿐이다. 모두 수도꼭지나 만들자는 얘기인가?
80	한국의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애플이 돈버는 곳만 바라보고 있다. 애플이 돈을 벌 수 없는 곳을 바라봐야지...
81	<p>#Bozart said "81. 애플 Think Different 광고중 -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만큼 미친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a href="http://goo.gl/SzBY">http://goo.gl/SzBY</a></p> <p>Think Different</p> <p>여기 미친자들이 있다 / 부적응자, 반란자, 문제아들 / 네모난 구멍에 동그란 조각//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 그들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 현재를 존중하지 않는다 //                      우리는 그들을 따를 수 있고 / 그들에 반대할 수 있다 // 찬양할 수도, 경멸할 수 있다 //                      단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                      그들이 인류를 전진시켰다 //</p> <p>누군가는 정신병자라고 비웃지만 / 그들의 천재들이다 //</p> <p>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때문이다//</p> <p>The misfits. / The rebels. / The troublemakers. /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 They're not fond of rules, /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                      You can quote them, / disagree with them, / glorify and vilify them. //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 because they change things. //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crazy, // we see genius. //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 are the ones who do. //</p>
82	갤럭시S OS업그레이드가 연기되었다. 당신같으면 새애인 생겼는데, 옛날 애인생일 챙겨주고 싶으냐? 새 폰출시되면 이제 해주겠구나하고 생각해라
83	애플이 햅폰4위에 올랐다고, 한국이 충격을 받았나보다. 단하나의 모델로 이룬 성과라는데 당신이 받은 충격의 2제곱, 콘텐츠와 앱 팔아서 더 많은 돈 번다데 충격의 3제곱하라
84	트달경규의 팔로잉:팔로어 비율이 1:1500배이다. 트윗혁명 은 자연인의 콘텐츠화를 가속화시킨다. 즉, 갱규형님이 콘텐츠이고, 남격은 콘텐츠를 담은 그릇이란 말이다
85	팔로어수가 팔로잉보다 극단적으로 많은 연예인트윗 네트워크는 단방향성, 1대 다수라는 방송네트워크와 동일한구조를 갖는다. 트위터상에서 연예인자체가 걸어다니는 방송국이라는 의미
86	잡스와 구글의 설전을 보면 막장드라마 보는 것 같다. 제일 불쌍한 건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방송못타는 전처다. 윈도7폰 출시한 MS 얘기다
87	MS의 미래. 발머를 쫓아낸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MS를 3~4개로 분사하게 된다. MS의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PC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8	PC시대가 급격하게 붕괴하는 이유. 아이폰 출시로 보통사람들이 PC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 이래서 비밀유지가 중요한거다
89	모든 SNS사이트 - Facebook, Twitter, My Space, Linkedin, Linknow- 의 아이콘이 파란색이다. 높은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솔직히 핵갈린다

#	Bozart said
90	저가형스마트폰얘기가 나온다. 소비자는 좋겠지만, 핸드폰 메이커들에게 재앙이다. 핸드폰이 PC시장을 따라가는 전주곡란 얘기. 비슷한상품에 피터지는 가격싸움, 아무도 돈못버는 막장시장
91	갤럭시탭 킬러앱이라고 전면에 내세운게 카내비게이션이란다. 한국에 자동차 몇 대팔리냐? 아이패드에는 제품개발보다 마켓개발에 더 많은 시간썼다
92	한국에선 안나올 정보. 구글 모바일제품 책임자가 안드로이드OS를 타블렛에 쓰지말라고 경고했다. 왜? 헨폰용이니까. 참고로 갤럭시탭은 안드로이드가 지원하지 않는 해상도를 적용한다
93	미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린스턴교수출신 보안전문가겸 사회운동가를 수석기술자로 뽑았다. 대기업 정보불법취득과 정보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지구반대쪽의 아~주 먼나라 얘기다
94	복잡한 서울역대합실에서 친구 목소리를 찾아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골라내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SNS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도록 진화할 것이다
95	삼성 망할까봐 걱정하는 분께. 삼성 절대 안망한다. 삼성이 잘해야하는 이유. 삼성이 헛발질할 때마다 국민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하니깐. 옴니아 백만원주고 산 사람들 떠올려라
96	갤럭시S가 쓸만해졌다며, 삼성의 저력이라고 한다. 착각이다. 갤럭시가 쓸만해진 진짜 이유: 1. 안드로이드OS가 진화하기 때문. 2.담당임원 안잘리도록 속으면서 계속사주는 정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97	애플에 시가총액밀려 보너스각인 MS CEO 스티브 발머가 자기지분20%,1조5천억원을 판다. 본인말대로 세금절약때문일까? 아님 먹튀준비? 회사말아먹고 자기몫챙기니 운좋은사람이다
98	레드몬트MS본사직원들은 하나같이 똑똑하다. 이런 천재들 데리고도 제대로된 상품못내고 추락하는 중이다. 인재를 싹쓸이해서 자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사육한건 아닐까? 인재제일주의의 함정?
99	무너지는MS의 마지막희망XBOX에서 Kinect란 혁신적상품을 내놓았다. 영화에서 두사람이 추락하며 싸우는 장면이있다. 딱 SONY와 MS인데, MS가 유리한가?" 즐감 <a href="http://goo.gl/eDgzy">http://goo.gl/eDgzy</a>
100	트위터와 애플의 소셜서비스 핑이 결합했다. 둘의 결혼이 가져올 경제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페이스북은 땅을치고, 구글은 답쫓던 개꿀이 되었다
101	가을은 탐욕의 계절인가? 구글은 폐북이 정보빠가는걸 막고, 폐북은 애플 핑과 협력을 거부하는 사이 일등 신부감 트위터가 애플과 결혼해버렸다. 오.마이.갓-롤러코스터버전
102	애플과 트위터 결합으로 아이튠에서 like누르면, 트윗으로 바로 전송된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가수들이 만세부르는 중이니까. 가능성으로만 따지던 SNS의 가치가 처음 현찰화된 사건임
103	애플과 트위터협력으로 잡스의 트위터 몰빵가능성이 떠올랐다. 20조생각하겠지만, 구글이 판돈을 키올테니 30조는 써야할걸? 그래도 살수만 있다면." <a href="http://goo.gl/ynE1G">http://goo.gl/ynE1G</a>
104	핑은 시작부터 아티스트-팬 사이트였다. 신곡듣기,콘서트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a href="http://yfrog.com/g09firp">http://yfrog.com/g09firp</a> 여기에 트윗이 붙으면? 참! 아이튠에 영화도 판다. 배우도 아티스트다
105	트위터-애플 협력소식을 트위터에서 터트렸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애플은 입뺨긋안하는중. 왜? 잡스-마크 회동후 애플-폐북협상 막바지였거든. 다된밥에 재뿌리는 작전
106	트위터-애플협력의 최대피해자는 구글이다. 사실 애플은 트위터안사도 되지만, 구글은 자신의 허벅지살을 바쳐서라도 사야하는 상황. 트위터가 구글보고 판돈 올리라는거다
107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애플과 구글은 경쟁자가 아니다. 잡스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비즈니스모델이 다르다. 애플은 판매. 구글은 광고업

# Bozart said

108	구글창업자들 잡스 CEO로 뽑으려했었다. 마운틴뷰 구글과 쿠파티노 애플은 점심때 전화해서 설렁탕사먹을만큼 가까운 동네친구다. 잡스-구글 싸운다고 현혹되지말라는 충고
109	구글의 진짜 적은 페이스북이다. 둘다 인터넷 영향력을 이용한 광고수익으로 먹고사니까. 페이스북이 인터넷영향력에서 구글을 제쳤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싸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
110	페이스북의 구글을 겨냥한 움직임이 눈부시다. 구글의 통신진입을 따라 페이스북도 통신을 치고 들어가는 중. 그러나 이 움직임뒤엔 두려움이 있다. 트위터에 대한 두려움
111	구글이 Gmail정보빼가는걸 막으니, 페이스북이 Gmail킬러를 내놓겠다. 페이스북은 구글노린 모바일 전략도 발표. 구글의 남은 길은 트위터를 먹는 것. 여기에 애플이 초쳤음
112	구글Video실패하자 유튜브사버리게 구글. 구글버즈,웨이브 망한 구글은 무조건 트윗사야함. 현찰왕 애플이 균침을 흘리는게 문제. 이유? 아이튠과 환상궁합, 구글죽이기
113	페이스북-구글은 지금 눈에안띄는 전쟁중-사람빼가기. 구글이 페이스북으로 옮기겠다는 직원에게 350만불스톡제안. 제발 구글에 이력서 보내지말라고 메시지보낸게 엇그제 같은데
114	페이스북이 Gmail 킬러를 내놓았다. SMS, 메일, IM 구분없는 통합메시징서비스. 소셜네트워크가 통신을 본질, 의사소통을 제대로 공략
115	페이스북이 발표한 모바일과 메시징전략의 공통점은 이종서비스간의 통합이다. 다음은? 음성기반통신과 텍스트기반통신의 대통합이다
116	페이스북의 이종통신간 통합전략이 가능한이유: 인간관계가 중심이기 때문. 친구끼리 대화할 때, 전화로할지, 메일로할지 따지는게 우습게 느껴질 때가 온다
117	드디어 비틀즈음원 아이튠에 공개된다. 애플컴퓨터-애플레코드 이름 전쟁 종료. 온라인 음악시장 승리. 비틀즈팬 잡스의 소원성취
118	혁신은 상식을 뒤집는 것부터 출발한다. 매일 대화하는 동료에게 메일쓸때마다 제목다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페이스북의 메시징혁명은 여기서 출발한다
119	통신은 대화다. 그런데 메일은 시간순으로 정렬된다. 내가 이모순을 깨달은건 아이폰메시징을 쓰면서부터다. 페이스북이 새로운개념인 상.대.별.정.렬.을 쫓피우는중
120	사실 페이스북 통합메시지는 구글이 먼저시작한거다. Gmail, 구글voice위에 구글버즈 없는 환상의 계획이었는데, 버즈가 사생활문제로 급제동. 구글은 땅을 칠일
121	페이스북의 소셜기반 통합메시지 말고, 통합메시지 구축하는 또하나의 길이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통합메시징. 내폰의 모든메시지를 상대별로 정렬하게될거다. 두고봐라
122	오늘 말했던 구글Voice앱 아이폰에 깔아쓰는중. 이제 전.화.기.란 단어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자리에 남은건 음.성.통.화.앱.뿐.
123	페이스북-구글전쟁 감상하는 또다른시각. 구글: 기술, 서부, 스탠포드. 페이스북: 인문학, 동부, 하버드. 구글버즈공격한 언론의 고향은 동부. 하버드동문들 금융, 언론, 정가에 우글우글
124	군사정권 암울한시절 우리에게선 선데이서울이 있었다. 민간정부들어선후 폐간. 요즘 신문보면, 선데이서울은 성경책이더라. 여러분이 어떤시대에 살고있는지 잘생각해봐라
125	한국서 일본 라멘먹을때마다 감탄한다. 다맛있다. 일본에선 절반은 입에도 못대거든. 문제는 전부 똑.같.이. 맛있다는거다. 한국사회의 근원적 문제: 획일성, 다양성결여
126	한국 사회의 강점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뒤집어 엮는 역동성에 있다. 문제는 180도를 두번 뒤집으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127	사방갈린 오뎅, 라멘, 이자카야. 맛있게 먹고도 늘 허전하다. 왜? 역.사.가 없으니까. 소셜사이트엔 소셜, 스마트폰 전문가들로 바글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	Bozart said
128	한국사회의 획일성은 등수에 집착하는 우리 자화상에서 정체를 드러낸다. 은메달따고 슬퍼하는건 한국선수뿐. 올림픽은 국가순위 집계안하고, 미국은 총메달수만 따진다.
129	다수의 인원을 통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줄세우기다. 우리사회의 다양성 결여는 학창시절 등수 매기기에서 출발한다
130	살다보니 학교에서 배운게 쓸모있을 때도 있군. 3S: Sex, Sports, Screen. 즐감. <a href="http://yfrog.com/ghw2qj">http://yfrog.com/ghw2qj</a>
131	80년 쿠데타직 후 주미대사왈: 한국민은 들쥐같아 곧 순응할 것. 그가 말한 들쥐는 앞쥐만 따라가는 레밍이다. 무조건 남따라하는 대한민국 <a href="http://yfrog.com/mg35fj">http://yfrog.com/mg35fj</a>
132	문제: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애플-잡스, MS-게이츠, 구글-페이지, 페북-마크. 답: 대학중퇴자들. 세상은 줄서기에서 벗어난자들 손에 움직인다
133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광고인 매킨토시 런칭광고 1984. 리들리스캣감독. 슈퍼볼에서 딱 한번방영. 지금 더 가슴에 와닿는다. 도데체 왜? <a href="http://goo.gl/Qwdz2">http://goo.gl/Qwdz2</a>
134	아이튠점령한 비틀즈 첫주성적표: 노래2백만, 앨범45만, 매상7백만불. 구매자 대부분 비틀즈곡을 소유하고 있음. 죽은공명이 산 중달을 이김
135	잡스는 평생 인간의마음을 사로잡고 싶어했지만, 실패가 더 많았다. 기술로 인간을 감동시키는건 그만큼 어렵다. 인간 감정을 사로잡는 최고 달인은 개그맨이다
136	컨텐츠는 IT의 쌀이다. 이따금 IT한답시고 가수, 개그맨을 탄따라라고 비하하는 사람있다. 쌀밥먹을자격없다. 우라질레이션이나 먹고살아라
137	IT의 미래를 알고싶은가? 그릇이 음식맛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라. 우리가 아는 기술은 미래 IT세상에서 정확히 음식담는 그릇만큼의 가치를 갖게된다
138	IT종사자는 현대판 도공이다. 그릇은 보라고 있는게 아니다. 자기가 만드는 그릇에 밥이 담길지 국이 담길지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살아남고 싶다면
139	우린 30년전 Breakthrough기술로 살고있다. IT가 첨단기술이란 환상에서 깨어나라. 전혀 예상치못한 곳에서 진짜 첨단기술이 깨어나는 중이다
140	영화 인셉션이 위대한 첫번째이유: 추상적개념인 인간의 정신세계를 시각적 형상화했다. 우리가 아직 해결못한 많은 추상적개념들을 형상화하는 방법문제시
141	영화 인셉션이 위대한 두번째이유: 미지의 영역이던 인간 의식문제를 대중이 관심을 갖게함. 일개 영화감독이 과학자 백명보다 큰일 함. 인셉션키드가 쏟아져나온다
142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술혁명의 핵심키워드는 인.간.이다. 잘새겨두기 바란다
143	문제: 다음 키워드들의 공통분모는? 인문학르네상스, 소셜네트워크, 뇌과학, 감성공학, 인공지능부활, 컨텐츠혁명. 답: 인간
144	하늘땅만큼 떨어져있던 인문사회학과 IT기술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소셜네트워크다. 겨우 첫아이일뿐이란 점이 더 중요
145	우리는 소셜네트워크의 군사분야 응용가능성에 묻지마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 얼마전 미팅에서 만난 미국방부 연구담당자가 한 말이다
146	과거>현재>미래: 1. 과거=산업화시대=Know-How, 2. 현재=정보화시대=Know-Where, 3. 미래=창의성시대=Know-Why
147	앞으로 Know-Why가 중요해지는 이유. 기술의 발달로 인간 아이디어구현을 방해하는 기술적장벽이 사라지기 때문. 생각한대로 이루진다는 광고카피를 떠올려라
148	늘 뉴스보니 연평도사태과 아시안게임, 딱 두개더군. 대한민국 본토엔 아무 일도 없단 얘기네

#	Bozart said
149	누군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그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진 않은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지
150	내가 언론을 읽는 법을 알려주겠다. 기사 자체보다, 언론계에 기사가 퍼지는 패턴을 읽어라. 특정기사가 쏟아져 나올때 특히 눈을 크게 떠야한다
151	{연평사태1/9} 국내외언론에서 연일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떠든다. 우연인지, 천운인지 이번 사태는 정치적위기에 몰린 한미양국정권에 단비같은 존재다
152	{연평사태2/9} 연평사태 전후 왜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서해에서 강행됐는지 생각해 본 적있나? 한반도문제는 남북문제가아니라, 강대국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153	{연평사태3/9} 미안한 말이지만, 남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허락없이 어떤행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모르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환율문제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54	{연평사태4/9} 비슷한 긴장감에도 중동에 비해 한국의 전쟁 가능성은 언제나 현저히 낮았다. 중동은 석유가 있지만, 한반도는 전쟁에서 얻을게 없기때문. 천연자원이 없다는게 천만다행
155	{연평사태5/9} 전쟁이란 주변관련국의 주권두들기기와 암묵적합의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정치적 이벤트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돈벌이수단이다. 정말 전쟁이 난다면, 반드시 징후가 보일 것이다. 경제쪽에서
156	{연평사태6/9} 경제지표와 손익관측결과, 나는 이번 사태만으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마이크로주가를 들여다보고 있어라
157	{연평사태7/9} 장기적으로, 미국-중국간 경제갈등해소가 요원하므로 한반도긴장완화는 어렵고, 오히려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미안하지만, 이 상황에서 남북한이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158	{연평사태8/9} 연평사태는 우리가 원하는 국군 경쟁력강화가 아닌,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FTA재협상카드로 내놓는다면 어쩔 것인가?
159	{연평사태9/9} 결론: 쓸데없는 전쟁얘기에 시간낭비하지말고, 이틈에 정부가 밀린 숙제하는거나 관심가져라. 지난일이니까 하는 말인데... 미디어법 깔끔하게 통과된건 알고있나?
160	오피스문서 구글doc에 싱크하는 Google Cloud Connect 공개됐다. 크롬OS 런칭이 다가온단 징후. H/W과는것밖에 모르는 기업이나 그걸 넘죽사는 사람들이나...
161	SNS이용한 신종 자선기금 모금법: 펜들이 백만불 모금할때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활동 중단. 라디오가가, 저스틴티ம்ப레이크등 참여.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모이는 SNS의 힘
162	연평사태와 천안함사태의 공통점: 1. 뜬금없는 한미연합훈련이 서해에서 진행중이었음. 2. 사건발생과 초동대응 사이에 시간공백이 있었음. 이 두사태에서 남북한은 조연일뿐이다
163	내가 한반도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중국 금융시장을 강제로 개방하기위해 미국이 중국에 쓸 수 있는 압박카드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때문이다.
164	스마트폰시대의 정보기록 패러다임 변화: 이젠 사람들이 쓰.지.않는다. 찍거나, 녹화/녹음한다. 키보드의 역할이 축소되는 중
165	스마트폰시대의 정보습득 패러다임 변화: 이젠 사람들이 읽.지.않는다. 그냥 본.다. 트위터의 부상으로 블로그가 죽어가는 이유다
166	위키리크 외교문서공개로 시끄럽다.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외교암흑시대가 올건진 모르겠고, 정보암흑시대를 초래할가능성은 높다. 문서내용보다 누가 왜 흘렸는지 더 궁금하다
167	몇일전 Torrento-Find란 사이트가 예고없이 강제폐쇄됐다. 위키리크와 관련있는듯. 테러잡는 미국국토방위국 작품이란게 흥미롭다. 디지털 다크에이지의 전주곡?

#	Bozart said
168	내가 위키리크관련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 수년간 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망중립성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
169	망중립성: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내용을 보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하는 정책. IT진영 환영, 네트워크진영 극렬반대
170	미래 IT 사회를 결정지을 두개의 키워드: 첫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둘째, white space. 한국에선 아직 생소할테니, 기억만해둬라.
171	{아이패드저널1/3}신개념 아이패드용 저널 P.R.O.J.E.C.T 공개. OMG, This is Future.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
172	{아이패드저널2/3}아이패드저널 PROJECT: 제프브리지스와 대화, 재규어시승, 도쿄여행. 인터페이스와 콘텐츠결합이 화학적 결합이 주는 아찔함. 말로는 설명불가
173	{아이패드저널3/3}아이패드의 현재 상태는 7살짜리 딸이 어젯밤 생일선물로 받은 고무찰흙 놀이세트와 동일하다. 앞으로 무엇이 만들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174	통신이라는 복잡한 시장구조상 마이너로 갈 운명인 아이폰과 달리 아이패드는 시장장악의 순탄한 길을 가고 있다. 정확히 아이팟이 걸어온 길이다
175	미디어진영의 아이패드 올인현상은 아이패드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몇년간의 부대낌으로 체득한 구글의 시장장악에 대한 우려도 한몫한다
176	최근 어느 미국소비자 선호도조사에서 갤럭시탭 무려 15%차지. 사이즈와 휴대성의 승리다. 아이패드는 고작 85%. 왜 이런 경사스런 뉴스가 한국언론엔 안나올까?
177	위키릭스후폭풍: 창립자 인터폴수배, 아마존서버에서 퇴출, 관련사이트 강제폐쇄. FCC의 망중립성 결정투표가 12월 21일로 예정되어있는 것이 우연일까?
178	NASA가 중대발표한다고 난리더군. 나는 그들이 E.T.데리고나와도 안놀란다. 내년 예산따려고 하는 일이니까.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아닌가
179	아이폰4 데스크톱 문제로 애플욕하던 HTC가 윈7폰 데스크톱 해명자료배포.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언론플레이에 속은 기분들이 어떤가?
180	아이폰 사용자집단 발달패턴이 적분형이란 점에 주목하라. 기존사용자 대부분잔류, 지속적 신규사용자 유입. 눈덩이모델이다. 말은 못하지만 SKT떨고있다
181	예술은 나만이 할수있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수있어야 가치를 인정받는다. 기술의 보.편.성.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182	기술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이 일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 착각이다. 누구든 할 수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거다
183	표절을 금기시하는 예술과 달리 기술은 카피를 당연시여긴다. 기술세계에선 먼저 한 사람만 대우받으며, 이들을 챙겨주기위해 탄생한 제도가 특허다
184	원론적으로 특허는 기술독점이 아닌, 기술을 나누기위한 장치다. 어떤 제도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질되며 급기야 특허괴물이란 사생아를 낳음
185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각자 자신들의 단기기억상실증이나 치료해라. 1년, 2년, 아니 3년전 어떤일이 있었는지 기억이나 나는가?
186	뉴스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택과 제조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미디어의 힘의 생겨나는 것이다
187	뉴스제조과정은 엄마가 시장보는행위와 동일하다. 저녁메뉴로 매운탕을 끓일까, 김치찌게 끓일까? 가끔 아빠가 전화해서 손님온다고 갈비찜해놓으란 점에서 더욱그렇다

#	Bozart said
188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인 Fareed Zakaria 왈: TV에 나오는것 다 믿지마라...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평화시기를 살고있다" 이사람누군지궁금하면 > <a href="http://goo.gl/7j84">http://goo.gl/7j84</a>
189	NASA중대발표는 결국 예산확보용 쇼로 판명. 달가지로 30년 땀기위한 전초전. 입으로 돈을 벌어야한다는 점에서 연구조직도 정치조직과 같은 부류다
190	{한미FTA1/8} FTA재협상 끝났으니 한마디하자. 협상의 최대쟁점이라고 떠들던 자동차시장 개방은 국민에게 좋은일 아닌가? 한국정부는 누굴위해 일하는걸까
191	{한미FTA2/8}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한미FTA에서 자동차와 소고기는 가장 덜 중요한 사안이 었다.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가장 덜 중요하단 말이다. 여러분은 또 속은거다
192	{한미FTA3/8}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의 위대한 성과는, 미국이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졌단 사실. 관세협상은 무슨 얼어죽을...
193	{한미FTA4/8} 한미FTA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됐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영향권에 들어간다는걸 의미한다. 외국로펌이 미쳤다고 대한민국법전 공부하겠나
194	{한미FTA5/8} 한미FTA성과인 지적재산권보호와 법률서비스개방이 가리키는건 한가지뿐: 특허괴물Patent Troll. 얼마전 삼성이 특허괴물과 3억불주고 특허권 도매계약했다
195	{한미FTA6/8} 그동안 삼성이 한국내에서 특허관련 어떤식으로 일처리했는지 기억한다면, 황급히 특허괴물과 협상한 사실만으로도 한미FTA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96	{한미FTA7/8} 혹시 특허괴물들이 국내대학들이 보유한 잠자는 특허들을 사모으고 있다는 뉴스 기사 기억하는가? 삼성은 빠져나갈건데, LG는 뭐하고 있을까?
197	{한미FTA8/8} 그동안 국내법위에 군림하며 중소기업죽이고 자신만의 왕국을만든 삼성은 FTA 이후시대를 착실히 대비중이다. 당신도 정신뚝바로차리고 삼성본받아 자기살길찾으란말임. 끝
198	KT가 뒤늦게 mVoIP무료통화를 금지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중. mVoIP가 자신을 잡아먹을거란 것도 몰랐다면 바보, 알면서도 모른척했으면 나쁜놈
199	프로파간다는 정치에만 있는게아니라, 기술에도있다. 대표적인 예가 클라우드다. 우리가 매일 쓰는 웹메일이 클라우드다. 기술을 빙자한 마케팅에 현혹되지마라
200	거시적관점에서 나는 세상을 이끄는 선도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기반기술로 구분한다. SNS는 선도기술, 클라우드는 기반기술이다. 보통사람은 기반기술에 관심꺼라
201	{넥서스1/6} 소문만 무성했던 구글과 삼성의 합작품 넥서스S가 공개되었다. 넥서스시리즈는 팔려고 내놓는 폰이 아니라, 난장판 안드로이드폰 시장에 구글이 내놓은 모범답안이다
202	{넥서스2/6} 넥서스시리즈의 관전포인트는 폰을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 탑재되느냐이다. 지금 구글은 차세대 플랫폼의 신부를 찾는중이다. 퀄컴이나 삼성이나
203	{넥서스3/6} 삼성은 애초에 넥서스윈 합작제의를 받아들여야했다. 윈텔에 버금가는 삼성-구글 플랫폼탄생의 기회를 날린거다
204	{넥서스4/6} 칩~폰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수직계열화는 차세대 플랫폼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경쟁자 퀄컴이 삼성과우드리 고객이기때문. 퀄컴이 물량뺐다고 협박한다면...
205	{넥서스5/6} 핸드폰회사들에게 안드로이드는 독이든 사과다. 넥서스중심으로 기능/인터페이스 통일되면 남는건 피터지는 가격싸움뿐. 알면서도 받아먹을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206	{넥서스6/6} 안드로이드의 성능평준화/가격경쟁은 플랫폼의 급속한통합을 이끌게된다. 많이 팔리는 것이 싸기때문. 혼란기를 지나면 제2의 윈텔이 탄생하고, 결정되면 게임끝이다
207	트윅텍개발자는 244단말과 100가지 OS버전을 테스트해야 했다고 블로그에 썼다. 개방성이란 개발자들에게 샌드박스의 의미가 있지만, 일반사용자들에게 광고 문구일뿐이다

#	Bozart said
208	구글은 지금 244개 인종에 100개 사투리가 소통하는 언어를 관리중이다. 간단한 안부인사는 되지만, 100분 토론은 못한다. 넥서스를 내놓은 이유다
209	안드로이드의 다중플랫폼지원문제는 구글의 게임시장진입의 걸림돌이지만, 애플의 공세에 고전하던 닌텐도와 소니의에겐 숨돌릴여유를 주고있다
210	구글이 모토로라와 함께만든 차세대타블렛 프로토타입 공개. 안드로이드3.0 허니컴탑재, 내년 출시예정. 갤럭시탭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운명인 것을..
211	구글의 화려한 이성편력: HTC-퀄컴-삼성-모토로라-NVIDIA... 데이트는 오케, 결혼은 노. 언제까지 화려한 독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212	Everything is connected - Green Zone.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모두다 연결되어있다
213	당신이 코끼리 코를보든, 꼬리를 보든, 상아를보든, 당신은 코끼리를 보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코끼리보듯 사회를 보는 연습을 하라
214	인간은 따~악 자신이 아는만큼의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고급식당에서 에퍼타이저만 먹고 나왔다는 얘기. 새책찾기전에 읽었던책 다시봐라. 새로운의미로 다가올거다
215	최고의 학습법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신은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216	지식은 물이다. 고인물이 썩듯이 혼자 알고있으면 결국 쓸모없게되는게 지식. 샘물은 퍼낼수록 신선한물이 나온다. 남에게 지식을 주는만큼, 당신의 지적능력은 높아진다
217	알면알수록 모르는게 많아지는게 세상이더라. 내가 글을 쓰는 행위는 내가 모르는 더 큰 세상을 담기위해 한정된 내머리를 비우는 과정이다
218	현상의 이해도에 대해: 상대방이 당신의 설명을 쉽게 이해했다면 당신은 정확히 알고있는 것이고, 상대가 어려워한다면 당신은 잘모르고 있는 것임
219	사회구조적관점에서 나는 봉사나 희생이란 말을 좋아하진않는다. 당신이 희생을 한다는건 누군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
220	대다수가 구글맵교통정보에서 차막힌것보고 돌아간다면, 자연히 교통체증이 해소된다. 나는 이기적동기에의한 이타적인 행위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으로 생각한다
221	구글크롬OS기반 넷북출시 내년여름으로 연기 공식발표. 안드로이드처럼 다중플랫폼지원문제가 원인인듯. 아이패드의 시장지배는 이제 현실이다
222	2011년 여름 삼성과 에이서에서 첫 크롬OS 넷북출시예정. 아빠(구글)도 엄마(삼성)도 원하지않았던 태어나지말았어야할 갤럭시탭
223	구글 진짜똥줄탄다. 웹앱스토어개장. 크롬OS베타넷북 배포. 제품공개일정공개.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오픈플랫폼정책이다. 기술적으로 아이패드완성도를 따라갈수가 없거든
224	정치인들 무슨저지한다고 밤새는거보고 감동받을필요없다. 이사람들 직업이거든요. 당신도 밀린일처리하려고 밤새지않나? 다른점: 당신은 밤새서 일마무리해야하지만, 그들은 아주가끔 밤만 새면된다
225	세상은 바둑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정치세력들은 틈만나면 당신들을 흑과 백으로 나누려하며, 실제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신들을 바둑알처럼 취급한다
226	정치집단이 대중을 선동하는 비밀. 가상의적을 만들고 이에 동조하는 우매한대중을 우선적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일단 자기편이된 사람들을 조종하는건 손바닥뒤집기보다 쉬워진다

# Bozart said

227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참으로 옳은말이다. 모든사람은 처자식먹여살리려고 일한다는 얘기. 세상에 공인이란 없다. 당신도 직업정치인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족이나 챙기는게 좋다
228	사방에 난무하는 정치구호들: ~반대, ~저지, ~투쟁. 성공했다면, 실패했다면 대안은 있는가? 대안없는 투쟁은 단기기억상실 장애를 앓는 국민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이득을 채우는 앵벌이 행위일뿐이다
229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모두 회색분자가 되어야한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구호들의 옳고 그름을 따로따로 판단하고 반응하라. 그들의 선긋기놀이에 놀아나면 지는거다
230	나는 우리국민이 앓고있는 단기기억상실증의 원인을 시간대별로 끊어서가르치는 횡적역사교육방식에서 찾는다. 치유법은 특정사건이 터졌을때, 과거의 원인을 역추적하는 것이다
231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행위는 옆집아저씨에게 등록금내달라는거다. 해주긴할거다. 자기식구챙기고 공과금내고 차뺏고 해외여행갔다오고, 그래도 여유있으면
232	이따금 정치인들이 당신에게 원하던 일을 해주었던 느낌이들때가 있다. 그들과 당신의 이익이 싱크되었을때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다
233	아직도 직업정치인에 일말의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월급올리는데 5분밖에 걸리지않는 사람들이 몇년째 게임심의법안을 처리못하는중. 앱스토어에 게임이 없는 이유
234	누가 애플이 왜 아이폰을 만들었냐고 내게물었다. 내답: 핸드폰팔아 돈 더많이 벌려고. 애플은 전형적Bottom-to-Top회사다. 애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잡스에대한 지나친 신경화거품부터 제거하라
235	누군가 구글이 왜 안드로이드폰 만들었냐고 내게 물었다. 내답: 세계정복해서 돈 더많이벌려고. 구글은 Bottom-to-Top회사의 전형이다
236	고집불통, 결벽주의자 잡스에게 본받을 점이 있다면? 판단력, 집중력, 끈기, 배짱.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은? 포커선수
237	구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슈미트전후를 철저히 구분해야한다. 그는 꽤좋은 서치회사를 강력한 정보독점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큰그림을 그릴 줄아는 사람이다. 프로바둑기사를 했으면 성공했을거다
238	철없던 구글창업자들이 잡스를 구글CEO로 뽑겠다고 했을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투자자 존도어가 미쳤냐며 말렸다. 만약 잡스가 구글을 맡았으면 모바일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39	페이스북은 애플과 구글이 낳은 자식같다. 페북 비즈니스모델은 인터넷의 영향력을 먹고사는 구글을 닮았고, 창업자 마크는 인간관계 실패의 전형인 잡스를 쫓 빼닮았으니
240	드디어 에픽게임UR3엔진기반 첫게임 인피니티블레이드 공개. 리뷰어왈: 손안의 X-box다. iOS가 닌텐도를 넘어 수년내에 PS와 X-box를 위협할거다.즐감: <a href="http://goo.gl/AaVHJ">http://goo.gl/AaVHJ</a>
241	페이스북을 다룬 영화 소셜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잃어버린 두가지를 일깨운다: 1. 두려움을 모르는 젊음의 열정, 2. 아이디어의 소중함
242	영화소셜네트워크에서주인공은 치열한 법정공방에도 자기컴퓨터에 눈을떼지않는다. 요즘 젊은이들 꿈이없다고 불평한다. 웃기는소리. 그들이 자신이 꿈꾸는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 사회구조가 문제다
243	어느 갤럭시탭사용기: 충전에 4시간, 인터넷 4시간만에 방전.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아이패드의 강점은 10시간 사용시간이다
244	충분히 발달된 기술은 마술과 구분할수없다 -아더C클라크. 이분야에서 밥벌어먹고사는 엔지니어관점에서도 아이패드의 10시간사용시간은 마술이다. 세분화된 현대산업구조상 단일기업이 애플을 따라잡기 매우어렵다

#	Bozart said
245	돈버는법을 하나알려주겠다. 인텔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어떤 모바일제품도 사지마라. 인텔이 CISC구조로는 대부분 모바일기기가 채택중인 ARM-RISC-계열 프로세서의 전력소모를 따라 갈수없다
246	클락수뺏튀기해 자기스마트폰 빨라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있다. 안쓰럽다. 모바일은 전기 꼽고쓰는 PC가 아니다. 전력소모는 클락에 비례한다. 겨울엔 쓸만하겠군. 난로로 쓰면되니까
247	반도체산업이 급성장한 이유: PC시장장악한 인텔의 CISC구조로 성능높일수있는 유일한방법이 클락높이기다.전력소모줄이며 클락올리려면 무조건 미세공정으로 갈수밖에없었다.무어의 법칙이 여기서나온거다
248	20년전 기술의 우수성에 도취되다 인텔의 전략에 말려 PC시대를 내주었던 RISC진영은 모바일 시대에 ARM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저전력소모와 확장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양손에 들고
249	인텔CISC의 장점은 RISC보다 프로그램이 쉽다는점이였다. 인텔의 PC장악으로 SW가 HW에서 분리되고, MS중심으로 SW산업이 고속성장한다. 그때 RISC가 이겼다면, SW는 소수전문가영역으로 남았을 것
250	모바일기기의 전력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기위해, SW가 다시 HW속으로 들어가고있다. 애플이 전력소모가 적은 이유는 SW와 HW가 최적화된 자신만의 프로세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251	애플이 자체AP를 개발한다고 했을때 난 잡스가 미쳤다고 생각했다.결국 잡스의 도박은 성공했다. iOS를 모든모바일제품에 공통적용하는 전략이 주효. 2011년 1억대의 iOS제품에 A4가 채택 될것
252	모바일제품개발이 기존전자제품보다 어려운것은 단순성능평가가 무의미하기때문이다. 성능 측정시에 반드시 단위면적당, 단위무게당, 단위에너지당이라는 축이 붙는다
253	애플의 A4를 개발한 PA-semi주역들이 새로만든 회사를 구글이 덩석사버렸다. 이회사는 ARM 기반의 서버용 초저전력 프로세서를 만든다. 구글이 왜서둘러 그회사를 샀을까? 답은 에너지
254	클라우드시대의 팽창으로 에너지와 IT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IT의 미래를 알고싶다면, 에너지와 IT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해야한다
255	요즘 스마트그리드가 화두다. 100년동안 멀쩡히 잘쓰고있는 단방향/하향식 전력망을 통신망처럼 양방향으로 바꾸겠다 얘기인데...전력회사가 아닌 IT쪽에서 밀어붙인다는 사실에 밑줄찍
256	인터넷을 미국방부에서 개발했던 이유: 특정노드가 파괴되도 다른노드로 통신이 연결되는 안정성때문. 스마트그리드도 마찬가지다. 특정전력원이 파괴되도 다른 전력원을 통해 공급되므로 전체전력수급은 손실이 없다
257	스마트그리드의 또다른 장점: 부하의 평준화, Load Balancing. 특정전력원에 지나치게 수요가 몰릴경우, 다른 전력원으로 수요를 분산하여, 전력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258	클라우드열풍은 데이터센터짓기라는 새로운 버블을 만드는중. 2005년 15조원에 불과하던 미국내 데이터센터의 2012년 예상전기세는 250조원이다
259	구글은 에너지문제를 세가지방향에서 공략한다. 1.에너지관련정보독점 2.데이터센터를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확보 3.에너지장사-2010년초 구글은 에너지판매업을 정식허가받았음
260	데이터센터 전기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HP의 말을 들어봐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소비는 회사 전체에너지예산의 40%이며, 그중 50%는 서버냉각과 전송부분에서 소모된다
261	스마트그리드에서 에너지를 콘텐츠로 취급한다는 것은 IT망과 전력망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 강전과 약전으로 나뉘어진 두개의 독립된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통합관리된다. 이게 구글이 그리는 미래다

#	Bozart said
262	나는 구글의 에너지전략이 모바일전략과 함께 대략 2004년쯤 완성되었다고 본다. 구글의 에너지전략은 모바일전략과 긴밀하게 연동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다같이 만나게 될거다
263	삼성이 GE와 스마트그리드 손잡았다는 소식들었나? 삼성이 주유소사업 시작한건 알고있나? 삼성은 이미 미래형 포지션을 잡았다. 삼성욕하기전에 그들만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264	한국에서 살아남고싶으면 삼성을 잘봐라. 껌땀팔려고 국민속이는 짜질이 삼성말고 진짜 삼성. 힌트: 삼성은 지금 GE가 가는길을 따라가는 중이다. GE의 핵심사업은 에너지와 헬스다
265	삼성병원-바이오시밀러-GE협력-의료보험민영화-영리병원허용, 그리고 메디슨 인수까지. 삼성의 헬스분야진출이 강남삼성병원부터 시작한거라면...음...개원이 1994년이군
266	가장 복잡한물체는 가장 단순한형태의 그릇으로만 담을수있다.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현상들이 공통으로 갖는 가장 단순한팩트를 찾는 것이다
267	반도체소자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의 이동속도는 느려진다. 인간도 마찬가지. 흥분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감성을 자극하는 뉴스가 판을칠수록 흥분하지말고 냉철히 주변상황을 인식해야한다
268	국회보고 궁극한점: 복지예산 삭감할때 야당이 몰랐을까? 야당이 예산통과된 이후에 난리치는 건 번복안되는걸 알기때문? 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똥다
269	얼마전만난 인공지능전문가는 내게 인간을 프로그래밍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사람의 본질을 아는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회의 본모습이 아니다
270	영화인셉션이 프로이드에게서 빌려온 개념: 인간행동의 요인은 무의식에서 발생한다. 나는 사회라는 생명체의 무의식을 어떻게 정의해야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인셉션하는지는 안다. 미.디.어.
271	{미디어와권력1/4} Video-on-Demand는 그다지 좋은 비즈니스모델이 아니다. 보고싶지않을때는 안볼수있기 때문. 보고싶지않아도 봐야하는 Video-Un-Demand가 미디어업계 궁극의 모델이다
272	{미디어와권력2/4} 미디어업계의 숙원인, 원하지않아도 봐야하는 Video-Un-Demand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일명 바보상자라고도 불리운다. 채.널.고.정.
273	{미디어와권력3/4} 방송초창기 Video-Un-Demand가 쉽게 정착한배경에는 미디어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정부는 국민을 쉽게다스려서 좋고, 방송은 경쟁없이 쉽게돈벌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악어와 악어새
274	{미디어와권력4/4} 80년 군사정권집권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송통합이었다. 정부와 미디어와 공생관계를 이해하면, 왜 국가가 방송채널허가에 그렇게 조심하는지 이해할것이다. 미디어는 국가질서유지에 필수품이다
275	위키릭스사태는 망중립성을 추진중인 미국민주당과 FCC에대한 기존세력의 조직적반발이다. 12월21일로 예정된 망중립안 최종투표의 결과가 미래IT세상을 결정짓기때문에 크리스마스결투라 불린다
276	KT의 mVoIP사태를 기억하는가? 이게 망중립성의 위력의 맛보기다. 자기 네트워크에 뭐가 돌아다니는지 상관말라는 망중립성. IT진영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네트워크사업자 보고는 죽으란얘기다
277	한미FTA 체결후 첫번째 의문점: 강력한 특허권자권리보호로 원천특허없이 카피약 팔는 한국 회사들이 국내에서 장사하기 매우어려워진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	Bozart said
278	한미FTA체결후 두번째의문점: 보험서비스 완전개방은 기본, 미국쪽 항의로 농협과 수협의 보험판매가 사라진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279	드디어 증강현실을 이용한 최초의 혁신적인 앱등장. 길거리사인 자동번역기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는? 백문이 불여일견> <a href="http://j.mp/hUYwCH">http://j.mp/hUYwCH</a>
280	iOS의 Airplay기능이 놀랍다. 아이폰의 음악을 자동차 블루투스 핸드프리를 통해 카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아~ 이젠 카오디오 마저 사라지는 것인가...
281	{종교와인간1/3} 석가모니는 불자가 아니었다. 예수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종교가 종교다워지려면 보편적 윤리,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 현각스님
282	{종교와인간2/3} 그리스의 척박한땅을보면 그들에게 종교, 정치, 철학이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게될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부유한 주변국의 호주머니를 열게한 것이다
283	{종교와인간3/3} 나는 인간이 신의 창조물인지 신이 인간의 창조물인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가 인간의 창조물인 것은 자신있게 말할수있다. 종교는 엄연한 경제행위이며,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284	거시적관점에서 NGO,정치,종교,협회가 경제주체들이란 사실을 대중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 집단 행동원인이 경제활동-즉 먹고살기위함-이라는 시각으로 그들의 행동방식을 바라볼 필요가있다
285	연말은 자선의 계절이다. 좋은일이다. 나는 기부와 자원봉사같은 자선행위도 경제활동으로 본다. 자신을 희생해서 좋은일한뒤 얻는것과 동등한 정신적만족을 다른곳에서 얻으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할지 생각해보라
286	한국사회의 취약한부분: 무형적인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불법MP3찾는시간과 노력이 아이튠에서 곡당1불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깨닫지못한 한국은 결국 애플에게 추월당할 수 밖에없었다
287	{문화와컨텐츠1/6}컨텐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다양한 컨텐츠를 발생시키는 메가컨텐츠라는 개념을 이해해야한다. 언어,종교,이념등이 이에 해당한다
288	{문화와컨텐츠2/6} 컨텐츠먹이사슬구조: 최상위에 메가컨텐츠 (언어,종교,이데올로기)위치. 이들로부터 문화현상이 발생하며, 문화는 다시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형태의 컨텐츠를 발생시킨다
289	{문화와컨텐츠3/6}언어의 힘: 영미가 지배한 지난200년간 영어가 세계공용어였다는 것은 우연이아니다. 한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알고싶다면, 문화의 영향력을 보면된다. 흠...우리나라는?
290	{문화와컨텐츠4/6} 때로 한편의 소설이 그나라의 컨텐츠 경쟁력을 높이기도한다. 해리포터가 좋은 예다. 문제는 영어로 쓰여졌기에 가능해졌다는 점. 그이면에는 영어권국가들의 문화권력의 위력을 볼수있다
291	{문화와컨텐츠5/6}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컨텐츠의 모태가 된다는 사실에있다.일본은 70년대에 정부차원에서 애니메이션수출을 지원했다. 지금 영화,음악,게임속에 일본애니메이션영향이 얼마나 뿌리깊이 박혀있는가?
292	{문화와컨텐츠6/6}결론: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컨텐츠산업이 중요해지는 미래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293	{인간천문학1/5}지구는 50억개의 독립된 우주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각 우주는 자신만의 법칙으로 돌아가며, 단.하.나.의 우주도 똑같지 않다
294	{인간천문학2/5}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윤리란 것은 결국 인간수만큼의 우주가 충돌없이 공존하기위한 최.소.한.의 원칙의 모음일뿐이다

#	Bozart said
295	{인간천문학3/5} 장담하건데, 자신의 우주의 법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나쁜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은 그 행위를 하기 직전 반드시 합리화를 하기때문이다
296	{인간천문학4/5} 모든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제일+무엇'이란 생각을 최소한 하나씩 갖고있다. 내가 제일똑똑하다, 제일잘생겼다...진짜 아무것도 없는사람은? 내가 제일착하다
297	{인간천문학5/5} 결론:인터넷세상에서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기 쉽다. '그'를 비판하기 전에 '그'역시 또다른'나'이며, 당신도'그'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298	두사람싸움불이고 승부결과에 판돈거는 바카라라는 게임이있다.분열로 얼룩진 최근 한국모습이 꼭 그꼴이다. 남-북,여-야,불교-기독교,교사-학생,업주-노동자.이 혼란들이 어디서 시작했을까,누가 이득을 볼까
299	{핸드폰시장의비밀1/7}지금부터 누구도 꺼내고 싶지않은, 그러나 알사람은 다아는 대한민국 핸드폰시장의 비밀을 얘기하겠다. 드디어 의문을 풀어줄 확실한증거를 잡았기 때문. 바로 한국 모바일웹사용통계다
300	{핸드폰시장의비밀2/7} 한국모바일웹사용통계: 점유율20%인 아이폰이56%, 점유율40%의 갤럭시S가18%차지. 아무리 아이폰이 잘났어도 이런결과는 절대 나올수없다. 한국핸폰시장은 미쳤다
301	{핸드폰시장의비밀3/7}십분양보해 안드로이드 웹사용율이 아이폰절반이라고 가정해도, 나머지 절반의 갤럭시H존적이없다.결론은 하나다. 보조금빼먹고 대리점창고에서 잠자는 가개통폰이 전체판매량 절반이란 얘기
302	{핸드폰시장의비밀4/7} 한국과세계시장웹점유율비교: 한국: 아이폰20%점유율에56%,갤스44%에18%. 세계:아이폰30%점유율에40%, 안드로이드13%에26%(5월기준)
303	{핸드폰시장의비밀5/7}앱이 발달하지 못한 안드로이드는 아이폰보다 웹점유율이 높게나와야 정상이다. 한국은 지나친경쟁으로 인한 보조금때문에 돌이킬수없는 괴물이되었다
304	{핸드폰시장의비밀6/7}갤S절반이 가개통폰으로 대리점에서 잠자고있다는 내말을 못믿겠다 면, 해외에서 갤럭시보다 더좋은평가받고, 실제로도 더많이팔리는 HTC폰이 왜 한국에서만 죽느냐는지 생각해봐라
305	{핸드폰시장의비밀7/7}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이유는 빨리 왜곡된시장 바로잡지않으면 당신들 모두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때문.곧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다. 아,물론 삼성은 열외니까 신경쓰지마라. 끝
306	퀄컴이 모바일TV용으로 고작 4천만불주고산 700MHz주파수를 ATT가 4G네트워크용으로 2조원에 샀다. 50배장사다. 자세한내용은 내가전에쓴글참조> <a href="http://bit.ly-f2MT3Z">bit.ly—f2MT3Z</a>
307	버라이즌 아이폰출시로 ATT가 급해졌다. ATT통화품질이 최악이란 인식때문에 상당수 사용자가 버라이즌으로 넘어갈 것이기때문. ATT의 700MHz주파수구매는 이러한 위기의식의 결과다
308	ATT는 아이폰때문에 넘어오는 사용자들을 날로먹다가 대가를 치르는 중. 하지만 ATT입장에서 통화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은 억울하긴하다. 어떤네트워크도 아이폰의 엄청난 초기데이터수요를 감당할수없기때문
309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겠다. 통신사들이 4G통신망어찌구 달콤한얘기를해도 절대 속지마라. 아직까지 지구상에 4G통신망은 존재하지않는다. 기술의 가면을 쓴 마케팅용어일뿐이다
310	공식적으로 4G통신은 UN산하 ITU가 정의한 IMT-Advance를 말한다. 4G는 각그룹이 제안하는 기술안을 각국대표가 투표로 결정한다. 아직도 진행중이고, 표준안나와도 언제깎릴지는 머느리도 모름

# Bozart said

311	ITU가 정의한 4G, 즉 IMT-Advance는 이동중 100Mbps, 저속 (nomadic)에서 1Gbps를 만족해야한다. 현재 제안된 LTE 및 WiMax진영 어느 누구도 만족못시키고 있다
312	4G통신구현의 진짜 걸림돌은 확실한 비즈니스모델이 없다는 사실이다. All-IP의 4G망을 깔려면 수십조의 돈이 들기때문이다. 스펙 못맞추는건 부차적 문제일 뿐
313	4G실현의 걸림돌은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것. 나라마다 주파수정책이 다르고 4G요구조건인 40MHz대역폭을 만들기어렵다. 미국이 DTV전환에 앞장서고 white space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314	세계는 지금 주파수 확보 전쟁중이다. 넓은주파수 확보할수록 미래정보사회에서 자국경쟁력이 높아지기때문. 한국의 DTV전환후 남게된 700MHz대역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있게봐라.이게 엄청난 이권이거든
315	T-mobile HSPA+가 21Mbps나온다고 광고한다. 통신사가 광고하는 전송속도에 절대속지마라. 수도꼭지 두배 큰걸로 바꾼다고 물 두배 많이 나오지않는다.당신이 경험하는 체감속도는 기반 네트워크에 더크게 좌우된다
316	2010년12월21일을 기억하라.FCC가 추진한 망중립성 net neutrality이 최종확정되었다.이제 네트워크업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엿보거나 컨트롤할수없다. 아참,미국애기란걸 빼먹었네
317	이번에 확정된 망중립성은 white space정책과 결합하여, 통신과 IT산업구조를 바꾸게될 것이다. 앞으로 통신망은 공공재성격이 강해지면서, 도로교통망을 따라가게 된다
318	미국정부가 망중립성과 white space라는 혁신정책의 계획에서 실현까지 10년의세월, 2명의대통령, 4명의FCC위원장들이 필요했다. 바보로불리던 부시대통령시절에 이 혁명이 시작되었단 말이다
319	{이상한나라의도로1/7} 현재 우리가 쓰는 통신망의 폐쇄성을 알기쉽게 설명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이상한나라의 도로망과 현실의 교통망을 비교해보라 (여기서 차는 핸드폰, 도로는 네트워크이다)
320	{이상한나라의도로2/7} 규칙1. 이나라의 도로사용자는 반드시 S,K,L 회사중 하나를 가입하고, 그 회사가 미.리.구매했는 자동차중 하나를 반드시 구입해야한다
321	{이상한나라의도로3/7} 규칙2. 이나라에서 사용자가 구입한 자동차로는 오직 그 회사의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세회사 모두 같은 차종을 소유하고 있지만, 같은 차종으로도 상대방 도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322	{이상한나라의도로4/7} 규칙3. 이나라에서 도로사용자가 회사를 바꾸면, 그는 갖고있는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운 회사가 구매해놓은 차종 중 하나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예외는 없다
323	{이상한나라의도로5/7} 규칙4. 이나라에서 도로사용자는 그회사의 도로 사용량(마일리지)에 따라 돈을 낸다. 이용료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신기하게도 3개 회사가 비슷하게 비싸다
324	{이상한나라의도로6/7} 규칙5. 이나라에선 도로에 오직 그회사가 지정한 '개인승용차'만 다닐 수 있다. 오토바이, 스쿠터는 물론, 대중 교통수단 (버스, 택시)도 허용안된다
325	{이상한나라의도로7/7} 현실:도로에서 내가 어떤차로 어떤길을 달리든 도로공사가 간섭하지 않는다. 자, 이제 통신망이 얼마나 이상하게 운영되는지 감이오는가?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도로망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다. 끝
326	{주파수전쟁1/4}이동통신주파수는 낮을수록좋다.기지국커버리지넓고, 고속이동에도 끊김이 적기 때문. KT가 통화품질최악이라는 오명을얻은 이유는 1GHz아래 주파수가 없기때문.SKT는 800MHz취고 쉽게장사해왔다

#	Bozart said
327	{주파수전쟁2/4}최근 정부는 SKT가 독점하던 1GHz아래주파수를 LG와KT에게 나눠줬다. 왜 SKT가 순순히 자기땅을 내줬을까? DTV전환뒤 얻어지는 진.짜.황금주파수700MHz를 먹으려는 속셈
328	{주파수전쟁3/4}DTV전환의 최대변수는 white space주파수. 600MHz아래 유희방송채널을 통시에 이용하니 특성 좋고 공짜라 저가,저전력의 혁신적이동통신 구현가능.문제는 방송사들의 반발.미국은 방송사로비와 싸우는데 7년걸렸다
329	{주파수전쟁4/4}한국언론에서 white space가 금기인 이유: 자기밥그릇을 위협하니까.종편문제도 얽혀있다. 난 한국이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수없다.다만 그런다고 될게안되고, 안될게 되는건 아니란 점만 얘기해둔다. 끝
330	{책1/2}책과 마약의 공통점: 1.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2.절대로 없앨 수 없다. 결국 다 불태워버릴수밖에...분서갱유를 지시하는 진시황제의 속마음
331	{책2/2}누구나 자신이 듣고싶은 말만듣고싶어한다. 같은 원리로 당신이 어떤 책을 선택했다는 건, 그책이 당신이 듣고싶어한 얘기를 할가능성이 매우높다. 책읽는행위가 자기합리화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
332	{음모론1/5} 음모론이란 특정사건이 발생했을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당사자가 그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때 생긴다. 이관점에서 대부분의 정치적사건들은 음모론에서 자유롭지못하다
333	{음모론2/5}음모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오류는 커튼뒤의 악당이 음모를 꾸민다는 환상에서 출발한다. 나는 음모의 주체를 끝없는 이윤을 추구하는 정치,경제,사회시스템으로 본다
334	{음모론3/5}음모의주체로 매도되는 조직에서 일하는사람은 시스템의 부속품이며, 직업인으로써 자신의역할을 충실히할 뿐이다.그가 물러나도 누군가 그자리를 대신하여,시스템은 끊임없이 굴러간다
335	{음모론4/5}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하면 기름값이 오른다. 당신이 언제 폭격할지 알기만하면 하루만에 재산을 두배로 만들수있다. 그럼 폭격시간은 누가정할까?
336	{음모론5/5}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가? 정.치.라는 단어를 경.제.로 치환해보라. 결국 정치집단도 광의의 경제집단이며, 정치행위도 경제행위이기 때문이다. 끝
337	{2010년IT핫이슈결산-글머리} 2010년에 IT분야 핫이슈 탑10을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자체의 화제성보다는 미래에 미칠 영향력위주로 선정했습니다.
338	{2010년IT핫이슈결산} 1.아이패드: 단순신제품을넘어, 새로운 제품군-모바일디바이스-탄생의 미. iOS통합으로 통일된UX, SW와HW최적화로 초저전력소모, 컨텐츠업계의 러브콜로 경쟁사가 당분간 따라오기 어려울듯.
339	{2010년IT핫이슈결산} 2.페이스북: 6억사용자의 페이스북이 사용시간기준 구글을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애플-구글-페북 IT삼국지 전선형성. 새로운 메시징서비스로 통신영역을 공략중.
340	{2010년IT핫이슈결산} 3.트위터: SNS시장에서 빠른속도로 세력키우며, 통신,미디어,방송등의 영역을 파괴시키며 진화하는중. 페이스북의 가장위협적존재이며, IT혼전시대의 캐스팅보트역할.
341	{2010년IT핫이슈결산} 4.스마트폰: 아이폰4의 수성과 안드로이드연합군의 맹추격으로 핸드폰 시장에서 스마트폰비중 급속도증가. 스마트폰 대치눅었던 노키아와 LG몰락. 소비자들 행복한 비명.
342	{2010년IT핫이슈결산} 5. mVoIP: 핸드폰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mVoIP서비스 대중화와 경쟁 본격화됨. 통신시장 질서붕괴, 통신사 수익모델 파괴현상초래.

#	Bozart said
343	{2010년IT핫이슈결산} 6. IT공룡들의 몰락: 노키아, MS등 기존 IT시장지배하던 공룡기업들이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남. 경쟁력없는 제품출시보다 구시대적 기업이미지가 더문제.
344	{2010년IT핫이슈결산} 7. 미래IT질서확립: 미FCC는 올해 IT미래를 결정지을 두개의 혁신적 법안 처리완료: 망중립성과 white space. IT진영 만세, 네트워크/방송진영 밥그릇걱정.
345	{2010년IT핫이슈결산} 8.iOS게임: 7월기준 iOS기기 1억2천만대돌파하며, 포터블게임의 터줏대감 닌텐도와 PSP를 넘어섬. 메이저게임사들 본격적으로 iOS플랫폼에 투자개시.
346	{2010년IT핫이슈결산} 9. 구글에너지: 구글이 에너지판매허가를 받음.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한 구글의 에너지 및 에너지정보 장악전략이 실체를 드러냄.
347	{2010년IT핫이슈결산} 10. 삼성세대교체완료: 한미FTA협상완료에 이은 삼성의 공식적인 세대교체발표. 삼성의 미래먹거리 헬스와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름. 한국 경제사회구조개편의 신호탄.
348	{2011년주목할트렌드} 0. 글머리: 2011년 IT분야의 주목할 트렌드를 10개글에 걸쳐전망해봅니다. 분야별 전망과 관전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즐겁하세요.
349	{2011년주목할트렌드} 1.태블릿: 당분간 아이패드의 독주예상. 하반기부터 크롬OS기반 태블릿군단의 추격전시작. 기존PC시장축소가 가속화될 슬픈운명. 관전포인트:크롬군단의 아이패드추격전.
350	{2011년주목할트렌드} 2.신미디어: 태블릿 시장확대로 이북시장 안착과 이저널시대개막됨. 멀티미디어,통신,SNS 결합한 혁신적인 미디어출현. 교육시장/교육환경 급변. 관전포인트: 신개념컨텐츠.
351	{2011년주목할트렌드} 3.스트리밍: 클라우드 대중화로 광고기반 컨텐츠스트리밍서비스 확대. 아직 미미한 가정내 스트리밍이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설것. 관전포인트: AppleTV등의 홈네트워크신제품.
352	{2011년주목할트렌드} 4.mVoIP: 미FCC의 망중립성확정으로 통신사가 mVoIP막을방법 없어짐.VoIP서비스간 전면전개시. 전통적 전화서비스는 급속히 사라질운명. 관전포인트: 스카이프와 유사서비스간의 전투.
353	{2011년주목할트렌드} 5.영상통신: FaceTime로 촉발된 영상통화서비스가 본격화될 것. 네트워크가 갑작스러운 부하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관전포인트: 영상통신에 따른 당신의 생활패턴변화.
354	{2011년주목할트렌드} 6.통신업계지각변동: 망중립성정책으로 통신업자들은 회선사용료만 징수할수밖에 없으며, 엄청난 데이터수요를 감당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된다. 관전포인트:통신사들의 새먹거리는?
355	{2011년주목할트렌드} 7.트위터:누구도 막을수없는 확장세. IT삼국지를 승리로 이끌 캐스팅보트. 구글이 폐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관전포인트:트윗의미래.독자생존?구글인수?애플의 재뿌리기?
356	{2011년주목할트렌드} 8.반도체: 모바일왕자 ARM기반 AP플랫폼삼국지. 쉐컴-삼성전선에 태블릿에 올린 NVIDIA합류. 인텔영향력감소. 안녕,그래픽프로세서. 관전포인트:크롬태블릿+티그라의운명은?
357	{2011년주목할트렌드} 9.게임: iOS기기 확대에 따른 게임소프트 산업구조재편 가속화. 블록버스터급 하드코어게임타이틀의 iOS포팅. 관전포인트: NDS와 PSP의 반격무기는?
358	{2011년주목할트렌드} 10.핸드폰: 모바일기기 H/W의 마지막숙제는 줄과의 전쟁이다. 과연 올해 무선싱크, 무선과워전송이 얼마나 상용화에 가까워질것인가? 관전포인트: 60GHz 초고속무선전송.

# Bozart said

359	{2011년 주목할트렌드} 총평: IT삼국지 (서치의 구글-모바일의 애플-소셜네트워크의 페이스북)의 전면전과 이에 따른 산업계합종연횡 및 구조조정 본격화. 관전포인트: 페이스북과 구글의 육박전과 트윗인수전.
360	{젊음에대해1/5} 새로운 스파이더맨감독에 마크웹 선정.마크웹?500Days of Summer란 독립영화 딱~한편만든 풋내기감독. 할리우드에선 젊은에너지와 재능이 비싸값에팔린다. 할인없지만 비싼만큼 가치있다
361	{젊음에대해2/5} 나는 젊음의기준을 완성 대 미완성으로 나눈다. 젊음은 나이와 관계없는 상대적개념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 (돈,지식,명예)가 성취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당신의 젊은날이 끝나는날이다
362	{젊음에대해3/5} 젊음은 '완성되지않음'의 다른표현이다. 젊음을 유지하고싶다면,당신이 인생에서 추구하는것(돈,명예,지식...)을 끊임없이 비워야한다.이왕 버릴거면 남을 주는게좋다.보너스로 사람을 얻을수있으니
363	{젊음에대해4/5}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젊은이에게 면박주는것이 당연히 인식되는 사회는 미래가없다. 당신이 경험이 많다는건 젊었을때 좌충우돌할수있었다는 증거다. 그들도 그럴 권리가 있다.
364	{젊음에대해5/5} 장작을 태우면 밥짓고,국끓이고,방도데울수있다.우리사회는 젊음을 태워서 밥만지으라고 강요하고있다. 젊은이들 꿈이없다고 구박하기전에 그들이 꿈을 펼칠수있는 공간은있는지 돌아보라
365	{검색vs소셜1/3} 절대 무너지않을것같던 '검색의 구글'이 사용자점유시간에서 '소셜의 페이스북'에 밀리고있다. 나는 이 결과가 검색과 소셜의 근본적 정보전달 메카니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366	{검색vs소셜2/3} 구글의 밥줄 검색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Information-On-Demand다. 정보전달효율은 높지만,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찾지않는다는게 치명적약점이다
367	{검색vs소셜3/3} 소셜은 사용자가 원하든말든 정보를 쏟아붓는 Information-Un-Demand다. 타임라인으로 들어오는 무차별정보의 선별은 사용자몫이다. 소셜에 오래 머물수밖에없게되는 이유다
368	{오픈vs폐쇄1/7} 버라이즌 안드로이드폰은 서치엔진이 MS의 bing이다. 구글은 선택도 안된다. 오픈이란 마음대로 달을수있다는 것을 의미. 소비자들에게 오픈이란 마케팅용어일뿐이다
369	{오픈vs폐쇄2/7}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생각을 표현한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언어일수록 개인의생각을 제.약.없.이.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개방성이다. OS는 언어다
370	{오픈vs폐쇄3/7} iOS은 폐쇄적이고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이다? 이건 개발자입장일뿐. 사용자입장에선 iOS가 안드로이드보다 더 개방적이다. 사용자가 진정원하는 걸 더 많이, 잘해주니까
371	{오픈vs폐쇄4/7} 지독하게 폐쇄적인 애플이 억지로 개방할때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아이팟혁명은 iTunes윈도즈버전 출시부터 시작되었고, 앱스토어도 개발자압력에 등떠밀려서 시작됐다
372	{오픈vs폐쇄5/7} 개발자에게 오픈이 새가능성을 열어주는건 사실.하지만 전력소모가 목숨보다 중요한 모바일시대에는 신기능보다 최적화가 더중요하다. 최적화를위해 단것을 줄일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될것이다.
373	{오픈vs폐쇄6/7} 오픈이란 샌드박스이며, 특정기술의 저변확대를 불러오는 긍정적효과가있다. 하지만 샌드박스 장난으로 돈을 벌수는 없는 노릇. 전력소모줄이기위해 결국 구글시키는대로 압전히 따라갈수밖에 없다.

#	Bozart said
374	{오픈vs폐쇄7/7} 결론:결국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시장을 먹게되며 그이유는: 1.안드로이드가 아이폰에 맞설수있는 유일한 대안, 2.캐리어-제조사거래라는 특이한 핸드폰판매구조. 오픈전략때문이라는 말은 믿지마라.
375	{бат데리1/2} RIM의 CEO가 아이패드보다 훨씬앞섰다고 자평하던 태블릿 PlayBook출시를 내년 3월이후로 무기연기. 원인은 태도없는 бат데리수명으로 추정. 모바일세계에선 오직 бат데리수명만 중요하다
376	{бат데리2/2} 한국개발자들에게: 아직 실감나지않겠지만, SW든 HW든 모바일시장의 승패는 결국 전력소모에의해 결판나게된다. 독특한기능? 웃기는소리다. 당신이하면 남들도 다할수있다
377	RIM 앞날이 위태로운 이유: 1.박리다매물량공세로 겨우 아이폰과 맞서고있지만, 폰판매외 소득원없음 2.블랙베리성공 원동력인 기업시장을 아이폰이 빠르게 잠식중.아이폰테스트중인 BoA와CITI고객만 50만임
378	트위터가 신문보다 빠르다고 한다.당연하지,기자들이 트윗보고 기사쓰니까.그렇다고 기자들이 게으르다 비난하지마라.트위터의 잠재력을 먼저깨닫을것뿐. 트위터가 나왔을때 열광했던 건 사용자보다 언론이었다
379	{확률사회학1/4} 현대물리학은 입자의 본질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오직 확률로만 정의할수있다는 결론내렸다. 수많은 인간들이 모인 현대사회 역시 확률로 정의할수밖에 없다
380	{확률사회학2/4}트위터에서 끊임없이 붙었다 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모델링할수있는 유일한방법은 확률과 통계론뿐.소셜네트워크에선 고전적인,미시적,결정론적 대인관계모델이 적용되지않는다
381	{확률사회학3/4} 트위터사용자는 수백,수천,수만의 생면부지사람들과 역동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네트워크는 다른사용자네트워크와 교류를한다. 이것이 거시적, 확률론적 인간관계의 실체다
382	{확률사회학4/4} 소셜네트워크는 나이트클럽과 같다. 댄스플로어에 나가면 누구와도 어깨를 맞대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다. 맘에드는 이성과 인연을 만드는건 본인하기나름이다
383	{정보산업혁명1/3} 우리는 산업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한다. 나는 정보산업 역시 1차-정보채취, 2차-정보가공, 3차-정보서비스로 나뉘야 한다고 생각한다
384	{정보산업혁명2/3} 정보1차산업은 서치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단순정보를 제공. 정보2차산업은 단순정보로부터 새로운정보를 창출. 구글이 정보1차산업을 평정했고, 지금 세상은 2차로 넘어가는 단계로 판단됨
385	{정보산업혁명3/3} 정보3차산업은 정보서비스업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원하지않든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답을 제공한다. Wolfram Alpha를 3차산업의 대표적 예다
386	{미래사회1/3} 네트워크의 급속한확대, 모바일기기의 대중화로 대변되는 현재는 100년전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가 처음 달리기시작했을때만큼 격변의시기이며, 그만큼 기회시대이기도하다
387	{미래사회2/3} 도로뚫리고 차가달리게된후 개인삶과 사회에 어떤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 생활패턴, 주거방식,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힌트를 얻을 것이다
388	{미래사회3/3} 온라인에서 삶에 필요한 대부분을 얻게될수록, 온라인으로 얻을수없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진다. 나는 조만간 오프라인 르네상스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389	소셜게임의 셋별 징가의가치가 게임의종가 EA를 능가하는 믿기지않는 일이 벌어졌다. 게임의 인문학적가치가 증가하면서 SNS와 결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적흐름을 반영한다
390	{인터넷과권력1/3} 인터넷 출현전 : 정부, 미디어, 재계가 권력을 사이좋게 나눠가짐. 주요정보는 이들 내에서만 공유됨

#	Bozart said
391	{인터넷과 권력2/3} 인터넷출현후: 기존권력층과의 마찰로 혼돈의 시절을 보낸, 서치와 포털로 대표되는 정보권력이 정부, 미디어, 재계에 이은 4번째 권력으로 추가됨
392	{인터넷과 권력3/3} SNS로 대변되는 휴먼네트웍이 기존 권력층 (정부, 미디어, 재계, 정보권력) 이은 5번째 권력으로 편입될것. 하지만 상당기간 기존권력과 갈등을 겪을것임
393	{가격경제학1/5} 첨단기술로 무장된 IT세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리고 비즈니스접근의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가격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394	{가격경제학2/5} 원가와이윤이라는 전통적인 가격체계는 오래전 용도폐기됐다. 예술,서비스등 무형적상품뿐아니라,첨단기술제품도 마찬가지다. 특정제품군 가격의 시간적변화에 주목하라. 해당산업구조를 알수있으니
395	{가격경제학3/5} 현대의 제품가격은 생산자가 정하는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정한다.구매자는 당신집안 숫가락갯수까지 알고있다.단,절대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회사는 예외다.인텔,퀄컴,MS가 여기에해당
396	{가격경제학4/5} 반도체,통신등 첨단시장에서 원가는 의미없다.한번 투자로 몇개를 파느냐가 중요할뿐이며, 롱테일 가격구조를 보인다. 첫날 백만원에 팔리던 핸드폰이 몇달후 공짜로 풀리는 이유다
397	{가격경제학5/5} 예술품의 가치는 돈을 지불하는 순간결정된다. 만원주면 만원의가치,일억주면 일억의 가치.아직 존재하지않는 미래의 컨텐츠(또는 그 이상) 상품가치가 이런방식으로 결정될것이다. 끝
398	{기술과비즈니스1/5}실리콘벨리 벤처투자자들과 미팅에서 90%는 비즈니스모델에 할애한다. 기술얘기는 10%뿐. 그들이 기술을 무시하는게 아니다. 성공적 비즈니스가 기술개발보다 10배 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것뿐.
399	{기술과비즈니스2/5}경쟁과 전쟁의 차이를 아는가?경쟁은 과정에 의미를 두지만, 전쟁은 오직 결과만 의미있을뿐.이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는 경쟁보다는 전쟁쪽에 가깝다.승자독식성격이 강한 인터넷비즈니스는 더욱 그렇다.
400	{기술과비즈니스3/5}구글,페이스북이 성공한것은 기술력때문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라. 그정도 똑똑한 젊은이와 기술력있는 회사는 널렸다. 그들의 성공비결은 정교한 마켓진입전략과 비즈니스모델이다
401	{기술과비즈니스4/5}실리콘벨리의전설 존도어는 철없는 구글창업자들 남긴채, CEO에 노련한 슈미트를 앉혔다. 폐북의 떠꺼머리 CEO마크도 아직 남아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402	{기술과비즈니스5/5}나는 한국이 살아남기위해 벤처산업이 대기업과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제2벤처시대를 성공하려면 전문화가 시급하다. 기술-경영-마케팅-투자가 균형을 이뤄야한다. 끝
403	{미래에대해1/7}18개월마다 반도체집적도가 두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 그가 점장이가 아니라 그가 만든 로드맵을 인텔직원들이 코피터쳐가며 맞춘거다. 무어는 미래를 예측한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었다.
404	{미래에대해2/7}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역사의 흐름은 유사한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과거를 선명히 기억하는자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점을 명심하라.
405	{미래에대해3/7} 그래프상의 한점만으론 다음점을 예측할수없다. 다음점을 그리려면 반드시 두개의 점이 필요하다. 미래를 예측하기위해서도 두개의 점이 필요하다: 과거 그리고 현재.
406	{미래에대해4/7} 미래를 알고싶다면 과거사건발생 전과후를 비교하고, 그패턴을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적용하라. 예) 핸드폰 쓰기전후 변화를 이해하면, 새로운 모바일기기출현후의 상황을 예측할수있다.

# Bozart said

407	{미래에대해5/7}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와 차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를 열심히사는 수 밖에.
408	{미래에대해6/7} 야광물질은 빛을내기위해 아주 미약한 빛이라도 필요하다. 미래가 어렴풋이 보이는순간, 당신만의 꿈과희망이 생긴다. 미래를 아는것은 꿈꾸기위한 한줄기빛이다.
409	{미래에대해7/7}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them" ~ 이더넷과 OOP의 창시자이며 스티브잡스의 멘토인 Alan Kay
410	{꿈에대해1/5} 젊은이들에게 꿈을말하라면 직업을 말한다. 꿈은없고 목표만있다. 우리사회의 더 큰 문제는 꿈꾸는법을 가르쳐주지도, 꿈을꾸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411	{꿈에대해2/5} 꿈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 목표는'무엇이 되느냐', 꿈은 '무엇을 하느냐'의 차이 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는 달성하고나면 끝이지만, 꿈은 끝이없는 여정이다.
412	꿈에대해3/5}'의사가 되고싶다'는 목표다. 의사가 된 순간, 허탈함과함께 앞으로 무엇이 되야할지 새로운방향이 시작된다. 반면 '사람고치고 싶다'는 것은 꿈이다. 꿈은 끝이 없으며, 인생의 나침반역할을 한다.
413	{꿈에대해4/5} 영어-dream, 한국어-꿈 모두 두가지의미를 갖는다. 잠잘때 꾸는 꿈과 희망. 두 의미의 공통점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적당히 비현실적인 꿈은 삶을 풍요롭게하는 윤향류다.
414	{꿈에대해5/5} 꿈이란 나귀앞에 달아놓은 당근처럼 당신을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꿈은 적당히 황당한게 좋지만, 거창할필요는 없다. 때로 소박한꿈을 위해 거대한 인생목표가 필요할수있다. 끝.
415	This is how to live rest of your life: "Don't let tomorrow's sun be another today's sun." Welcome to new world of 2011.
416	{도둑론1/3} 마땅히 막을수있고 막아야하는위치에 있으면서 막지않고있다가, 막상 일이 벌어진후 막았어야했다고 뒷북치는 이들은 처음부터 막을생각이없었던거다.막지않은 대가를 흥정했거나, 막지않은후 정치적이득을 노렸겠지.
417	{도둑론2/3}막지않으면 세상이망한다고 외치며 함께막자는 이들중 상당수는 못막았을경우에 대한 플랜B를 갖고있지않다.이들의 목적은 막는게아니라, 막는과정에서 순진한당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도적같은놈들이다
418	{도적론3/3} 세상에는 두종류의 도둑놈이있다.당당히 도둑놈이라고 밝히고 도둑질하는놈, 도둑이아닌척 몰래 도둑질하는놈. 도둑맞는사람에겐 둘다 도둑놈일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몰래도둑질하는놈이 더알뎁다.속이기까지하니까
419	{폐북게임1/7} 광고효율과수익에서 앞선 마이스페이스가 폐북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소셜이라는 새로운전장의 특수성을 말해준다.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서 이긴 폐북은 지금 생존을위한 자신과의 전쟁을 하고있다.
420	{폐북게임2/7}폐북이 골드만삭스에게 5억불투자받음.폐북가치가 작년9월 30조,11월 40조, 1월 50조로 선형적증가.이번라운드에 폐북투자목표는1조5천억. '돈먹는하마'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창출
421	{폐북게임3/7}폐북의 2010년 광고매출 1조2천억, 가치는55조. 매출:가치=1:50. 폐북광고효율이 신통치않다는게 더문제. 세상사람들을 다연결하면 뭐가나오겠지...5억불투기한 골드만삭스 심정
422	{폐북게임4/7}폐북의 신종비즈니스 '문지마투자유치'는 IPO현금화에 관심없는 nerd CEO 마크의 의지때문. 폐북발 소셜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이높다는게 문제. EA를 넘어선 정가가 초기 징후다.

#	Bozart said
423	{폐북게임5/7}IPO상장압력 뿌리치고 묻지마투자받은 폐북CEO마크는 전혀새로운 소셜기반 수익모델개발이라는 시한폭탄을 선물받음.성공못하면 바로퇴출.흠...24%지분 무력화하려면 스캔들이 좋겠군.마약?여자?
424	{폐북게임6/7}결국 소셜발거품을 연착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timeline을 어떻게 소비자거부 감없이 광고로 연결시키는가에 달려있는데...얼마전 구글의 7조원 인수제안 뿌리친 Groupon이 불현듯떠오른다.
425	{폐북게임7/7} 나는 극한까지 발달한 소셜네트워크의 상업적가치를 극대화하기위해 결국 오프라인과 결합할것으로 예상한다. 폐북과 지역기반 판매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열쇠는 바로"LBS"다.끝
426	버라이즌아이폰의 기대감으로 애플의가치가 \$300B돌파. 이제 지구상에서 애플보다 큰회사는 석유재벌 ExxonMobile뿐. 모바일(애플)이 모바일(석유)을 잡아먹는 역사적순간이 가까워진다
427	올해 CES의 최대의이슈: 타블렛홍수. 저마다 아이패드 킬러를 외치지만, 일곱난장이중 제일 잘나봤자 백설공주와 비교될수는 없는법. 최소 2년 아이패드 독주 예상
428	{2011CES1/7}모토롤라가 안드로이드3.0기반 타블렛 전격발표로 깰탭등 2.2기반경쟁자들 초장에 물먹임.하지만 웃는건 여기까지.아이패드를 위협할만큼 수량을 모토롤라가 적시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429	{2011CES2/7}삼성의 플래그쉽 타블렛의 장점은 핸드폰과 같은 슬라이딩 키보드. 내구성의 문제는 해결한걸까? 윈도7에 인텔ATOM프로세서 채택한 제품을 굳이CES의 전면에 내세우는건 좀....
430	{2011CES3/7}소니는 3D에 목숨걸었군. 영화, TV, 캠코더, 카메라, 게임까지 다 3D네. 작년에 3D TV 왜 망했는지 생각하면 이건 미친짓이다. 안경쓰는 3D는 절.대.성공못한다.
431	{2011CES4/7}MS발머가 ARM용 윈도우개발공언.30년함께산 부인버리고 판여자와 살겠다? 인텔은 할말없다.내가 아키텍처면에서 근본적으로 ARM의 전력소모를 따라갈수없다고 말한것 기억할것이다.
432	{2011CES5/7} 싸구려 TV만들던 Visio가 타블렛과 스마트폰발표. 이젠 타블렛, 스마트폰을 개나소나 다 만들수있다는것 확실히증명. 타블렛시장은 뚜껑열기도 전에 레드오션으로 직행.
433	{2011CES6/7}NVIDIA가 ARM과 손잡고 CPU코어 전략발표. 고객이원하는 CPU구현 쉽게 CPU 플랫폼계층의 에코시스템형성.타겟은 모바일,슈퍼컴등.흠...이번 CES에서 그나마 제일 쓸만한 정보네.
434	{2011CES7/7}감상: 이번 CES의 최대화두는 단연 타블렛이고, 타블렛 최대의 화제는 '아이패드 2 꺾데기 유출'이었다. 이제 CES는 곧있을 잡스 키노트보기전 봐야하는 광고로 전략한느낌
435	컴퓨터폴더에있는 수많은 알수없는, 알필요 없는 화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런화일을 봐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적없는가? 맥-앱스토어가 개장되었다. 사용자중심의 컴퓨터환경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436	집채만한 파도가 닥치면 당신은 어떤생각을 하는가? 상당수는 '파도를 막아야겠다'는 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국민의 99%는 '파도타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37	위치정보 활용한 '오빠민지'등 '악마의앱'개발자들이 사생활침해로 경찰에 줄줄히입건. 나는 한국의 비전을 보았다. 그래..스위스비밀 금고,케이먼제도가 우리의 살길이다.IT는버리고 금융으로 가는거다
438	퀄컴이 WiFi용 RF-Chip회사인 Atheros를 3조5천억에 샀다. 스마트폰에 WiFi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WiFi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므로, 자사 통신칩에 WiFi기능을 집어넣겠다는 전략

#	Bozart said
439	앤드رويد기반의 모바일플랫폼 윤곽이 드러나고있다. 스마트폰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태블릿은 NVIDIA의 티그라2 구도. 삼성은 지금 뒤쳐지면 따라잡기힘들다.Fab위탁생산으로 먹고살겠다는건아니겠지?
440	{오프라인르네상스1/4} 온라인과 소셜네트웍의 극단적발달은 역으로 온라인으로 얻을수없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급격히 상승시킬것이다.내가 꿈은 온라인으로 얻을수없는것 세가지: 공연, 음식, 성.
441	{오프라인르네상스2/4}'김제동 토크콘서트'는 오프라인공연의 가치가 온라인/방송을 능가하는 새로운흐름을 보여준다. 이북이 활성화되면 책판매보다 '저자와의만남'에 대한 경제적가치가 훨씬 커질것이다.
442	{오프라인르네상스3/4} 음식은 유일하게 오프라인으로만 소비가능한 콘텐츠이다. 나는 무한도전의 비빔밥광고로 대표되는 한식의 세계화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추진방법에대한 논란을 빼고.
443	{오프라인르네상스4/4}미국판 벼룩시장인 Craigslist에서 성매매여성을 골라 살해한 사건으로 불거진 온라인성매매는 가장 발달된 온라인-지역기반 오프라인 결합모델로서 당분간 경쟁자가 없을것같다.
444	{꿈의공장1/6}실리콘벨리는 꿈의공장 할리우드의 하이테크버전이다.꿈의 실현위한 사람-돈-아이디어 삼박자가 다있다.마크는 폐복실현위해 보수적인 동부를 떠나 이곳으로 옮길수밖에 없었다.
445	{꿈의공장2/6}실리콘벨리있는 샌프란시스코가 히피의 본고장인건 우연이아니다.히피운동 끝자락에 벤처문화가 싹텄다. 잡스도 히피였다.그는 젊었을때 취직한회사를 썰지도않고 맨발로 다녔고, 인도를 거지처럼 방황했다.
446	{꿈의공장3/6}자유로운사고, 억압과현상유지에대한 반발이 세상을 이끄는 실리콘벨리의 힘이다.미국내 타지역에서 실리콘벨리만한다고 투자했지만 아무도 성공못했다. 그뿌리에있는 히피정신은 살수없으니까.
447	{꿈의공장4/6}한국은 지금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균형이깨져있다.불법이든 편법이든 삼성이 워낙잘해서 사회에 왜곡이생겼지만, 바로 잡기어렵다.불가능에 가깝지만, 벤처환경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게 유일한 희망이다.
448	{꿈의공장5/6}고착화된 대기업중심 경제구조는 우리사회를 급속히 노화시키고있다. 젊은이는 꿈을,경제는 유연성을,사회는 미래를 잃었다.홍대학생회의 상황대처는 젊은이의 꿈이죽어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보여준다.
449	{꿈의공장6/6}한국벤처1세대는 386에 운동권출신들이 많다.젊은날 자신이속한 사회에 의문을 품고 고민하는건 돈으로 살수없는 값진 경험이다.지금 세대는 취직준비하느라 이런 경험할시간이없다. 같길이멀다.끝.
450	{아듀CES1/2} 언론에서 삼성,LG가 CES 점령했고 한국이 IT리더됐다 호들갑떨지만 난 이말이 생각난다, '이산이 아닌가벼...' 게다가 최고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모토롤라 줌과 아트릭스선정 되었으니.
451	{아듀CES2/2} 이번CES는 애플이 던지는 화두(스마트폰,타블릿,홈네트워크)에대한 IT업계의 숙제검사장 분위기다. '자,밀린숙제 제출했으니, 허가분한마음으로 다같이 새로운 숙제나 지켜보자구.'
452	{컨텐츠플랫폼1/8}컨텐츠의 수와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래에는 컨텐츠보다 컨텐츠를 무한확대재생산할수있는 '컨텐츠전송플랫폼'에 눈을 돌려야한다. 인간의본성에대한 이해가 성공의 열쇠다.

#	Bozart said
453	{컨텐츠플랫폼2/8}스타워즈: "난 지금도 거울볼때마다 2볼씩내야한다"-레이어공주로 나왔던 캐리피셔.스타워즈제국(영화-영화제작-게임-장난감-출판)은 아직도 영향력확대중. 왜:어릴적 SF판타지는 평생을 지배.
454	{컨텐츠플랫폼3/8}신세기에반갤리온: 이 마약같은 컬트만화는 기획단계부터 중년의남자들을 사로잡도록 정교하게 기획되었다. 왜:신지=나, 레이=엄마. 레이의 교복이 얼마에 팔리는지 아는가?
455	{컨텐츠플랫폼4/8}무한도전:처음 무(모)한도전을봤을때 만세불렀다.일본에서 즐겨보던 프로가 한국에 수입됐으니. 무도까는게 아니다.캐릭터중심 각본없는 리얼리티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왜:예측불가능성
456	{컨텐츠플랫폼5/8}아메리칸아이들: 지난10년간 미국상반기 방송가 초토화시키며 아이들슈프트초래. 슈스케 아류라던 위대한탄생도 탄력받음. 왜: 인간승리,인생역전은 영원한 방송계의 캐쉬카우.
457	{컨텐츠플랫폼6/8}뱀파이어: 드라쿨라로 대표되는 구닥다리뱀파이어가 트왈라잇으로 틴에이지를 사로잡으며 새로운도약중. 왜: 잠재적공포는 인간정신세계를 지배하며, 이의 해소에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458	{컨텐츠플랫폼7/8}GLEE:여기나온 노래는 어김없이 다음날 아이튠1위등극. GLEEFication이란 신조어생김.왕년슈퍼스타들 나오려고 아우성. 왜: 부모세대 노래, 애들세대 고민.드림하이가가 공식 증명할까.
459	{컨텐츠플랫폼8/8} 결론: 형체없는 상품다루는 미디어-컨텐츠시장에 새로운건 없다.솔직히 조금씩은 다베긴다. 핵심은 인간의본성을 자극하는 주제위에, 영속적으로 컨텐츠를 실어나를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것.
460	삼성에 사기당한 옴니아고객에게 보상고려. 삼성 착해진거 아니다. 옴니아7출시전 길땀는것일뿐. 한마디: 소비자가 원하는건 그저 쓰기편한 폰이다. 윈도,iOS,안드로이드 이딴 단어를 소비자가 왜 알아야하냐고
461	미언론이 최근 발생한 애리조나총격사건의 간접적원인으로 사라페일린을 엮기시작했다. 리얼리티프로그램의 최고고수는 역시 언론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다.
462	버라이즌CDMA아이폰와함께 깜짝선물. 아이폰을 WiFi핫스팟으로 사용하는 MIFI지원발표. 별도기기없이 아이폰하나로 다섯대 PC에 WiFi지원. 경제논리로 기술억압하던 캐리어들 무한 경쟁가속
463	트위터 신참CEO 드디어 회사 장기비전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모든것을 시공제한없이 제공하는것'으로 정의. 이는 트위터가 소셜네트워크에서 정보네트워크로 진화를 의미한다.
464	애플-아도비간 플래시전쟁 끝나기도전에 비디오코덱 전쟁점화. 구글이 크롬브라우저에 현업계표준 H.264지원거부하고 자사의 WebM을 밀겠다고 발표.핑계는 로얄티지만 본심은 HTML5 주도권 장악
465	스마트폰(또는 타블릿) 홍수시대의 대처법: '스마트폰'을 '유리창'으로 치환하라. 문제: 최고의 유리창은? 1)얇은것 2)예쁜것 3)비싼유리끼운것 4)창밖풍경이 뛰어난것. 답: 4)
466	여론의 지탄을받던 모인사가 사퇴했다. 자, 당신이 원하는데로 그가 물러났다. 통쾌한기분이외에 당신이 얻은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우리가 한눈판사이에 넘어간것은 없었을까?
467	AMD의 CEO짤렸다.이유는 스마트폰/타블렛대처미흡. AMD는 정확히 NVIDIA가 지금 가는길을 갔어야했다.진작 ATI를 사놓고 뭐한걸까.아마도 인텔과 같은 아키텍처딜레마에 빠져있었겠지.

#	Bozart said
468	버라이즌CEO의 아이폰성사 뒷얘기공개: 애플캠페스에 셀타워세우고, 9개월의 공동개발/테스트완료뒤 비즈니스딜은 하루만에 끝남. 올해 버라이즌 스마트폰판매 50%(13백만대) 아이폰으로 예상
469	MS의 16조짜리 서버부분책임자가 잘렸다. 클라우드분야의 부진이 이유인듯. 하지만 이미 늦었다. 클라우드삼국지의 진용은 이미 갖추어져있다.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470	{카이스트1/9}서론: '로봇천재'카이스트학생이 자살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의꿈을 이루기위해 선택할수있는길은 한가지뿐: 명문대 진학.다른 선택은 없다.그리고 적응에 실패한뒤 선택할 다른길은 없다.
471	{카이스트2/9}로봇천재학생자살로 카이스트내부갈등이 다시 표면화되었다.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카이스트를 내가 주목하는이유는 한국대학교육의 미래를가름하기때문.나는 현사태를 철저한 미국대학시스템관점에 해석한다.
472	{카이스트3/9}로플린영입부터시작되 서남표총장으로 이어진 카이스트개혁과 이에대한 내부 불만은 대학총장이란 직업을 '학자'로 보는데서 출발한다.미대학총장은 '학자'탈을쓴 정치인 +사장+펀드레이서이다.줄이면 장.사.꾼.
473	{카이스트4/9}카이스트에 의대만들자고 주장하다 쫓겨난 로플린은 스탠포드출신. MIT출신 서총장은 한국내 인맥과 한국어 구사하는 강점으로 버텼지만, 그역시 철저한 미대학시스템으로 무장하고있다.
474	{카이스트5/9}두총장 모두 사립대출신이란점이 갈등의골을 더깊게만들었다.주립대출신을 뽑았다면 반발이 덜했을텐데. 공립에선 총장이 장사꾼보단 정치인에 좀더가깝고, 학생교육도 중요한평가항목중하나니까.
475	{카이스트6/9}그동안 벌인 말많은 초대형프로젝트들: ICU통합, 전기자동차등의 목적은 단한가지. 돈이다. 연구? 팍팍밀어줘야지. 그래야 돈이들어오니까. 카이스트에 미식축구부없는게 다행인줄알라.
476	{카이스트7/9}최근 서총장이 뉴욕시에 카이스트분교를 세우겠다 발표하며 정부지원요청.그는 매우 성공적 비즈니스맨이다.교육의 상업화 정립되지않은 한국에선 땅짚고헤엄치기. 결국 타 대학도 이길을 따라갈것.
477	{카이스트8/9}결론: 현상황은 농협사장으로 월가출신 펀드매니저를 스카우트한거다. 과연 월가출신 펀드매니저가 농협을 성공적으로 바꿀수있을까?농협직원들의 반발은?임기가 끝나면? 답은 각자생각해보라.
478	{카이스트9/9}사족:나는 한국대학의 영어강의를 이해할수없다. 실력이 아닌 영어로 교육/평가 받는것은 2등민족으로 편입을 의미한다. 서총장도 미국에 있으면, 이게 부질없는짓이란걸 잘 알텐데...
479	새롭게 공개된 iOS4.3베타에 홈버튼 대체하는 멀티핑거 제스처 기능추가. 보지않고 누를수있는 진짜버튼을 대체할지는 미지수. 그래도 충분히 혁신적이다. 즐감-> <a href="http://bit.ly/dZ7xOz">http://bit.ly/dZ7xOz</a> "
480	카트너추정 대수기준 미국PC시장 4Q2010실적(전해기준): 전체시장 -6.66%.애플23.7%증가. 점유율9.7%로 전해보다2%상승. 아이패드 PC에포함하면 점유율20%로 델제치고 HP이어 2위
481	{LBS1/7}서론:위치기반서비스 LBS.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GPS위치정보 이용한 다양한서비스가 시도되고있다.하지만 LBS가 중요한 진짜이유는 소셜과결합하면 메가톤급파괴력을 갖게되기때문이다.
482	{LBS2/7}아이러니칼하게 나는 극한의 온라인서비스인 SNS전쟁의 최후의전장은 오프라인이 될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던 토네이도가 땅으로 터치다운하는 장면을 연상케한다.

#	Bozart said
483	{LBS3/7} 온라인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이 지역기반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순간, 공허한숫자에 불과하던 온라인서비스 가치가 현찰로 전환된다. 그루폰이 구글의 7조원 인수제안 거부한이유다.
484	{LBS4/7} LBS기반 비즈니스확산의 가장 큰장애물이었던 개인위치정보공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사라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NS를 먹으며 무럭무럭 크고있는 포스퀘어다.
485	{LBS5/7} 소셜네트워크이 세상을 지배하게된 배경에는 사생활 공개에대한 대중의 혁명적 인식 전환이 선행되었음에 주목하라. LBS와 위치정보도 유사한 경로를 걷고있으며,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있다.
486	{LBS6/7} 결론: 온라인->소셜->LBS->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순환의역사에서 인간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것인지 예측해보라. 당신이 가야할길이 보일것이다.
487	{LBS7/7}사족: 게임심의법안 낮잠에이은 LBS관련 앱개발자 입건으로 명백해진사실은 누군가 한국의 풀뿌리 소프트웨어산업을 죽이고있다는것. 내가 아직도 알수없는것은 누가,왜 죽이려하는가이다. 끝.
488	{시스템한국1/8}서론:정치/사회/경제는 동적시스템이다. 효율적시스템은 외부리소스가 고르게 배분되며, 각부분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 시스템관점에서 과연 우리사회는 어떤모습일까?
489	{시스템한국2/8}시스템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균형이깨져있다는데있다.리소스가 대기업에 몰리는현실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될수밖에 없으며, 경제는 탄력을 잃는다.
490	{시스템한국3/8}예측불가능성은 경제의유희유다.돈,인력,법을 대기업이 쥐고있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판생각할여력없고,젊은이들은 창업의지꺼고 취업준비에 몰두.최근10년간 한국에서 예측불가능의 예가있었던가.
491	{시스템한국4/8}무협영화에서 고수는 급소만을 공략하여 상대를제압한다.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괴물된 한국경제를 제압하는 급소는 공.정.거.래. 보장이다.말은쉽지만 한국의현실에 선불가능에가깝다.
492	{시스템한국5/8}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정위를 전경련이 이기회에 아예 없애자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는 사실은 공정거래의 확립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93	{시스템한국6/8}시장경제에 공정위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형님나라 미국공정위 ITC는 벨을 8개 베이벨로 강제분할했고,MS 분할시도했고,대기업불법정보유용막기위해 해커를 수석엔지니어로 고용했다.
494	{시스템한국7/8}한국이 현재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진짜이유: 이런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의 지속이 자신들의 영속적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때문.주어생략.
495	{시스템한국8/8}사족:최근 복지예산삭감은 일회성이아니다.경제불균형의 심화는 우리사회가 가고있는 방향이다.배고프게될것을 걱정하는건 아직 배가부르단소리. 곧 정말 배고파지면,쌀밥한공기에도 행복을 느낄것이다.
496	{CDMA아이폰1/3}버라이존CDMA아이폰출시 최대수혜자는 퀄컴이다. CDMA/GSM 동시 지원하는칩을 공급할수있는회사는 퀄컴뿐이니까. 3GPP와 경쟁에밀려 포기한 CDMA가 효자가 될줄이야.
497	{CDMA아이폰2/3}이번 CDMA아이폰출시는 통신용 반도체업계의 무게중심을 변화시킬것이다. 퀄컴이 얼마전 WiFi용칩회사 Atheros를 인수것까지 생각하면 경쟁사인 브로드컴과 인피니온은 골치가아프다.

#	Bozart said
498	{CDMA아이폰3/3}CDMA아이폰의 기술적이슈는 발열에의한 신뢰성저하이다. CDMA용 전력 증폭기는 효율이낮아 전력소모가많고, 열을 많이발생시키며, 발열은 다시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499	간만에 애플스토어에갔다.맥북에 손댄지 5분만에 할게 없어졌다.자리 옮겨 아이패드를 만지기 시작한뒤 1시간이 훌쩍지나갔다.인간은 참으로간사한동물이다.아이패드는 이미 맥보다 많이 팔리고있다.올해는 두배 더팔릴것이다.세상이 뒤집어지고있다.
500	내글을 읽는분들께: 모름지기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현상의 이해다. 나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여러분께 보여주고있는것이다.내글에서 답을찾으려하지마라. 해답은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있으니까...
	Published 2011. 1. 23
501	아이폰 핸드폰시장 10Q4실적: 아이폰 판매대수4%, 매출기준 20%, 이익기준 50%점유(1년전 32%). 한편..안드로이드가 심비안 제치고 No.1 스마트폰플랫폼 등극. 상.금.없.음.
502	인텔신형프로세서 결합으로 리콜사태발생. 7억불의 금전적손실은 문제가 아니다. ARM기반프로세서 약진에 휘청되는 인텔플랫폼에대한 시장의 부정적시각이 더문제. 탈PC시대 앞당기는 촉매
503	인텔이 8조원에 보안S/W회사 맥아피산다. 백신을 칩에 직접구현하겠다는계획. 강력한치료제 도입이전에 공공위생에 먼저 신경써야하는법. 안드로이드로 시장지배 노리는 구글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것
504	삼성임원의 갤럭시판매량고백,'상점에 2백만개뿌렸으나,일부팔림!' 그나마 팔린 갤럭시 리턴율은 무려16%(버라이즌기준). 한국언론 제목 '갤럭시판매호조...
505	{앱vs앱1/6}안드로이드앱스토어가 애플앱스토어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할수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다.변수가 많기때문이다. 나는 앱스토어자체가 아닌 애플/구글비즈니스 모델관점에서 바라본다.
506	{앱vs앱2/6}애플앱은 음악-영상-책과 더불어 아이튠비즈니스핵심이다. 반면 광고가 주소득원인 구글입장에선 앱비중은 현저히 낮다. 오픈이란 신경을 덜쓰겠다 얘기다. 개발자들은 느낄것이다.
507	{앱vs앱3/6}애플앱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선택하는데 지대한영향을 끼친다.안드로이드앱은 안~폰구색맞추기일뿐이다. 안~폰의 판매구조는 기존 핸드폰판매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기때문에, 핸드폰메이커가 신경쓸이유가없다.
508	{앱vs앱4/6}HW,SW,디스플레이사양이 제각각인 안~폰은 기술적한계를 지니고 있기때문에 부가가치높은 고성능 안~앱(특히 하드코어게임) 진입이 어렵다.애플앱이면 자동으로 안~앱되는 공식은 성립하지않다.
509	{앱vs앱5/6}기술과마켓적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앱스토어는 정착할것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안~폰이 마켓을 장악할것이기때문. 안~앱시장을 버릴수는 없지만, 애플앱진입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얘기.
510	{앱vs앱6/6}여러면에서 안~앱스토어는 애플과 다르다. 나는 안~앱이 앱자체보다 광고매체,외부클라우드서비스연결등 경량앱중심으로 안착할것으로 예상한다.이와별도로 보안솔루션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봄.
511	식품메이저 캠벨의 스포츠 iAD 광고효과가 TV광고의 두배라고 닐슨이 발표. 나는 iAD광고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캠벨란 낡은이미지회사가 아이폰에 광고를 올렸다는 사실자체가 브랜드이미지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512	{ARM1/3}ARM의 2010년Q4실적: 18억개 ARM프로세서 판매로부터 얻어진 매출 2천억, 30% 성장율. 소박한실적에 현혹되지말라. 스마트폰에 쓰이는 Cortex계열 비중은 아직 13%. 이제 시작이다.

# Bozart said

513	{ARM2/3}ARM의 핵심역량은 최적화,확장성,저전력이다. ARM은 모바일넘어, 전력소모가 최대이슈인 클라우드서버로 진입하고있다.MS는 차세대윈도에 ARM지원하겠다 공언.한편, 인텔은 맥아피쌌다.
514	{ARM3/3}흥미롭게도 ARM 비즈니스방식은 ARM코어를 중심으로 사용자들 자신의 용도에맞는 IP블럭들을 결합하는 ARM아키텍처와 매우 흡사하다. 효율-유연성-확장성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두 핵심 키워드이다.
515	아이폰4둘러싼 ATT-버라이즌 이전투구 불만하다. 통화품질로 수세에 몰리던 ATT가 버라이즌 CDMA에선 통화중 데이터통신 안된다는 약점 공략하며 카운터펀치.소비자는 싸움구경하고 떡도먹고.
516	{포스트잡스1/7}잡스가 병을 이유로 다시 일선에서 물러나며 COO팀쿡이 애플을 맡게되었다. 잡스가 돌아오든말든, 이제 애플의미래에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많은 이들이 팀쿡에 주목하고있다.
517	{포스트잡스2/7}잡스가 떠나면, 애플이사회는 새로운CEO를 찾을가능성이있는데, 그기간은 1년이상 걸리것이다. 하지만, 나는 팀쿡이 정식으로 "애플CEO+잡스의 후계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518	{포스트잡스3/7}혹자는 임시경영을 맡는 COO팀쿡이 잡스만한 카리스마가없다고 폄하하지만, 그가 잡스를이을 최적의후계자다. 그가 COO에 오른 2005년, 아이폰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이아니다.
519	{포스트잡스4/7}애플역사에서 펍시의 스킨리, NSC의 아멜리오등 어떤 외부인사도 애플을 컨트롤할수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애플은 오직 잡스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잘훈련된 사냥견과같다.
520	{포스트잡스5/7}잡스는 기존질서파괴(좋은말로 혁신)에 광적인 집착을보였으며, 그과정에서 애플은 지금보다 훨씬 돈많이 벌 기회를 놓쳤다.덕분에 지금의 애플이 되었지만, 잡스이후 이런 불장난을 해선안된다.
521	{포스트잡스6/7}애플은 최고인기제품 모바일삼총사를 (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 정확히 1년마다 갈아엎는다.찍어내는데로 팔리는 제품을 단종하는것은 비즈니스관점에서 미친짓이다. 잡스니까 가능한 얘기다.
522	{포스트잡스7/7}만약 내예상(희망)대로 팀쿡이 애플을 맡게되면, 그는 봄에 잡스가 뿌린 씨앗을 가을에 수확하는 역할을 맡는다. 철저한 보수적인경영으로 애플은 더욱 번창할것이다. 혁신의코드는 사라지겠지만...끝
523	{소셜서브리미날1/3}정신없이 쏟아지는 트윗을 이해하는 한가지 시각: 트윗의 타임라인을 흐르는 시냇물로 생각해보라. 우리는 물속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524	{소셜서브리미날2/3}트윗의 약점으로 알려진 '빨리 잊혀지는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늘새롭다'는 장점이된다. 반복이야말로 트윗 비즈니스의 핵심이다.물론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525	{소셜서브리미날3/3}삶을포기한 물고기가 낚시꾼에 잡히기위한 최적의 방법은 낚시꾼 주변에 자꾸 나타나는 것이다. SNS비즈니스에선 반복이 생명이다. 나는 소셜판 서브리미날효과라고 정의한다.
526	{디지탈고독1/3}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자기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있다. 고독하기때문에 빠져드는걸까, 빠져들기때문에 고독해지는걸까. 과연 그들은 고독의 늪에서 벗어났을까?

#	Bozart said
527	{디지털고독2/3}인간은 영원히 고독한존재이며, 고독을 잊기위해 보다 강렬한방법을 끊임없이 찾아헤멘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비즈니스화한다. 현재 가장강력한 고독의 치료제는 소셜네트워크다.
528	{디지털고독3/3}오프라인고독을 잊기위해 소셜네트워크에 빠진 인간은 결국 디지털고독을 맞게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수없지만) 고독의 림보에 빠질 대중을 구원해줄 '킵'이 다음사회를 지배할것이다.
529	{허핑턴포스트1/4} AOL이 허핑턴포스트를 3천5백억에 샀다는 뉴스가 미디어업계를 강타했다. 이것은 타임위너인수 실패로 사양길을 걷던 AOL이 콘텐츠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전포고다.
530	{허핑턴포스트2/4}AOL의 허핑턴포스트인수에대한 미디어반응은 돈많은 홀아비가 동네처녀보쌌던것같다. 허핑턴포스트는 가장 독립적이며,창의적인 미디어로 주가를 올리고 있었으니. 더구나 허핑턴 편집장은 여자다.
531	{허핑턴포스트3/4} 타임위너와 결별한 AOL은 허핑턴을 중심으로 미디어그룹을 완전재편한다. 문제는 AOL이 허핑턴의 편집장 아리아나의 이미지를 이용해 부유한 여성들을 공략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532	{허핑턴포스트4/4}AOL은 아리아나를 모든 콘텐츠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혔다.이것은 나이트공룡이 자신의 머리를 갈라 새로운 브레인을 이식수술을 한것과 같다.나는 미디어업계의 지각변동을 예상한다.
533	{불타는플랫폼-서문1/3}최근 엔가젯이 공개한 노키아CEO 내부분견에는 최고기업CEO에겐 보기힘든 솔직한 고뇌와 인사이트가 있다.같은얘기라도 누가하느냐에따라 받아들이는정도가 다른법,요약정리한다.
534	{불타는플랫폼-서문2/3}요약정리한 노키아CEO 내부분견을 읽기전, 내가5개월전 무너지는 노키아에대해 쓴글을 꼭.꼭. 읽어보기바란다 <추락하는것은 날개가없다> <a href="http://goo.gl/gCBfl">http://goo.gl/gCBfl</a>
535	{불타는플랫폼-서문3/3}"..북해유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눈을떠보니, 유전이 불타고있었다.살아남기위해 평소에는 생각지도않던 극단적선택을 할수밖에없다. 그는 플랫폼에서 바다로 뛰어내렸고, 살았다"
536	{불타는플랫폼-외부의적1/4}"...사방에서 폭팔이 일어나고있다. 특히 애플은 스마트폰을 새롭게 정의했고, 폐쇄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에코시스템으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기존시장을 무너뜨리고있다.
537	537{불타는플랫폼-외부의적2/4}"..애플은 잘만든제품은 소비자들이 돈생각하지않고 산다는사실, 개발자들은 기꺼이 앱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들은 게임의법칙을 바꿨고, 하이엔드를 점령했다"
538	{불타는플랫폼-외부의적3/4}"..고작 2년밖에안된 안드로이드는 고가폰시장으로 들어와 증가폰시장을 점령한후 저가폰으로 쳐들어오고있다. 구글은 개발자,서비스업자,제작자들을 중력처럼 빨아들이고있다"
539	{불타는플랫폼-외부의적4/4}"..미디어텍이 완벽한 저가폰플랫폼을 제공하는바람에 중국제조업자들은 믿을수없는 속도로 저가폰시장을 잠식중이다. 그들이 벌써 1/3을 먹었다는 조사결과까지나왔다"
540	{불타는플랫폼-내부상황1/3}"..첫아이폰이 2007년출시됐지만, 노키아는 아직도 이수준의 UX를 제공하지못하고있다. 안드로이드가 출시된지 2년밖에 안됐지만,이번주 스마트폰시장점유율에서 우리를 눌렀다"
541	{불타는플랫폼-내부상황2/3}"..야심차게 준비한 하이엔드 MeeGo플랫폼은 잘해봐야 2011년하반기에 첫제품나온다. 증가폰용 심비안은 미국을 비롯한 리딩마켓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Bozart said
542	{불타는플랫폼-내부상황3/3} "..저가폰시장에서 중국 OEM업체들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줌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사이, 빠르고 싸게 물건을 만들어팔며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543	{불타는플랫폼-에코시스템1/3} "..과거 디바이스전쟁은 이제 에코시스템전쟁으로 바뀌었다.에코시스템은 단순한 HW+SW가 아니라, 개발자,앱,전자상거래,광고,검색,소셜,위치기반서비스,통합통신망등을 포함한다"
544	{불타는플랫폼-에코시스템2/3} "..경쟁자들은 디바이스판매로 우리를 위협하지않고, 에코시스템으로 전체시장을 뺏어가고있다. 우리자체 에코시스템을 만들지, 그들의 에코시스템에 들어갈지 결정을 강요당하고있다"
545	{불타는플랫폼-에코시스템3/3} "..노키아여, 우리는 불타는 플랫폼에 있다. 우리의 절박한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우리는 lost market, lost mind, lost time." 끝
546	{쇼핑트윗1/3} WSJ이 구글,페북의 트위터인수전 뉴스터뜨렸다.내가말했듯이 트위터는 IT삼국지의 캐스팅보트다.예상가격 12조는 구매자희망사항.애플이 뛰어들면 20조까지 올라갈거다.
547	{쇼핑트윗2/3} 모름지기 인수합병의 동기는 두가지가있다. 1:내가필요해서, 2:경쟁자엎먹일려고. 구글은 내가필요한거고, 페북과 애플(아직 만나왔지만)은 구글죽이거다.
548	{쇼핑트윗3/3}내가 애플이 트윗인수전에 뛰어들것으로 예상하는이유: 1:아이튠과 환상궁합 2:경쟁자제거(구글) 3:결정적으로..싸야할 돈이 너무 많다.
549	HP가 팜인수한 본전뽑기위해 강력한 WebOS드라이브하고있다.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은 OS를 넘어 서비스포함한 에코시스템으로 전장이 확산되었으니까.
550	{공룡시대1/7}서론: 노키아CEO의 '불타는플랫폼' 메모 공개직후 노키아와 MS 전략적제휴 소식이 터졌다. 결국 내부문건 언론공개는 두회사제휴에 불만품은 내부소행이었던 얘기.
551	{공룡시대2/7}그동안 수많은 공룡기업의 개혁/전략적제휴가 있었지만 어떤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거다. 눈앞의 매출때문에 핵심비지니스를 손대지못하기 때문이다.
552	{공룡시대3/7}노키아와 MS로 대표되는 시장주도적 공룡기업의개혁은 무게 40톤의 초식공룡이 티라노사우르스의 위협에 맞서기위해 육식동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만큼 어려운얘기다.
553	{공룡시대4/7}내가 노키아와 MS의 제휴에 회의적인 이유는 그들의 비즈니스모델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들은 빙하기를 맞은 무게 40톤짜리 초식공룡이다.
554	{공룡시대5/7}노키아-MS제휴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초식공룡인 스테고사우르스와 브리케라토프스가 결혼해서 얘기를 낳기를 바라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555	{공룡시대6/7}노키아와 MS의 두 CEO가 깨닫지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 기업과 기술이 주도하던 시장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끌어간다는 사실이다. 두회사에 대한 소비자이미지는 탄광촌에 가깝다.
556	{공룡시대7/7}결국 노키아는 불타는플랫폼에서 바다로 뛰어드는것을 선택했지만, 곧 그곳이 불바다였음을 깨닫게 된다. 다행히도 그곳엔 친구MS가 맞아주었고 인텔도 곧 따라들어올거란 얘기도해주었다.끝.
557	{한계론1/3} 모름지기 진정한 배움이란 당신이 배운 그 새로운 것으로 '무엇을 할수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수없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558	{한계론2/3} 새로운지식을 배우다보면, 새로운세상이 열리고,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할수있을 것같은 느낌이든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첫장을 땀거다.
559	{한계론3/3} Breakthrough란 모두다 벼랑위에 모여 차례로 뛰어내리는것과 같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남길 바라며 뛰어내린다. 누군가 성공할때까지.

## # Bozart said

560	{트윗한계론1/4} 쿠폰과 RT이벤트를 남발하는 수많은 회사 트윗계정들에게 묻고싶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낚이는지, 효과는 있는지...
561	{트윗한계론2/4} 트위터란 모래성이다. 당신이 해변에서 그럴듯한 성을 쌓았지만,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버린다. 트윗에서 인간관계는 모래알같다.
562	{트윗한계론3/4} 트위터란 교차로이다. 교차로는 어딘가로 당신을 연결시켜줄뿐이다. 마찬가지로 트윗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간 및 정보네트워크를 만들어주지만, 그이상을 연결하는 것은 본인몫이다.
563	{트윗한계론4/4} 트위터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은 트위터에서 가능성에 흥분하는것보다 10배 더중요하다. 흥분하지 말고, 무작정 남따라하지 마라. 아직 누구도 성공못했다.
564	내가 전에 말했듯이, 연예인 마약복용기사가 줄줄히 나오고있다. 연예인들의 마약복용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사건과 기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가?
565	{탐욕1/5} "탐욕은 좋은 것이다" -고돈 게코, 월스트리트. 잘 제어된 개인적인 욕망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는 촉매제이다.
566	{탐욕2/5} 탐욕의 부작용때문에 탐욕을 억제하도록 강요하는것은 항생제의 부작용때문에 항생제를 금지하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567	{탐욕3/5} 탐욕이라는 측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동네는 실리콘벨리다. 라스베가스보다 더 지독한 Sin city이다.
568	{탐욕4/5} 역사적으로볼 때 대중들에게 탐욕을 죄악시여기도록 교육한자들이야말로 탐욕의 노예였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569	{탐욕5/5} 사회규범과 윤리를 벗어나지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욕망과 꿈은 동의어다. 나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끝.
570	{퀘바디스삼성1/9} 애플이 삼성에 부품 8조구매했다.좋은소식이다.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성장세다.좋은소식이다. TSMC가 삼성제치고 A5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매우 안좋은 소식이다.
571	{퀘바디스삼성2/9} TSMC가 삼성을 제치고 애플의 차세대 프로세서인 A5를 생산한다는 대만 발소식이 나왔다. 이유는 삼성과 스마트폰부분에서 경쟁자이기때문이라고.
572	{퀘바디스삼성3/9} TSMC루머가 믿을만한이유는 아이패드2용 A4를 이미 생산중이란 정보때문이다. 삼성팹은 IBM계열이라 TSMC로 바로 이전할수없다. 나는 본격적 팹 이전을위한 위밍업으로본다.
573	{퀘바디스삼성4/9} 애플의 삼성팹탈출은 스마트폰시장의 경쟁때문만은 아니다. 애플 A4 만드는 삼성은 허밍버드라는 자체프로세서를 판매중이다. 애플은 자기 IP가 경쟁사에 흘러가는것을 우려한것이다.
574	{퀘바디스삼성5/9} 삼성팹의 큰고객 퀄컴과의 갈등도 주목하라. 삼성 허밍버드는 퀄컴 스냅드래곤과 경쟁중이다. 곧 퀄컴은 삼성팹 탈출을 무기로협박하며 허밍버드 판매중단을 요구할것이다.
575	{퀘바디스삼성6/9} 머릿속에 십자가를 그려보라. 삼성의 수직적 계열화전략은 애플의 수평적 플랫폼 비즈니스와 한곳에서 충돌한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그전선은 계속확대되고있는중.
576	{퀘바디스삼성7/9} 부분별사장이 전권을 갖는 삼성의 bottom-up의사결정구조는 지난10년간 삼성성장의 견인차노릇을 했지만, 향후 발전의 걸림돌이기도하다. 이제 어느정도 정리된것같긴 하지만..

# Bozart said

577	{퀴바디스삼성8/9}결론: 백색가전/PC의 길을 따라가는 모바일디바이스시장에대한 비중을 과감히 낮추고, 그위에 서비스에코시스템을 엮는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삼성=제조업'이라는 삼성마인드.
578	{퀴바디스삼성9/9}사족: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나는 삼성까 아니다.좋으나 싫으나 삼성이 한국과 싱크되었다. 삼성꼭대기에있는분들이 이런 고민할거란걸 알려줄뿐이다. 천기누설이 죄라면 죄. 끝.
579	삼성이 이번 MWC에서 갤럭시10인치를 발표.사지말라고 말려도 끝내 갤럭시7췌던 이들에게: 당신같은 멍청한 소비자때문에 한국이 망해가는줄알아라.똑똑한 소비자가 많아야 회사들이 제대로된 물건만든다.
580	나는 갤럭시10발표한 삼성을 비난하지않는다. 불매운동?필요없다. 삼성이든 LG든 소비자들이 제대로만든 제품을 사기만하면 회사는 제대로된 제품을 만들수밖에없다.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581	삼성: 밑에서 의견제시-위에서 검토. 애플: 위에서 결정-아래로 지시. 삼성은 성장하는 마켓에 유리, 애플은 새로운마켓 개척할때 유리. 누가 옳은지 중요하지않다.지금이 어느때인지가 중요.
582	미국의 국민퀴즈프로 Jeopardy에 출연한 IBM의 컴퓨터 Watson이 둘째날부터 인간챔피언들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이제 시청자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다.
583	구글의 슈미트왈: 노키아가 안드로이드와 MS를 저울질하다 MS를 선택. 안그래도 이문제로 시끄러운 노키아에 기름부음. 이상황 빨리 수습못하면 노키아는 MS와 제대로 협력도하기전에 무너진다.
584	지난 10년간 "타도 노키아!" 외치며 미친듯이 달려온 삼성. 아이폰? 그만거 우린 관심없다던게 엇그제같은데... 지금은? 이산이 아닌가벼..
585	CES에이어 MWC도 애플 유명이 점령. MWC선정 'phone of the year'에 아이폰4선정.최대뉴스는 저가형 아이폰 출시루며. 아참 최고업체상은 HTC가 받았더군.신문에서 못봤을까봐..
586	서울우유가 정부압력으로 우유값인상을 철회했더군.통계수치란 대중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재주가있다.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맞추기위해 미시경제를 끼워맞추는이유다.물론 개인삶과는 관계없다.
587	성폭력이 늘어난걸까,성폭력뉴스가 늘어난걸까. 학교폭력이 늘어난걸까, 학교폭력뉴스가 늘어난걸까. 살인이 늘어난걸까, 살인뉴스가 늘어난걸까. 세상이 험해진걸까, 세상이 험해졌다고 생각하길바라는걸까?
588	역사적으로 위정자들이 험악한 사회분위기조성하는데 두가지 이유가있다: 1.국민들은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기존정권에 기댄다. 2.선정적인뉴스로 국민의시선을 다른곳으로부터 돌릴수있다.
589	{두더지게임1/8}서론: 기차가 출발하면 창밖 풍경이 움직이는 착각을한다. 물가도 마찬가지. 지금 물가가오르는 것이 아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것이다.
590	{두더지게임2/8}물가상승, 아니 돈가치하락은 통화량의증가에 원인이있는데, 엉뚱하게 정부는 물가잡는다고 생필품가격 못올리게 회사협박하는중. 정부는 국민들보라고 두더지게임을 하고있다.
591	{두더지게임3/8}물가상승은 금리와 통화량조절로 해결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할의지가 없다는데있다. 물건들중 값이 떨어지면 절.대.안되는게 있거든: 부.동.산.
592	{두더지게임4/8}10억짜리 강남아파트있다고 자랑하는 이에게: 연이율12%가정하면 당신은 한달에 천만원씩 집세를 내고있다. 돈이란 흘러야 가치가 있는건데 당신은 베고자는데

# Bozart said

593	{두더지게임5/8} 낭만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한마디: 한국의 모든가치는 부동산과 연동되어있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한국경제는 연쇄 붕괴한다.
594	{두더지게임6/8} 환율변동에 주목하라. 내 말대로 부동산가치유지위한 통화팽창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면, 원화약세로 나타날테니까.
595	{두더지게임7/8} 정부입장에선 무슨수를 써서라도 부동산가격을 지탱하는것 이외에 다른선택은 없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이상황은 단순한 기득권 이익보호차원만은 아니다.
596	{두더지게임8/8} 결론: 나는 적어도 이번정권 끝날때까지는 부동산가격이 유지될것으로 본다. 부동산하락에이은 경제위기는 차기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테니까. 그다음은 묻지마라.나도모른다.
597	{썩슬이관광1/5} 내가 태블릿시장에서 당분간 아이패드의 독주를 예상하는 이유는 아이패드의 성능과 가치가 타제품보다 뛰어나기때문만은 아니다. 애플이 부품을 썩슬이하고있다.
598	{썩슬이관광2/5} 애플이 2011 터치판넬수요 60%를 장악할것이란 예측이나왔다. 도시바, 샤프 등 LCD제조사에 4조투자했다는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599	{썩슬이관광3/5} 맥북에어로 SSD를 시범운용한 애플은 몇주후 출시될 신형맥북프로에 SSD를 집어넣을 것이 확실하며, 이는 메모리 썩슬이를 의미한다.애플은 남편이 벌여주는돈으로 썩슬이관광나선 중년부인이다.
600	{썩슬이관광4/5} 애플이 단일회사로서 시장지배적물량을 확보할뿐아니라, 시장전망도 뛰어난 최고우량고객이란 사실은 경쟁사들에 비해 부품공급업체와 장.기.협.상.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601	{썩슬이관광5/5} 삼성이 애플 후광을 이용하려면 레드오션인 핸드폰/태블릿에서 경쟁을 자제하고, 반도체, LCD, 메모리 등 부품분야에서 실익을 차리는게 바람직하다.애플은 지금 일본기업 키우고있다. 끝.
602	오바마와 서부 IT기업가들간의 만찬이 전설의 투자자 존도어집에서 열렸다. 오바마 왼편에 잡스, 오른편에 마크가 앉았다.오바마가 왼손잡이지? 구글 에릭은 저~쪽 끝에 앉았다.
603	{미니애플1/8} 이번에도 어김없이 MWC전후로 애플관련머머가 떴다가 사라졌다. 남에 잔치집에 재뿌리는 작전으로 보이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니버전 출시가능성을 분석해본다.
604	{미니애플2/8} 내가 7'아이패드 출시가능성을 높게보는 첫번째이유: 아이패드와 아이폰사이에 비어있는 \$400대 구멍을 채움으로써 50~2500불사이의 완벽한 제품라인업을 완성할수있기때문.
605	{미니애플3/8} 내가 7'아이패드 출시가능성을 높게보는 두번째이유: 10' 딱반인 7인치는 e북 가능한 최소사이즈로, 아마존킨들이 바로 7'다. 애플의 아마존 죽이기는 비밀이아니다.
606	{미니애플4/8} 내가 7'아이패드 출시가능성을 높게보는 세번째이유: 7'아이패드는 별도의 노력 없이 기존 앱스토어 에코시스템에 곧바로 편입되며, 이동성이 우선적 고려사항인 소비층을 흡수한다.
607	{미니애플5/8} 내가 미니아이폰에 회의적인 첫번째이유: 모델수가 많아지면, 개발,관리,마케팅에 두배이상 자원이 필요하다. 기술집약제품은 한모델로 최대한 많이파는게 장땡이다.
608	{미니애플6/8} 내가 미니아이폰에 회의적인 두번째이유: 앱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저가로 만드는것이 쉽지않다. 저가폰은 철지난 모델로 충분히 커버된다. 이미 3GS가 49불에 팔리고있다.
609	{미니애플7/8} 결론: 나는 미니버전출시전략의 핵심은 애플 앱스토어 에코시스템에 얼마나 보탬이 될것인가이며, 이런 관점에서 아이패드7의 출시가능성이 미니아이폰보다 높다고본다.

#	Bozart said
610	{미니애플8/8}사족: 그래도 미니아이폰의 일말의 가능성을 본다면..바람난 틴에이지용 텍스트/소셜 특화된 초저가폰시장은 분명히존재한다. MS,HTC등 아직 누구도 성공하진 못했지만 애플이 한다면?
611	TV에선 전세값 급상승하니 차라리 집을 사라고 하는군. 에이 이정도론 국민들이 지갑안연다. 좀더 강력한 논리를 개발해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서 미디어의 위력을 보여줄기회다.
612	{도마뱀1/8}서론:나는 경제문외한이다.그저 내가 세상 읽는 방식으로 한국경제상황을 들여다 보니 몇가지 사소한 의문점이든다. 물어보는건 죄가아니겠지?
613	{도마뱀2/8}언론이 입을다무니 저축은행 몇개가 문닫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정부가 꼬리짜르기를 시도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마뱀꼬리일까?
614	{도마뱀3/8}나는 무리한 PF대출을 해줬다고 비난받는 저축은행 존립이유가 부동산경기 부양 위해 건설사에 쉽게대출을 해주기위함이었다고 생각하는데..나만의 오해일까?
615	{도마뱀4/8}이번에 문닫은 저축은행은 모두 지방이다. 반포-잠실-판교등 수도권에 우뚝 솟아 있는 수많은 고급아파트 입주율은 몇퍼센트일까?
616	{도마뱀5/8}건설사에 대출해준 저축은행들은 망하는데, 돈을 빌려간 건설회사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별로없다. 안망하건가, 망했는데 뉴스에 안나온건가?
617	{도마뱀6/8}나는 지금 상황이 2008년에 임시로 땀뻘했던 위기의 연장선으로 보는데.. 풍선이 터져야할때 터지지못한채 더욱 커졌다면, 터질때 충격이 커질까 줄어들까?
618	{도마뱀7/8}상식적으로 물건이 안팔리면 빚갚기위해 싸게팔아야하는데,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 안고 버티고있다. 어디선가 돈벼락이 떨어지길 기다리는걸까, 예전처럼?
619	{도마뱀8/8}나는 이번 위기를 극복할수있는 유일한 길이 예전 금모으기처럼 전국민적으로 아파트사기운동을 벌이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길이 있을까? 끝.
620	외국친구는 끝없이 펼쳐진 강남의 아파트숲 한칸당 가격이 얼마인지듣고 미.쳤.다.고 했다. 나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몰라서 그런거라고 면박을 줬다.
621	일본친구는 내게 일본 거품붕괴후 도쿄집값이 1/3로 떨어졌단다. 공적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태는 막아야할텐데, 아직도 돈이 남아있을지 걱정이다.
622	{가격의벽1/2}모토롤라의 야심찬 태블릿'쥬'가격이 \$800로 밝혀짐.반크기 켈탭은 \$600. 아이패드 출시 전 업계 예상가격은 천불이었다. 아이패드의 가격의벽은 UI장벽보다 높다.
623	{가격의벽2/2}아이패드가 싸이유: 1.OS와 프로세서를 자체 공급 2.대량구매로 부품을 저가에 장기확보 3.자체 리테일판매로 중간마진없앴 4.공장에서 직접 배달로 재고 처리비용 최소화.
624	{지뢰밭1/6}서론: 신문에 가계대출이 800조가 되었다는군. 제목은 '생계형 가계대출급증'으로 뽑았지만, 우리는 다 안다. 왜 가계대출이 늘었는지...
625	{지뢰밭2/6} 2년전 DTI와 저금리로 부동산 거품붕괴막아 가까스로 위기넘긴 정부는 다시 차오른 거품이 터지지않도록 다시 두개의 카드를 뽑아야하는 시점에 와있다.
626	{지뢰밭3/6}이것은 모럴헤저드다. 금융과 건설, 그리고 개인. 정부가 막아줬으면 정신차렸어야 하는데, 눈앞의 탐욕으로 순식간에 거품을 재생산한 것이다.
627	{지뢰밭4/6}나는 그동안 금융,건설광고로 먹고산 미디어가 이제 정신차리고 현실을 알아버렸을때 발생할 국민적불안을 막기위해 맹활약중인 점을 칭찬하고싶다.
628	{지뢰밭5/6}한국의 일본인에대한 편견: 그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없어 쉽게 자살한다? 자신삶에 애착없는 인간은 없다. 그들의 자살률이 최고였을때가 언제였을지 생각해봐라.
629	{지뢰밭6/6}결론:동기야 어찌되었든 거품이 터져서는 안된다.누굴 이빠해서가 아니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사히 지뢰밭을 지나가길 바라는 이유다. 예.전.처.럼.

# Bozart said

630	나는 경제를 철저한 시스템관점에서 본다.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경제든, 기술이든, 정치든..시스템은 시스템일뿐. 당신이 익숙한 시스템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문을 여는 열쇠다.
631	배에 구멍나서 배가 가라앉으면 구멍낸 사람만 죽는게 아니라 모두 다죽는다. 사실 구멍낸자기도망갈기회가 더 많다. 배가 가라앉을거란 사실을 제일 먼저 아니까.
632	이번주 공개될 새맥북프로에 SSD와 HDD함께 쓰는 하이브리드방식 적용된다는 루머. 만약 사실이라면 SSD쪽에는 OS와 앱이 저장되며, 이는 구동시간단축과 엄청난 배터리절약을 의미한다.
633	{황금시대1/4}우주가 탄생한이래 황금은 단한순간도 그 가치가 변한적없다. 최근 3년간 한국의 금값이 정확히 2배 올랐다. 사실은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거다.
634	{황금시대2/4}최근 물가가 급등하는것은 재물의 가치가 시차를두고 금의 고정가치에 접근하는 자연스러운현상이다. 물가란게 일일이 전화걸어 가격올리지말라고 잡히는게아니다.
635	{황금시대3/4}물가가 오르는동안 부동산가격이 변하지않았다고해서 부동산이 물가와 디커플된 것은 아니다.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것이고, 원래가치에 도달할때까지 멈추지않을것이다.
636	{황금시대4/4}나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2008년이후 부동산안정책에대한 한국의 경제 에코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본다. 과연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될수있을까?
637	{미워도다시한번1/8}서론:한국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수밖에 없는 내겐 한국정치나 드라마나 그게그거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을 한국식 막장드라마 공식에 넣어보겠다.
638	{미워도다시한번2/8}요즘 한국이 위기는 위기인 모양. 경제, FTA, 개헌, 대선, 총선등 앞으로 산적한 문제를 감당할수없는 대통령은 박근혜씨에게 민망한 러브콜을 보내고있다.
639	{미워도다시한번3/8}..가난에 찌들었던 남자는 출세라는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재벌의 딸과 결혼하여 회사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640	{미워도다시한번4/8}갑자기 닥친 권력과 부에 취한 남자는 이성을 잃고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저지르고, 급기야 바가지만 굽는 본처를 버리고 탄살림을 차리게된다.
641	{미워도다시한번5/8}남자의 방만한운영과 비리로 회사는 산으로가고, 급기야 이사실을 알아차린 주주들은 그를 공격하기시작했다. 사방이 막혀버린 남자가 기댈곳은 오직 하나..방치해둔 아내뿐.
642	{미워도다시한번6/8}재벌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남자의 사탕발림에 속아 결혼했지만, 자신을 버리고 사고만치는 남편을 버릴생각뿐이다. 그런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와 무릎꿇고 자신좀 살려달라고 빈다.
643	{미워도다시한번7/8}그녀는 남편을 도와줄까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도와주기로한다. 물론 자신이 다음번 주총에서 회사를 장악할때까지만이다. 그전에 시끄러우면 소액주주들도 눈치채니까.
644	{미워도다시한번8/8}남편가 아내가 누군지는 알테고..야당은 어딴냐고? 막장드라마에서 어릴적 부모잃은 주인공의 회상이나 수첩사진에 나오는 아버지얼굴이다. 끝
645	한국에 안나올 뉴스. MS가 윈7업그레이드중 삼성폰에 블릭 현상발생하여 긴급 중단지시. 근데 옴니아7폰이 외국엔 벌써 나왔네.
646	결국 SKT가 아이폰 들여온다. 아이폰 위력에 저항하다 결국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버라이즌과 똑같은 상황. 이젠 아이폰대 안드로이드 싸움에, 아이폰을 정점으로 캐리어간의 경쟁 격화.

# Bozart said

647	6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에이스 출시. 90만원대 갤럭시보다 싸지만, 그래도 아직도 노트북보다 비싸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나는 노트북 반값이 스마트폰의 적정가격이라고 본다.
648	6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에이스 출시. 보급형과 고급형 스마트폰의 차이는 폭리의 차이뿐. 이제 무한경쟁 시작되었고 곧 20만원대까지 떨어진다.
649	{아이패드2-1/4} 나는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으로 아이패드2 발표장나와 싸구려 언론들을 멋지게 엿먹인 스티브잡스가 무심코 벨은 한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This is not a Toy..."
650	{아이패드2-2/4} 아이패드2와 함께 최초 공개된 A5는 듀얼코어에 그래픽이 9배 빠르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진짜 애플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애플은 SW도 함께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 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651	{아이패드2-3/4} 이번 발표중 최고의 인기였던 아이패드용 Garageband 밴드. 다양한 악기 포함. 음악만들기 벽이 낮아질 것. 감상해 보라-> <a href="http://bit.ly/elol8m">http://bit.ly/elol8m</a>
652	{아이패드2-4/4} 약간 과장보태서 아이패드2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39불짜리 자석을 이용한 '스마트커버' 즐감-> <a href="http://bit.ly/fryH1s">bit.ly/fryH1s</a>
653	{세자책봉1/3} 애플수석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흘리고 다닌다. 앞에 몇 단어가 빠져있다. "CEO 안시켜주면...."
654	{세자책봉2/3} 팀쿡은 애플 Halo 효과의 시작이 아이폰이라고 주장. 사실 애플 Halo 효과 시작은 아이팟이다. CEO 후보 경쟁자인 아이팟 창시자 토니 파델을 견제하는 말이다.
655	{세자책봉3/3} 요번 키노트에서 CEO 기타 후보군의 노력도 불만하더군. SW부분 스캇은 웃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인상이 안 좋고, 키노트 최다출연자 필설러는 인상은 좋은데 살을 빼서 중량감이 떨어지네.
656	{이슬람채권1/5} 기독교계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이슬람채권 도입을 막은 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준 쾌거라고 할 수 있다.
657	{이슬람채권2/5} 내가 궁금한 점은 이번 정권이 하필이면 이시점에 이슬람채권을 도입하려 하는가이다. 무리해서 급진 돌릴 때는 주머니는 비어있고, 쓸 때는 많을 때이긴 하지..
658	{이슬람채권3/5} 내가 이시점에서 궁금한 또다른 점은 2년전 환율막는다고 갖다 쓴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이다. 지금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막는데 이 돈이 무척 요긴하게 쓰일 텐데 말이다.
659	{이슬람채권4/5} 정권이 오죽했으면 총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슬람채권을 들여오려 했을까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한편, 또다른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왜일까: 원자력발전소 말이다.
660	{이슬람채권5/5}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통사람들이 무리해서 돈을 빌리는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돈을 빌리려다 못빌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 끝.
661	아이패드2 발표본 삼성전자임원 곧 출시될 갤럭시10 두께와 가격을 재고해야겠다고 고백했지만, 이게 직원들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이패드2는 통 알루미늄 케이스라, 얇아도 충격에 견딜 수 있거든.
662	아이패드2 경쟁자들은 애플과 싸우기도 전에 자신들끼리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등 핵심부품 확보 전쟁을 치러야 한다. 반면 애플은 자체 A5 확보로 수량 확보에 문제없고, 많이 팔수록 점점 싸진다.
663	태블릿 둘러싼 현재 상황: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링에 올라있는 챔피언과 싸우기 위해, 링 밖에서도 전자들끼리 치고받는 중. 모두 올라가 싸울 수는 없다. 누가 링에 올라가려 하면, 판넌이 머리채를 잡아당겨 버린다.

# Bozart said

664	올해 출시 예상 안드로이드 태블릿 모델 수가 104종이란다. 제품종류와 상관없이 따악 프로세스 숫자만큼의 태블릿만 만들수있다. 물량확보도 문제지만, 프로세서가격을 높아지는게 더 골치다.
665	광고업계에 희소식: 애플 A5 내부메모리가 0.5Gb란다. 안드로이드는 1Gb니까 이걸 물고늘어저라. 소비자에게: 머리 큰 사람이 공부잘한다면, 최홍만이 우리시대의 아인슈타인이겠지?
666	야심찬 태블릿 Playbook 런칭 코앞에둔 RIM이 CEO잘랐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에 밀리고, 에코시스템 실패, 태블릿은 출시전 레드오션행. 냉혈한 현실인식의 폭풍이 몰려온다.어제는 노키아,오늘은 RIM,다음은?
667	{스쿠크1/2}이슬람채권 스쿠크는 율법상 이자를 받을수없어 채무자에게 부동산구입하고 월세 받는 방식이다. 한국에 들어오면 형식적으로 부동산 구매해야한다.부동산에 밀줄짝.
668	{스쿠크2/2}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일단 물러났지만 결국은 스쿠크를 들여올수밖에없다. 스쿠크는 한국 부동산거품 유지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니까. 시멘트 끌어안고 눈물만 먹고 살수는 없지않은가.
669	농협이 금융업무를 분리하는 대대적 개편단행했다. 왜냐고? 한미FTA 합의사항이었거든. 이게 FTA의 위력이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670	상반기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반드시 처리해야할 블랙버스터급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중: FTA,이슬람채권,개헌.. 예전처럼 밤한번새고, 옆차기쇼하면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줄까?
671	아이러니컬하게 한미FTA에대한 한국내 반대목소리가 커질수록 미국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게되어 미의회통과를 돕는꼴 된다.일단 미의회통과하면 한국도 반대논리가 힘을 잃는다.FTA딜레마다.
672	{저녁뉴스1/3}저녁뉴스에서 빅뱅컴백에 5분 할애했다.이는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1.빅뱅컴백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이다 2.방송이 국민을 저능아 취급하고있다.
673	{저녁뉴스2/3}요즘 뉴스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 일부러 국민들에 뉴스혐오증 조장한다고 오해할정도.나는 이럴수록 더 악착같이 보고 대중이 어떻게 취급당하는지 느껴야한다고 생각한다.
674	{저녁뉴스3/3}시골장터의 사기놀음판에서 번번히 돈을 뜯기다 사기방법을 알고난후 그들의 사기판을 구경하는 느낌.. 내가 요즘 뉴스보면서 드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675	디즈니이후 최대의 영상기술혁명이룬 토이스토리의 아버지 존레스터왈 "훌륭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만드는 3가지 비결은 1.스토리 2.스토리 3.스토리." 기술은 도구일뿐 목적이되서는 안된다.
676	삼성임원이 아이패드2보고 충격받아 꺾탭10인치 재검토시켰다는 뉴스나온뒤 이번엔 예정대로 출시하겠다는 뉴스나왔다. 안고치고 제때 내보겠다는건가 아니면 고쳐서 제때 내보내겠다는건가?
677	아이러니컬하게 에코시스템으로 먹고산 노키아 붕괴원인은 제품아니라 새로운 에코시스템 창출 실패였다. 에코시스템 전쟁에서는 개발자가 고객이다. 하청업체란 고정관념부터 버려야한다.
678	{위기의언론1/8}언론이란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수요소인 소금이자 긍정적의미의 바이러스다. 나는 언론을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한다.
679	{위기의언론2/8}내가 보는 언론의 위기는 종교의 위기와 유사한패턴을 갖는다. 신뢰의상실. 대중이 더이상 언론을 신뢰하지않기 시작하자, 그 존재가치를 급격히 잃어가고있다.
680	{위기의언론3/8}언론과 종교가 국민의신뢰를 잃은 이유:입으로는 국민위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 권력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는걸 국민들이 눈치챈기때문.누굴 원망해도 소용없다.표안나게 살살쪼하지..

# Bozart said

681	{위기의언론4/8}언론의생명은 적절한 포지셔닝에서 나오는 대중을 이끄는 힘이다. 이 관점에서 내가 보는 한국언론의 문제점 두가지: 1.언론이 너무 많다. 2.고만고만한 언론이 너무 많다.
682	{위기의언론5/8} 원론적으로 정상적인 언론의 권위, 가치, 비즈니스모델은 연동한다. 내가 보기엔 언론 본연의 비즈니스모델을 유지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고 본다.
683	{위기의언론6/8}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는 언론들의 공통점: 자신의 정체성과 논조를 지켜왔다. 목에 칼이들어와도.. 역으로 찰나의 탐욕을 위해 정체성을 포기한 수많은 언론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684	{위기의언론7/8}언론의위기는 종편에 목매는 메이저언론들의 모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그토록 목멘다는 건 언론 본연의 금전적가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니까.
685	{위기의언론}이상과현실의 괴리에서 고민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땅히 해야할 일 안해도 월급꼬박꼬박나오니 얼마나 좋은가? 긍정적으로 생각할때다. 끝.
686	미국언론의 자존심 NPR이 공화당비난한 몰래카메라 스캔들로 쏙발되더니 결국 CEO가 사임했다. 이것은 위키리크사태에 이은 명백한 권.력.투.쟁.이다.
687	아이패드1 최대불만은 무.겁.다. 아이패드2 사용기는 모두 가.볍.다.로 시작한다.사용시간유지하며 두께와무게 줄인건 종합예술이다.잡스가 소비자에겐 천사로, 경쟁자에겐 악마로 비치는 이유다.
688	KT가 유선전화망 API공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드는 두가지의문: 1.유선전화망이 죽어간다면 언제 처음 알았을까? 2.여기에 달라붙어 개발해줄 개발자가 몇 명쯤 남아있을까?
689	이번 금리인상으로 물가는 잡히고 가계부채에 부담은 미미하다는 한은총재에게 그럼 이렇게 좋은걸 왜 그동안 안했냐고 묻고싶다. 모름지기 세상만사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거늘..
690	삼성과 LG가 3D-TV 기술 놓고 서로 싸운다고 뭐라고 그러지마라. 둘간의 진흙탕싸움덕분 3D란게 아직도 팔고있다는 것을 알게된사람들도 많으니까. 어쩔 신종 마케팅기법?
691	삼성,LG가 내놓은 3D-TV는 기술의흐름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예이다.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컨텐츠업체는 절대 안움직이거든.FullHD 투자한거 다 뽑아먹을 때까지.
692	{화석의반격1/8}내가 일본 대지진으로 두려워하는 후폭풍은 여진도, 인명피해도, 방사능피해도 아니다. 바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확대와 공급 부족 현상이다.
693	{화석의반격2/8}이번 지진으로 원전폭파와 방사능누출의 우려가 커지고있다.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세계경제는 화석연료에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고 있다.
694	{화석의반격3/8}원전폭발 뉴스에 가려져 눈에 띄지않는 뉴스가 있다. 지하에 있는 석유정유시설 파괴. 이것뿐아니다. 구글쳐보면 최근 얼마나 많은 정유시설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695	{화석의반격4/8}중동의 정치적 변동에 한술더떠 이젠 리비아 독재자가 정유시설 파괴를 지시했다는 소식. 반군들이 정유시설을 인질로 잡고 있거든.
696	{화석의반격5/8}중동, 일본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자기나라 오일구멍 안뚫는다고 다시 못박았다. 즉 석유최대소비국 미국은 날라가는 오일값을 잡을 의사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것이다.
697	{화석의반격6/8}대체에너지로 여겨졌던 원전에대한 이미지악화, 중동 정세 불안, 잇다른 정유시설 파괴.. 세상의 모든 이정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고.유.가. 그리고 끝이 안보인다.
698	{화석의반격7/8}석유값오르면 자동차 안타면 되지않냐는 낭만적생각 가진 사람은 설마없겠지? 석유값 인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의 인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 Bozart said

699	{화석의반격8/8}사족: TV앞에앉아 오지도않을 방사능낙진 걱정할 시간있으면 진짜 닥치게될 고유가와 고물가 낙진 걱정이나해라. 한국사회가 감당할 고물가 한계치에 있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건 아니겠지?
700	이번 지진의 또다른 후폭풍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앞으로 다가올 일본의 식량란이다. 한국이 소돼지 파문은 것처럼 일본의 식량부문 대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질거다. 한겨레 “애플의 법칙” 인터뷰 스페셜
701	{애플의법칙에 빨려드는 IT 기사 인터뷰전문1/6} 한겨레 구본권기자(@buyry)님의 기사에대한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기사원문은 -> <a href="http://bit.ly/h6udmk">http://bit.ly/h6udmk</a>
702	{애플의법칙에 빨려드는 IT 기사 인터뷰전문2/6} 질문.1: 이러한 애플의 지배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답: 상생의 경제를 이루었기때문입니다. 애플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플답지 않은 두번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전까지 맥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iPod를 윈도우사용자가 쓸 수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이팟의 급속한 대중화가 이뤄졌고, 애플 halo 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는 앱스토어의 개장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후 애플은 개발자집단으로부터 아이폰 개발툴을 공개하라는 강력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애플은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앱스토어 개장하면서 IT 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아이폰의 출시 이후부터 매우 일관된 에코시스템 확대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강점, (아이팟 Halo효과와 아이튠즈) 을 축으로 에코시스템을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경쟁자들의 추적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잡스"적이지 않은 이런 전략에는 팀콕이 상당부분 관여해왔다고 봅니다.
703	{애플의법칙에 빨려드는 IT 기사 인터뷰전문3/6} 질문.2: 후발 IT 업체에겐, 어떤 방법으로 애플과 경쟁하는 것이 현명할까? 답: 지금의 애플은 경쟁자를 간단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모델이 다방면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관련이 큰 모바일기기쪽만 국한해 보죠. 애플은 지금 소비자인식, 강력한 시장지배력, 넘치는 현금으로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력소모, 두번째는 가격입니다.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면 H/W, S/W, 서비스를 함께 설계해야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기업들의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죠. 예를들어 이번 아이패드2와 함께 스마트커버를 출시했습니다. 디자인부터 기기와 커버양쪽에 자석을 박았고, 커버의 동작은 자동 전원온오프, 즉 OS와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지않는 프로세스의 벽은 더 넘기 어렵습니다.
704	{애플의법칙에 빨려드는 IT 기사 인터뷰전문4/6} 질문.3: 현재의 애플의 지배가 계속되느냐, 꺾이느냐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시장지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회사는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애플은 시장지배를 우선을 생각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Top-to-bottom, 애플은 Bottom-to-top입니다. 애플은 소비자가 좋아할만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는것을 최고의 선을 생각합니다. 애플의 제품 (H/W, S/W, 서비스) 이 다른 제품보다 좋다보니 점점 더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애플은 향후의 성장을 위한 씨를 뿌려 첫 수확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저는 잡스가 떠난 후에도 애플이 더욱 번성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 과정에서 애플의 혁신성은 사라지겠지만, 또다른 회사가 혁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페이스북, 트위터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분야가 앞으로 IT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 Bozart said

705	{애플의법칙에 빨려드는 IT 기사 인터뷰전문5/6} 질문.4: 현재처럼 애플이 IT 매트릭스를 지배하는 현상은 업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가? 답: 애플의 약진으로 기존에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와 MS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자신들이 구축한 에코시스템위에서 여유있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의 출현으로 기존의 에코시스템이 깨어지면서, IT는 에코시스템 전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에코 시스템에서는 개발자도 "고객"입니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매출의 70%를 제공했고, 무료앱개발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iAD서비스를 제공하기시작했습니다. 과연 기존의 에코시스템의 지배기업들, 통신사업자, 핸드폰업체들이 어떻게 개발자들을 대해왔는지 반문하고 싶군요.
706	{애플의법칙에 빨려드는 IT 기사 인터뷰전문6/6} 구본권기자님(@buyry) 덕분에 오랜만에 글을 써봤습니다. 질문의 깊이가 너무 커 답변은 단답형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점 고려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겁니다.
End of 한겨레 “애플의 법칙” 인터뷰 스페셜	
707	미국ATT가 T모바일 40조에 샀다. 버라이즌 아이폰출시후 밀리는 네트워크확충위한 교육지책. 아이폰발 통신빅뱅의 다음타깃은 스프린트다. 설마 남의나라 얘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708	리비아반군이 카다피의 반격에 밀리자 서방강대국들이 전격적으로 군사개입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리비아 및 중동의 연쇄적 민주화운동이 자연발생이아니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709	캘리포니아에 극히 드문 태평양발 열대성폭풍이 상륙해 8만가구정전시키고 남가주로 이동. 더 이상한건 50mph폭풍이 태평양건너온단 사실 일주전에 알고도 철저히 함구한 미언론이다.
710	{아듀~아이팟1/8} 서론:오리지날 아이팟은 2001년 최초 공개되었고,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갈 운명이다. 애플Halo현상과 UI혁명의 시발점인 아이팟의 기술적,역사적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711	{아듀~아이팟2/8} 아직도 생생한 아이팟과의 첫만남: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힌 담배갑모양의 차갑고 묵직한 흰색상자를 처음 손에 잡았을때 느낌은 기계라기보다 스왈로프스키 조각상에 가까웠다.
712	{아듀~아이팟3/8} 당시 아이팟을 쓰며 놀랐던 사실은 클릭휠이 손가락의 가속도를 인식했다는 점이었다. 경쟁제품들과 달리 수천곡을 몇바퀴돌려서 손쉽게 찾아낼수있었던 것이다.
713	{아듀~아이팟4/8} 10년전 아이팟 클릭휠의 경이로운 터치반응속도는 현재까지 출시된 어떤 비애플 스마트폰도 따라잡지 못하고있다. UX는 HW스펙업만으로는 절대 해결안된다.
714	{아듀~아이팟5/8}UX관점에서 0.1초 반응속도차이는 사용자가 해당기기를 신체의 일부로 인식할지, 기계로 인식할지 결정짓는다. 애플디자인의 무서운 점은 자기상품에서 기계 냄새를 지우는데 능하다는 사실이다.
715	{아듀~아이팟6/8}아이팟구매후 나는 더 많이 음악을 들었고, 음악구매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음악에대한 열정의 부활은 내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음악시장이 부활한 것이다.
716	{아듀~아이팟7/8}애플은 운도 따랐다.미국TV종결자 아메리칸아이돌 열풍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덕분에 애플은 음악에대한 국민적관심의 폭발적증가 혜택을 고스란히 입었던 것이다.
717	{아듀~아이팟8/8} 디자인과 UI개념 탄생의 일등공신인 아이팟은 기술이 인간중심으로 회기하는 새로운 흐름의 시발점이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기기가 인간의삶과 세상을 바꾼 예로 역사에 남을것이다.
718	아이팟출시로 뉴턴류 범용기기 기대했던 이들이 급실망했지만 아이팟,게임기등 전용기기에 밀려 PDA는 사라졌다.지금은 애플의 범용기기 iPad 출시로 e북이 위기를 맞고있다.역사의 아 이러니다.

# Bozart said

719	삼성이 일본지진 구호물자로 재고로 남은 2400대 갤럭시를 보냈단다. 이왕 국가적망신을 감수하고 재고처리할거면 재고로남았다는 20만대 다보내지..
720	SK가 옴니아고객에게 삼성카드만들면 갤럭시S로 기변해준다는 엽기적 옴니아2보상플랜 발표. 이 난해한 플랜이 "보상"인지 판단이 채 끝나기도전에 삼성이 오해라고 공식해명. 둘 사이에 어떤 일이?
721	삼성-LG의 3D-TV를 둘러싼 막장드라마 2탄. 막말공방으로 범정에 가겠단다. 이렇게라도 해서 3D-TV의 부족한 콘텐츠를 채우겠다는 노력이 눈물겹다.
722	신정아씨가 자서전에서 “처음부터 일때문에 나만난 것 같진않아” 라는 그분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다 이례적으로 삼성 이회장으로부터 직접 공격당해 사표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맞나? 잘몰라서..
723	나는 실현가능성을 떠나 대기업의 잉여이익을 강제로 나눠준다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낼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을 고치지 못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일뿐.
724	와~아이패드2보다 얇고, 가벼운 갤럭시 8.9발표하여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 팔다가버린 7인치 그렁다치고 예정대로 출시한다던 10.1는 팔기전에 버리는건가?
725	내게는 갤럭시8.9가 아이패드2보다 얇고 가볍다는 기쁨보다는 삼성이 허니콤때문에 어쩔수없이 NVIDIA 티그라2프로세서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대한 우려가 더크다.
726	삼성이 애플보다 앞선부분은 수직계열화였다. 하지만 갤럭시의 NVIDIA티그라채용으로 A5프로세서 자체확보한 애플과 전세가 역전됐으며, 앞으로도 따라잡기어렵다. 자체 OS가 없기때문이다.
727	삼성은 애플 짝퉁만들라고 직원들 조지기전에 자신들의 제품 (TV,세탁기,냉장고,컴퓨터,DVD,오디오..)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는지 묻고싶다.
728	이종 전자기기의 통합은 모든 전자회사의 꿈이다. 소니도 실패했고, 삼성은 시도도 못했다. 현재 진행중인 애플의 통합작전은 세가지방향에서 진행중이다: OS-UX-에코시스템
729	아마존이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를 개장했다. 테스트드라이브기능으로 앱다운로드안하고도 사용해볼수있다. 바야흐로 에코시스템 전쟁이 본격화되고있다. 구글의 오픈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730	아마존 앱스토어개장으로 이름전쟁 재점화. MS에 이어 아마존이 '앱스토어' 이름 사용하려하자 애플이 발끈한거다. 상황은 애플이 불리하지만 브랜드 인지도면에서 나쁘진않다고 봄.
731	아마존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개장은 구글의 e북진입에 대한 방어의 의미가 있다. E북을 지키기 위해 앱을 공격하는거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이니까.
732	구글에게 아마존앱스토어의 출현은 그다지 나쁜건 아니다. 아마존앱스토어가 아이폰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안드로이드에 단비같은 존재다. 어차피 구글은 앱스토어로 돈벌 생각안하니까.
733	최신버전 파폭 24시간 다운로드가 4백7십만으로 지난주 공개한 IE9다운로드 2백35만의 두배 기록. MS입장에선 독이 첨엔 한군데만 새다가 사방에서 터지는것같은 상황.
734	CTIA에서 삼성 갤럭시공개 이벤트에 상영된 사용자인터뷰 동영상이 배우를 고용한 가짜로 들통나서 망신. 혹시 한국언론에 안나올까봐.. <a href="http://t.co/TjI5euA">http://t.co/TjI5euA</a>
735	배우고용해 일반사용자 인터뷰처럼 속였다는 의심을 받는 CTIA 삼성 이벤트 동영상. 심지어 자기 기사문구를 인용했다는 언론인도 나왔음. <a href="http://t.co/xQSOEAg">t.co/xQSOEAg</a>

# Bozart said

736	{애플잡기1/6}펜택부회장왈"애플이 아이패드2가격 지나치게 낮춘건 태블릿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경악했다. 이따위 정신상태와 현실인식으로 애플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737	{애플잡기2/6}펜택부회장 말은 형편없는맛과 서비스로 문닫기 직전이던 식당가에 새식당이 문을열어 싸고 맛있고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이 문전성시 이루어 옆집 식당주인이 내뱉는 불평과 동일하다.
738	{애플잡기3/6}별짓을 다해 방해해도 애플제품을 기를 쓰고 사는건 소비자들이다. 한국경영자들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를 발톱의 때로 여기고 있다.시장장악 운운하는거보면 아직도 정신못차렸다.
739	{애플잡기4/6}똑바로 들어라. 애플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들 제품을 사게만드는걸 최고로 목표로 삼는회사다. 애플에게 시장지배는 목표가아니라 그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일뿐이다.
740	{애플잡기5/6}삼성,RIM등 태블릿경쟁자들이 눈물머금고 가격을 아이패드에 맞추고 모토롤라는 조용히 줌거두는동안 애플은 이 가격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가격도 기술이다.
741	{애플잡기6/6}아이폰출시전 핸드폰은 정점을지났다.아이팟나오기전 음악시장은 추락중이었다.아이패드나오기전 PC는 사양산업이었다.당신들 시장장악할때 뭐하고있다가 이제와서 애플따라잡겠다는건가? 그동안 뭐했는데?
742	{에어플레이1/5}애플따라잡겠다고 에코시스템 어찌구 뒷북치는 분들께 미안한 얘기지만, 애플이 지금 에어플레이를 라이선싱하려고한다. 에코시스템은 이렇게 만드는거다.
743	{에어플레이2/5}에어플레이는 아이폰/아이패드사용자가 자기주변의 오디오,비디오,프린터,자동차등에 음악,영상,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내주는 기능이다.이게 별거아닌 것같은데 막상 사용해보면 엄청 편리하다.
744	{에어플레이3/5}에어플레이라는 아주 간단한기능이 추가된 그날부터 내 차의 오디오시스템은 앰프/스피커빼곤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모든 음악이 아이폰에서 나오니까.. 이게 에어플레이의 위력이다.
745	{에어플레이4/5}요즘 오디오는 아이팟독을 포함한다.아이팟은 오디오업체엔 새로운금광이었으며,오디오업체는 아이팟에코시스템의 큰축이 되었다.앞으로 나오는 오디오에 에어플레이가 기본장착된다면?
746	{에어플레이5/5}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는 당연 에어플레이기능있는 제품을 산다.따라서 오디오/주변기기회사들은 에어플레이를 자기제품에 포함시킬수밖에 없다. 이렇게 애플의에코시스템은 확장되는것이다...
747	3D-TV 코메디 3탄: LG전자가 3D TV용 성인물제작 지원해 모델시작공략. 컨텐츠가 없다는건 아는데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은 없고.. 그냥 제조업마인드로 밀어붙이는수밖에.
748	구글의 태블릿용OS 허니콤의 소스코드 공개 무기연기.애플 iOS를 따라잡기위해 오픈정책 포기.구글은 명분에 집착하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진작 오픈을 포기했어야했단 말이다.
749	{카카오톡1/4} SKT가 네트워크 부하증가를 이유로 초간단 메시지앱 카카오톡 죽이기를 시도 중. 그럼 스카입과 바이버는 왜 놔두는데? 유튜브는?
750	{카카오톡2/4} 카카오톡 죽이기는 통신사들이 SMS라는 기존 수익모델이 사라지는것을 막아보려는 애처로운 노력일뿐. 새는 바가지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의미없는 짓이다.
751	{카카오톡3/4} 궁극적으로 통신사들이 아무리 반항을 해도 네트워크 수익모델은 전기회사와 같아지게 되어 있다. 내가 누차 강조했듯이 쓰는 만큼 지불하는 정량제외에 다른 길은 없다.
752	{카카오톡4/4}과거의 영화에 집착하는 통신사에게: 지금 세상은 소.비.자.가 리드한다.당신들이 사소한 이익에 집착할때마다 소비자는 멀어진다. 아이폰폭풍 맞고도 아직 정신못차렸나?

#	Bozart said
753	끝없이 이어지는 CEO짜르기 열전: 이번엔 에이서컴퓨터. 이사회는 모바일이 길이다, 사장은 컴퓨터가 길이다. 둘다 헛다리짚었다. 내가 보기엔 어느쪽이든 출구가 보이지않는다. 프로젝트 사과전쟁 스페셜: 2011년 4월8일 7:45pm ~ 10:15 @ KOEX (남) 301
754	{강연요약1} 서론:이번 "프로젝트:사과전쟁"강연에 참석하신분들의 이해를 돕고, 참석하지 못한분들을 아쉬움을 달래드리기위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755	{강연요약2} 주제: '사과전쟁'이 온라인에서 출발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IT의 다양한 현상과 전략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756	{강연요약3} 구성: 총2부와 7개의 챕터로 나뉘었습니다. 1부는 미리 정해진 강연, 2부는 참가자의 질문을 멘션으로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은 트윗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습니다.
757	{강연요약4} CH.1 Beginning of AppleWar: 저에 대한 간략한소개, 애플과의 인연, 사과전쟁을 시작한 계기가 된 2007년1월9일 아이폰 역사적 발표장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758	{강연요약5} CH.2 Story of Watch: 시계는 인류역사 최초의 정보기기입니다.시대변화에 따른 시계의 기술적가치와 역할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기술의 본질과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759	{강연요약6} Ch.3 Twist of Prices: GainXBandwidth 원리를 활용하여 IT비즈니스에서 가격전략을 분석합니다. 이관점에서 애플,구글을 분석하고, 사과전쟁 전략을 설명합니다.
760	{강연요약7} Ch.4 랑데뷰 Part I,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머물던 사과전쟁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SNS의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61	{강연요약8} Ch.5 랑데뷰 Part II,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과전쟁강연으로 오프라인에 도달한 실험이 SNS를 통해 다시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실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762	{강연요약9} Ch.6 인터랙티브세션: 멘션으로 받은 질문에대해 답변을 했고, 그 답은 곧바로 트윗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답변이 길어져 못다한 답변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763	{강연요약10} Ch.7 Glowing in the Dark: 제가 사과전쟁을 쓰게된 본질적인 이유, 그리고 미래를 알아야하는 이유를 전달하고자했습니다.
764	{강연요약11} 결론: 나름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의미있는 실험이었고, 참가하신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새로운 실험을 준비할 계획이니 기대하세요
765	{강연Q&A.0} 4월8일 열린 "프로젝트:사과전쟁" 2부 인터랙티브세션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내드립니다.도움이되기 바랍니다.
766	{강연Q&A.1} 모바일앱의 미래는? 앱은 사라지지 않고 상당부분 자신의 영역을 지킬 것이며, 그 이유중 하나는 전력소모이다.
767	{강연Q&A} 2.한미FTA의 IT분야 영향은? 공정경쟁 이뤄질수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한국사회가 균형잡힌 에코시스템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트롤도 세균처럼 긍정적 역할있음.
768	{강연Q&A} 3.정보기기에서 문자의 미래? 영상과 음성인식으로 완전히 교체되기까지 기술적장벽으로 상당기간 소요. 문자는 정보압축의 역할도 갖고 있음.
769	{강연Q&A} 4.캐리어들의 콘텐츠/SNS/앱스토어 진입전망? 네트워크사업은 결국 유틸리티화함. 콘텐츠등 새로운사업을 시도하는건 바람직하지만, 기존가입자를 묶어두고 돈빨아먹는 방식을 버려야함.
770	{강연Q&A} 5.온라인-오프라인 브릿지에 새롭게 도입될 개념은 더 없을까? 현재까지 SNS와 오프라인 결합의 상업적성공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무한한 가능성있음.

# Bozart said

771	{강연Q&A} 6.중국에 오프라인이라면 오프상의 수익모델을 말하는 것인가? SNS는 인간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돈은 오프라인에서 얻어야한다. 그루폰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중.
772	{강연Q&A} 7.사과전쟁 향후방향? 내 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온라인&오프라인-컨텐츠제작&분배가 결합된 새로운 상업적모델을 찾는 것임.이번 강연결과에따라 지속적강연과 킨글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중.
773	{강연Q&A} 8.OSI에 SNS가 들어가야할까? SNS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기존 골치거리인 이중통신네트워크 통합을 이루게됨. SNS통신의 상위에 놓이며, 정확히 폐북이 걷는 길임.
774	{강연Q&A} 9.PC의 미래는? PC회사들조차 모바일기기로 몰리고있는 현상황에서,PC의 몰락은 가속화될것. 상당기간 업무, 전문가영역은 지키지만 궁극적으론 클라우드컴퓨팅의 위협을 받을것.
775	{강연Q&A} 10.세상은 넓게보는 Bozart만의 노하우? 세가지 원리: 1.Connecting-the-Dots 흠어진 정보의 연결 2.Out of-Box 발상의전환 3.Trade-Off 균형잡힌시각
776	{강연Q&A} 11.DTV전환후 유희주파수활용전망? 한국도 미국따라 통신으로 활용될것. 한국도 이제 막 White Spac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방송사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
777	{강연Q&A} 12.아이패드7인치? 7인치 아이패드는 킨들킬러,가격라인업 완성, 앱스토어확대 측면에서 애플이 내놓지 않을 이유가 없음.올 9월에 출시될것으로 예상.
778	{강연Q&A} 13.승자독식구조인 한국에서 신생기업탄생가능?현재불가,앞으론 가능.현재 한국 사회는 변화의 변곡점에 있으며,변화의 흐름을 기존대기업군이 인위적으로 막을수없을것. 카카오톡이 좋은 예.
779	{강연Q&A} 14.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대기업중심 왜곡된 한국경제 살길은 젊은이가 창업에 나서는데있음.아직은 어렵지만 FTA되면 창업환경이 나아질테니 꿈을갖고 세상넓게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기바람.
End of 프로젝트: 사과전쟁 강연 스페셜	
780	아마존이 광고보는 조건으로 킨들가격 114불까지 낮추며 아이패드와 결사항전.전투는 e북리더,전쟁은 e북스토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사죽:몇번 강조하지만 킨들을 무료로 풀었어야한다.지금이라도.
781	{위기의인텔1/9} 인텔이 새로운 아톰을 선보이며 한가롭게 인간과기술에 대해 논하고있다. 미안하지만 MS에 조차 버림받는 인텔은 지금 "인간의 배신"에 대해 논해야할때다.
782	{위기의인텔2/9} 올해 출시될 100개 태블릿모델중 인텔의 저전력플랫폼 아톰이 탑재될 기종이 몇개나 될까? 그렇게 오래동안 공들인 아톰이 왜 선택되지 않을까?
783	{위기의인텔3/9} 모바일시대 거부하고 PC고집하다 짤린 에이사 CEO 예에서 보듯, PC업체들도 켄메기장사인 PC시장을 벗어나는게 꿈이다. 지긋지긋한 인.텔.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784	{위기의인텔4/9} 아톰이 안팔리는 기술적이유는 인텔아키텍처로는 성능과 저전력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을수없기때문. 애플뉴튼에 이미 ARM이 들어갔다. ARM은 모태 모바일이다.
785	{위기의인텔5/9} 인텔의 단순무식 아키텍처에서 전력줄이고 성능높이는 유일한방법은 반도체공정을 개선하는 것. 문제는 초미세공정에서 누설전류의 문제로 예전같은 개선효과를 기대할수없다.
786	{위기의인텔6/9} 인텔위기는 자신들의 근원적문제인 아키텍처를 적시에 갈아엎지 못했기때문. 절로 돈이 들어오는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 결론적으로 아톰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야했다

# Bozart said

787	{위기의인텔7/9} 4년전 모바일부분 마벨에 매각한 인텔은 아톰에 기존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패착을 두었다. 시장장악력만 믿고 마켓과 소비자 무시한 이 결정이 인텔을 무너뜨리고있다.
788	{위기의인텔8/9} 아파트살다 단독주택으로 바꾸려면 기존 건물철고 다시 지어야하며, 기존건물 철거하는게 새로짓는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인텔이 아키텍처를 바꾸지 못한 이유다.
789	{위기의인텔9/9} 나는 인텔아키텍처가 IT의 폭발적성장, 특히 SW와 반도체분야에 기여한 업적을 부인하지않는다.다만 새롭게 열린 모바일시대에 길을 내줄때가 되었을뿐이다. 20년이면 충분하다.
790	다음과 네이버가 구글의 스마트폰용 검색창 독점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단다. 버라이즌은 빙이 기본이니, 캐리어한테가서 따지는게 좋을듯. 근데 네이버/다음이 구글만큼 공.정.한.정보를 제공하는거 맞지?
791	손바닥에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제법 인기 끌던 플립 미니캠코더가 이회사를 6천억에 산 시스코에 의해 사망선고되면서 아이폰 직격탄 맞은 피해자리스트에 등극. 사실 나도 샀다가 아이폰나 오고 바로 리턴했거든.
792	{지갑전쟁1/8}서론:NFC 스마트폰장착이 가시화되며 전자지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먼저 내가 2009년7월에 쓴"Steal Your Wallet"을 읽어보라-> <a href="http://bit.ly/eyq7ok">http://bit.ly/eyq7ok</a>
793	{지갑전쟁2/8} 많은 이들이 내게 애플의 미래에 대해 물어올때마다 나는 애플의 궁극의 미래는 금.융.업.이라고 대답하곤한다. 애플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그길로 진행하고있다는 얘기.
794	{지갑전쟁3/8} 아이튠은 소비자에서 멀티신용카드사들을 모아주는 역할을한다. 즉 기존금융사들 신용카드/은행으로 가는 길목을 틀어쥐고있다. NFC가 아이폰에 장착되면 영향력은 급속히 확장될것이다.
795	{지갑전쟁4/8} 미국의 경우 궁극적으로 3개의 소비자 금융 에코시스템이 지배하게 된다. 애플-아마존-구글. 단기적으론 페이팔, 장기적으론 신용카드사가 영향을 받을것.
796	{지갑전쟁5/8} 예전 누군가가 대한민국통신사가 앞으로 무얼해야할지 물어봤을때 나의 답은 금.융.업.이었다. 소비자의 돈의 흐름을 틀어쥐 수 있는 위치에 있기때문이다.
797	{지갑전쟁6/8} 이제 곧 구현될 모바일상거래에서 NFC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레딧카드의 플라스틱 판박에 되지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Backhaul이다. 돈의 흐름을 누가 쥐는가이다.
798	{지갑전쟁7/8} 금융업측면에서 돈의 흐름을 쥐고있는 자가 이익을 얻는다. 즉 이익은 돈의 이동에서 발생하며, 땅에 묻어놓은 돈은 이윤을 창출하지못한다. 스마트폰으로 지불하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799	{지갑전쟁8/8} 결론: 앞으로 스마트폰이 신용카드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전자상거래의 강자들은 금융업으로 진화한다. 모바일 금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탄생하기 직전이다.
800	{지갑전쟁9/8} 사족: 스마트폰이용한 모바일금융에서 아이폰이 안드로이드폰보다 보안측면에서 유리하다. 애플의 문제는 적절한 파트너쉽을 찾는 움직임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거다
801	{애플vs삼성1/6} 예상대로 애플이 삼성에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아이폰,아이패드 인터페이스와 외형 카피했다는 것. 여기서 끝난게 다행인줄알라. 속안의 OS와 SW는 카피하고 싶어도 못했으니.
802	{애플vs삼성2/6}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충돌하는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왔다. 도시바 LCD공장에 투자하고, 자체프로세서 확보했으며, 프로세서 제조를 삼성에서 TSMC로 이전하려한다.
803	{애플vs삼성3/6} 나는 삼성이 경쟁력도 변별력도없는 레드오션 모바일분야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등 부품을 키우는 전략을 취했어야한다고 누차 경고한바있다.

# Bozart said

804	{애플vs삼성4/6}삼성이 애플의 소송을 쉽게 빠져나가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애플제품 무작정카피한다는 삼성의 이미지훼손이다. 전문용어로는 국.제.적.망.신
805	805{애플vs삼성5/6}글로벌기업 삼성은 법이 아닌 대중의심판을 더 두려워해야하는 상황. 삼성이 애플IP를 침해했는지는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삼성이 애플디자인 베낀건 이미 삼척동자도 아니까.
806	{애플vs삼성6/6} 이번에도 대한민국 언론의 삼성편들기는 여전하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단. 중국의 삼송 비웃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싶다.
807	{옵니아의저주1/7} 이름도 으스스한 옵니아가 삼성의 발목을 잡고있다. 나는 이 사건에서 한 기업이 아닌 한국의 근원적 문제를 본다. 눈앞의결과에 집착하는 조급증과 맹목적 미디어광신.
808	{옵니아의저주2/7}옵니아2는 아이폰의 한국출시 대항마로 급조된 불행한운명을 갖고 태어났고, 재앙이되고있다. 옵니아7은 한국에 나오지도 못한다. 그런데 삼성은 건재하다. 왜일까?
809	{옵니아의저주3/7}나는 파는 삼성보다 사주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고 본다. 옵니아2라는 조악한 쓰레기를 70만명이 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게 없다는거다.
810	{옵니아의저주4/7} 애플의 소송을 불러온 삼성의 무조건적인 아이폰 베끼기는 옵니아2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딴짓하지마. 머리쓰지마. 그냥 똑같이 만들란 말이야!"
811	{옵니아의저주5/7}아이폰 개발기간 2년, OS기술 15년,터치기술 5년, 아이튠즈 6년을 어떻게 몇달만에 가내수공업으로 따라잡겠다는것인가? 조져서 되는게있고 안되는게 있다는것조차 용납되지않는 한국사회.
812	{옵니아의저주6/7}옵니아2 고객들이 삼성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입다물라는 조건으로 삼성이 깬2 공짜로 준다면 넵죽받을 건가 아니면 아이폰을 갈아탈 것인가? 여기서 한국의 미래가 갈린
813	{옵니아의저주7/7}결론: 애플의 삼성소송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에 있다. 당신들이 쓰레기같은 제품을 자꾸 사주니까 카피하다 망신당한거다. 삼성이든 LG든 좋은 제품만 사라. 살아남고싶다면.
814	{옵니아의저주8/7} 사족: 백만원주고 옵니아 샀던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회상해보면, 당신을 흘린 목소리가 떠오를거다. 대기업이 뿌려대는 보조금에 눈이먼 대.리.점.직.원.
815	{작통법정1/9}애플의 삼성소송이 안드로이드폰 공격이라고 뻔뻔스럽게말하는 뉴스앵커의 주둥아리를 틀어막아버리고 싶었다. 대한민국 국민기업이 지금 작통소송에 휘말린거다.
816	{작통법정2/9}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 웃기는소리.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디자인 (외형/UI/아이콘/상자) 카피다. 기술특허침해를다른 HTC,모토롤라,노키아와는 차원과 격이 다르다.
817	{작통법정3/9}이번 소송엔 물론 기술침해도 들어있긴하다. 기술침해는 맞고소-합의-크로스 라이선스하면 유야무야할수있다. 지금 삼성은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지만..글썸..
818	{작통법정4/9}애플소송전은 두가지: 첫째 경쟁자(HTC, 노키아) 견제, 둘째 자기제품 카피하는 제품/회사 퇴출. 애플은 삼성이 번돈 게워내고 작통제품 영구추방을 요구하는중.
819	{작통법정5/9}이번 소송 타겟인 삼성TouchWiz UI의 목적자체가 안드로이드폰을 아이폰처럼 보이게위함이다. 이번 소송이 다른 안드로이드 죽이기소송과 차별화되는 이유다.
820	{작통법정6/9}삼성이 빠져나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깬S가 아이폰 디자인과 닮지않았다는 걸 증명하는것뿐. 문제는 아이콘과 상자까지 베꼈는데, 애플이 요걸 다 등록해놨다는 사실.
821	{작통법정7/9}예전에 누군가 애플이 상자포장도 특허를 냈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삼성이 상자도 카피할 줄이야. 더구나 자기들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협박하는 국민기업이.

# Bozart said

822	{작등법정8/9}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열악한환경에서 코피터지면서 열심히 일한죄밖에없는 개발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한다. 얼마나 시간이없으면 아이폰과 상자를 카피했을까?
823	{작등법정9/9}결론: 국민과 언론이 오냐 오냐 감싸니까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거다. 나는 안티가 아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824	{애플1Q11실적1/2}매출24.6B,이익6B=전년대비 각 85%,95%UP; 최대수훈 아이폰 천8백65만대(전년9백만); 아이팟9백만, 아이패드470만.iOS누적판매 1억9천만.
825	{애플1Q11실적2/2}오늘 1Q실적발표장에서 삼성소송에 대한 팀쿡답변 "애플은 삼성 최대고객이며, 삼성은 애플의 매우 매우 중요한 부품공급업체다. 삼성모바일부서가 선을 넘었기때문에 법정에 호소할수밖에 없었다"
826	{서태지아1/3}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의 메가톤급 임팩트와 별개로, 우리는 하필이면 왜 이시점에 터졌는지. 결혼식소식도 이혼도장찍은 소식도아닌 소송진행중이라.
827	{서태지아2/3} 서태지아 이혼처럼 선정적인 뉴스가 뜬.금.없.이.터지는순간 당신이 제일 먼저 할일은 이뉴스에 묻히는 뉴스가 무엇인지 찾는 일이다. 나는 찾았는데 당신도 한번 찾아보라. 보물찾기놀이하듯.
828	{서태지아3/3} 임팩트는 크지만 뉴스라고하긴 애매한 서태지아이혼으로 덮고싶은 '국민에게 하고 싶지않는 얘기'가 무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디어통제에 대한 감을 잡기에는 충분하다.
829	내가 우려하는 것은 “말하는 자유” 측면에서 트위터와 여타 미디어간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외부적인요인으로 그 거리가 급속도로 좁혀질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830	삼성vs애플 2라운드: 삼성이 애플 고소한것보다 독일법원에 제소했다는데 주목하라. 결정빠른 독일에서 승소한후 애플을 압박하겠단 전략. 물론 애플이 끝까지 버티겠지. 특허는 까부겨도 카피는 외통수니까.
831	{치킨광고1/4} BBQ치킨광고로 TV도배하길래 정우성.이지아나오는 아테나보면서 먹으려고 시켰는데, 어라? 날개만있네? 항의전화했더니 우린 몸통안판단다. 사실 우리같은 서민이야 날개만 먹어도 감지덕지.
832	{치킨광고2/4} 뜬금없던 정우성+이지아(수애아님!) 파리밀회에이은 충격적인 이혼특종. 초호화 캐스팅, 유럽로케에도 형편없는 시나리오로 말아먹은 아테나보다 훨씬 낫다. 역쉬.
833	{치킨광고3/4} 한물간떡밥 에리카킴 한국방문 전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해주던 한국언론보며 들던 의문은 이제야 풀렸다. 아버지퇴근하면 드실 진지상에 파리았을까봐 엄마가 덮어놓은 신문.지.
834	{치킨광고4/4}지난 몇달간 타인라인을 뜨겁게달군 외환은행사태에 대한 의문은 풀렸다. 이미 인수자가 기다리고있더군. 적군온다고 모두 대문만 막다가 뒷문열린줄 모른격. 내가 플랜B만 들라 했건만..
835	{셋다운1/3}애플앱스토어 개장날 무료벽돌게임 오로라페인트가 공개됐다. 두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긴 너무 뛰어난 그래픽과 음악으로 인기끈 이 게임사가 일본 소셜게임사에 2억불에 팔렸다. 한국은 지금 먼산만 바라보고있다.
836	{셋다운2/3}셋다운제가 일사불란하게 초스피드로 법사위통과. 이해는 된다. FTA시행되면 미국반발 막을 방법없으니. 문제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한국앱스토어 게임판매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란 사실.
837	{셋다운3/3}셋다운제도입으로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있던 게임산업을 조.직.적.으로 죽이고 있다는게 확실해졌다. 도대체 왜 죽일까? 시간이 알려주겠지.

# Bozart said

838	{농협해킹1/3}내가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미FTA 때문에 반강제로 농협이 금융업을 분리하려는 순간에 이 사건이 터졌기때문이다.
839	{농협해킹2/3}농협전산망 해킹사건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간다. 내가 이 사건의 어설픈대처를 지켜보면서 천안함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840	{농협해킹3/3}세상일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법. 이번사건으로 음지에서 퇴근제때 못하고 고생하던 금융전산관리자 위상이 높아졌겠군. rm, dd만알면 당신도 최고전문가.
841	{미디어프렌지1/5}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기위한 영어단어 소개한다. Frenzy: 우리말로는 호들갑,설레발? Media Frenzy: 미디어홍수속에 살아남기위해 당신이 외워야하는 주문이다.
842	{미디어프렌지2/5}최근 논란되는 아이폰의 사생활 침해논란은 media frenzy의 대표적예다. 기술측면에서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이다. 명백한 의도적 애플때리기이다.
843	{미디어프렌지3/5}애플폰이 아이폰보다 사용자위치기록문제가 심각한이유는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트로이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에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언론은 의도적으로 아이폰만 때리고있단말이다.
844	{미디어프렌지4/5}한국 여대생납치살인범 추적에 통신사위치정보 협조를 받은것 기억하겠지? 미국에선 아이폰위치정보를 수사에 이용했다고 문제삼는 중. 가만..CSI가 SF미드였나?
845	{미디어프렌지5/5}평생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미디어들이 얼치기 기술용어로 어수룩한 국민을 현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제발 휘둘리지좀마라. Just media frenzy..
846	{갤S2출시1/3}미리얘기해두겠는데, 이번 출시될 84만원짜리 갤럭시2는 베스트셀러에 오를거다. 폰이 좋아서가 아니니까 착각은 금물. 정부가 몇일전 슬그머니 보조금지금을 확대했거든.
847	{갤S2출시2/3}결국 갤럭시2출시로 이익보는건 나오자마자 보조금받고 가개통할 대리점뿐. 기록적 초기판매고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갤럭시2 구경하려면 한~참 걸릴거다.
848	{갤S2출시3/3}나는 국내에 아이폰 250만대팔린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 실제사용중이며, 일정한속도로 불어나고있다. 하루빨리 한국통신시장의 왜곡된 유통구조 고치못하면 아이폰막을수 없다.
849	클라우드의 폴드러쉬에 대한 성장통 겪는중. 아마존클라우드 서버는 고장으로 징가등 서비스 정지. 소니네트웍 해커공격 시인. 세상만물이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
850	아직도 미국에선 아이패드2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다. 곧 한국에 판매한다는데, 애플이 어떻게 물량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그들이 말하지않는 제조상의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851	아이폰이 만든 또하나의 신데렐라. 잡스키노트에 소개된 지역밀착형 자가용공유서비스 ZipCar. 원할때 아이폰예약하고 동네주차장에서 끌고나가면 끝! 11년연속적자에도 2천억에 상장됨.
852	{대동여지도1/8}150년전 대동여지도 만든 김정호가 역적으로몰려 감옥살이했다는 설은 진위를 떠나 우리에게 한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위치정보가 국.가.기.밀.이었다.
853	{대동여지도2/8}불과 30년전 냉전시대 스파이의 주요업무는 적국주요시설 위치파악이었다. 구글맵출현으로 스파이업계는 구조조정에 시달려야했다. 이젠 누구나 컴퓨터로 백악관도 볼수있는 시대다.
854	{대동여지도3/8}불과 10년전만해도 일부 남성들은 핸드폰구입을 꺼려했다. 밤에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걸 원치않았기때문. 지금은? 누가 핸드폰갖고있고, 술집도 더욱 더 번성중.
855	{대동여지도4/8}구글&애플의 스마트폰 위치정보저장을 언론이 공격. 이게 코메디란걸 모르는 순진한 일반인은 자기 위치정보가 공중에 떠다니고있다는건 생각지도 못한채 사생활보호타령중.

#	Bozart said
856	{대동여지도5/8} 자신의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Four Square의 가치가 1년만에 1억불에서 5억불로 증가. LBS는 IT의 새로운 금광인데, 이걸 막겠다고?
857	{대동여지도6/8} 나는 위치정보의 상업적가치를 3가지측면에서 바라본다: 1. 위치기반 밀착광고 2. 사용자이동패턴분석에 의한 개인 에이전트 서비스 3. 집단행동패턴분석에 의한 효율적마케팅
858	{대동여지도7/8} 위치정보 공개되는게 두렵다고 설레발치는 이에게: 당신의 집주소도 프라이버시냐고 묻고싶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정보의가치와 위상이 변하는 법. 과거를 돌아봐라.
859	{대동여지도8/8} 위치정보의 사생활보호문제를 무시하는게 아니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막을수없으며, 더 확대될 것이란 것. 걱정되면 산에가서 풀먹고살던지, 내정보좋은데 쓰게해달라기도하던지.
860	{길잃은남매1/3} 나는 하나은행의 외환인수를 막는 것이 론스타 먹튀를 막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수없다. 도대체 진짜 얻고자하는게 뭔가? 하나은행 외환은행인수 반대인가 론스타 먹튀반대인가?
861	{길잃은남매2/3} 궁금해서 묻는다. 1. 론스타가 하나은행지분을 블럭으로 처분하면 누가 사들일까? 2. 외환은행 인수자였던 하나은행이 포기하면 과연 누가 인수할수있을까?
862	{길잃은남매3/3} 불의의사고로 고아가된 외환이와 하나 남매가 밤길을 걸을때 하늘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들을 따라가거라. 그곳에 너희를 받아들일 주인이 있으리라.."
863	{골목길1/4} 슈퍼에서 감기약과소화제를 팔게되었다. 이상하건 예전 한의원과 피터지는 밥그릇싸움을 벌였던 약국에선 아무 저항도 못한다는 사실. 골목길상권에 폭풍이 다가오는데도.
864	{골목길2/4} 의약품의 일반상점판매가 중요한이유는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SSM과 맞물려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올것이기때문. 약국은 지금은 사라진 버스안내양 운명.
865	{골목길3/4} 의약품의 일반상점판매의 또하나 주목할점: 누가.만.든.약.을 팔것인가? 이미 검증된 감기약이나 소화제는 손쉽게 대량생산할수있다. 마치 메모리반도체찍어내듯.
866	{골목길4/4} SSM의약품판매, 삼성제약업진출과 한미FTA의약분야에 대한 강력한규제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난 이게더 궁금하다. 도대체 왜 제약회사도 약국도 자신들 밥그릇뺏기는 상황에서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있을까?
867	학벌에눈먼 한국사회에 보내는 경고. IT혁명의 산실인 MIT미디어랩의 신임디렉터에 대학중퇴생인 이토씨 선임. 세계최고의 대학이 정체된 대학교육 부정.
868	{과거에대해1/4} 우리가 살고있는 차원에서 시간은 유식한말로 비.가.역.현상이다. 쉽게말하면 시간은 한 방향, 즉 미래로만 흐른다. 더 쉽게말하면,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않는다.
869	{과거에대해2/4}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혼한 실수는 과거가 다시는 돌아오지않는다고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미래도 결국 또다른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870	{과거에대해3/4} 과거를 부정하는 자는 나쁜놈. 과거를 왜곡하는 자는 더 나쁜놈.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가 가장 나쁜놈이다.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더욱 그렇다.
871	{과거에대해4/4} 현재의가치로 과거를 평가하는자=바보. 현재의가치로 미래가치를 평가하는자=더 바보. 하지만 과거에대한 집착으로 미래의변화를 거부하는 자=제일 바보.
872	{시계의역사1/4} 나는 지난 강연에서 기술패러다임변화와 현대기술의 미래를 청중들이 느낄수있도록 시계를 예를 들었다. 기능적 의미를 상실하고 장식품이된 시계가 바로 첨단기술의 미래다.

# Bozart said

873	{시계의역사2/4}강연에서 나는 오래동안 시간.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침.단.정.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에서 시계는 인류최초의 정보기기였다.
874	{시계의역사3/4}비록 정보기기로서의 시계의 본연의가치는 사라졌지만, 시계는 지금 그어느 때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역사에 사라져버린 수많은기술 중 시계는 끝까지 살아남은 독특한 예로 기록될 것이다.
875	{시계의역사4/4}인류가 존재하는한 침단이란 머릿말이 붙은 수많은 현대기술들이 사라질 것이며, 그중 극히 일부만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하여 살아남을것이다.
876	{선거1/3}유래없이 뜨거웠던 선거가 끝났다. 시민들은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착각하지마라.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것을...
877	{선거2/3}선거에서 패한후보에게 선전했다고 격려? 선거가 무슨 달리기대회냐? 정치판에 2등은 없으며, 지금부터 1등은 무소불위의 권한갖는다. 패배자는 자신을찍은 유권자에게 죄를 지은거다.
878	{선거3/3}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알수도없고, 알아도 술자리에서 욕하는것밖에 할수없는 상황에서 선거는 국민불만해소용 리얼리티쇼일뿐이다.
879	{정의의정의1/4} 트윗상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멘션들이 가득하다. 문제는 동일주제에 대한 정의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할까?
880	{정의의정의2/4}현실적으로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일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정의의 정의가 차이가 날 바에야 차라리 정의가 없다고 정의하는게 좀더 정확다고본다.
881	{정의의정의3/4}한국사회에서 정의의 충돌이 심한 이유는 정의를 절대적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때문이다. 남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되어있다.
882	{정의의정의4/4}한국사회의 소통부재의 문제는 단연 세계최고 수준이다. 당신의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절대적 정의란건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좋겠다.
883	{옴니아마케팅1/2}결국 옴니아2를 깰S2사면 20만원 보상. 이것은 50만의 옴니아고객 고스란히 흡수하는 최첨단 마케팅이다. 우선 말도안되는 제품을 말도안되는 가격에 어거지로 파는게 핵심.
884	{옴니아마케팅2/2}과연 몇명의 옴니아2사용자가 깰S2로 갈아탈것인가? 상당수는 20만원할인 앞에 선택적 단기기억상실증이 재발할것이다. 언제 그랬냐는듯이..
885	{애플스토어1/9}서론: 애플 오프라인 스토어안에서 당신은 모든 종류의 인터랙션을 경험한다. 구매자-판매자, 구매자-구매자, 구매자-제품, 구매자-서비스. 이것은 리테일의 UI다.
886	{애플스토어2/9}오프라인 애플스토어 개장10주년됐다. 당시 언론은 잡스가 미쳤다고했지만, 애플스토어는 애플성장의 숨은공로자다. 다시 경고한다. 일단 들어오면 임팩트는 아이폰저리 가다.
887	{애플스토어3/9}애플스토어는 상품진열하고 판매하는 단순가게가 아니다. 인간과 제품을 연결하는 매우 정교하게 통합된 플랫폼이다. 구매자경험 측면에서 외계혹성에 온것과 유사하다
888	{애플스토어4/9}지난 쿼터에 애플의 중국매출이 3조였고, 전년대비 4배증가했다. 나는 주요 이유로 중국에 세워진 4개의 애플스토어를 첫손가락에 꼽는다. 예언글-> <a href="http://bit.ly/ixIVeO">http://bit.ly/ixIVeO</a>
889	{애플스토어5/9}애플스토어는 서구식레스토랑과 흡사하다.입구에서 직원이 방문목적을 묻는다.구경왔다면 통과.특정제품살생각있다면, 전담직원이 입구까지와 통성명한뒤 당신을 안내한다.안사기 매우힘들다.
890	{애플스토어6/9}애플스토어의 모든 구매과정은 직원이 들고다니는 아이폰에서 끝나며 영수증은 바로 내이메일로 보내진다. 나는 애플스토어를 애플판 전자상거래 테스트베드로 본다.

# Bozart said

891	{애플스토어7/9} 한국 언론플레이중 최악은 AS관련. 다양한 애플의 AS정책을 다 겪은 나에겐 고장난폰주고, 그자리에서 재생폰받는게 최적이다. 리퍼폰? 고장나서 맡긴 당신폰도 현.폰.이 거든요.
892	{애플스토어8/9} 당신이 AS받으러가면, 직원은 무조건 당신을 AS시스템에 등록시킨다. 당신례가 올때까지 당신은 매장을 둘러보고, 상품들을 만져보며 상.당.시간을 때울수밖에 없다.
893	{애플스토어9/9} 솔직히 한국기업에게 애플스토어진출에 대비하란말 못하겠다.아이폰 한국출시때 엄청데였거든. 이말만해준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애플스토어 못들어오게 막아라. 살아남고싶다면.
894	이번에 국회비준통과한 한-EU FTA는 곧시작될 메인게임 한미FTA비준의 리허설일뿐이이었다. 한미FTA가 통과못할가능성은 없다. 그과정에서 야권이 얼마나 정치적 뺑뺑이를 할것인지가 관건일뿐.
895	세계최초로 에베레스트에서 트윗이 가능했던 이유는 갤럭시2의 클락이 1.2GHz로 난로역할을했기때문. 클락높은걸 자랑이라는 판매자나 그걸 좋다고 넘죽사는 소비자나 도찌개찌.
896	{웹전쟁1/7} 뜬금없이 인텔이 애플의 A5프로세서를 자신들에 웹에 유치한다는 루머가돈다. 더구나 3-D공정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897	{웹전쟁2/7} 애플과 삼성반도체 인연은 아이팟에 들어가는 AP 공급결정하면서부터. 삼성의도 박은 성공하여, 단숨에 천덕꾸러기 비메모리가 효자로 떠올랐고, 이전 칩공급사는 반토막이 나 버렸다.
898	{웹전쟁3/7} 아이팟,아이폰의 프로세서를 삼성에서 사오던 애플은 아이패드출시부터 프로세서를 자체 설계. 삼성은 웹비지니스로 전략했으며, 애플은 TSMC이전을 진행중이다.
899	{웹전쟁4/7} 삼성-애플소송으로 소원해진 틈타 인텔이 애플A5웹 비지니스에 뛰어들겠다는 소문은 믿기어려우며, 일어난다면 반도체산업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반도체 탑2가 웹비지니스라니.
900	{웹전쟁5/7} 인텔-애플웹 실현이 어려운이유: 1.IBM계열 삼성웹을 웹장사해본적없는 인텔이 당장 넘겨받는건 불가능 2.아무리 인텔이 힘들어도 여분으로 1억개칩생산할만큼 웹이 높고있는다게 믿기어려움
901	{웹전쟁6/7} 반도체공정 업그레이드에하는데 소요되는 엄청난예산이 반도체업계의 발목을 잡고있다. IBM-삼성-차터드-도시바등은 공동으로 공정을 개발하지만, 인텔은 혼자거든.
902	{웹전쟁7/7} 미국내에 경쟁력있는 웹이 없다는 사실은 미국방부의 골치거리이다. 나는 인텔의 웹공개로 안보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지원을 노리는게아닌가 의심한다.
903	드رويد에 LBS분야 경쟁사인 스카이혹 탑재를 막기위해 구글이 모토롤라를 협박한사실이 밝혀졌다. 내가 오픈이 마케팅 용어라고 말했듯이 구글은 잘못없다. 속는사람이 바보지.
904	MS가 스카임을 무려 10조원에 인수했다. 아마도 윈도우폰과 결합하려는 생각이겠지. 문제는 VoIP가 더이상 새로운기술이 아니라는 사실. 4G에선 모두 다 VoIP다.
905	{헬름계곡1/3} 반지의제왕에서 악의세력에 밀린 로한왕은 모든 국민들을 헬름계곡으로 이동시키고 최후의항전을 준비한다. 왜 한곳에 모았냐고? 방어에 최선이니까. 클라우드서버도 마찬가지.
906	{헬름계곡2/3}최근 소니네트워크 해킹과 아마존 클라우드서버 다운으로 클라우드보안 우려높지만, 나는 역으로 보안문제때문에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본다.외부공략방어에 유리하니까.
907	{헬름계곡3/3}성벽이 높아질수록 진짜 무서운 적은 성안에 있는범. 클라우드 활성화되면 클라우드내에서 데이터 전송량 늘어나고, 클라우드 내부에서의 보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 Bozart said

908	{경고문} 현재의 한국교육시스템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 글을 읽지마라. 지금부터 교육카르텔에 관련한 글을 시리즈로 올리겠다.
909	{폭주기관차1/5} 미국에선 MIT 미디어랩 네그라폰테 후임디렉터에 대학중퇴자 선임. 한국은 등록금이 최대의 이슈.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난다.
910	{폭주기관차2/5} 사회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철도로 말하자면 중간에 정거장이 있어 얼마든지 경로변경가능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다. 탈.출.할수없다.
911	{폭주기관차3/5} 다수인력 통제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줄세우기다. 한국 교육시스템은 기득권보호를 위해 착한시민을 만드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담당하고있다. 교육과 기득권의 동거는 당연하다.
912	{폭주기관차4/5} 게이츠, 잡스, 쥘커버그, 페이지가 학교를 떠날수있었던건 기존교육 벗어나도 살수있는 사회적분위기때문. 교육시스템이란 철길을 이탈하면 목숨을 걸어야하는 사회가있다. 대.한.민.국.
913	{폭주기관차5/5}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이라는 폭주기관차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달리는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것뿐. 이탈자는 인생, 심한경우 목숨을 건다. 자살한 카이스트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914	{몰입교육1/5} 한동안 몰입교육이란 이름의 영어광풍이 불더니 대통령조차 영어몰입교육의 실패를 인정했다. 학생들을 교실에 처박아놓고 영어로 떠들면 다인줄알더니.. 인간은 돼지가 아니다.
915	{몰입교육2/5} 한국의 영어몰입교육이 안고있는 근본적문제는 외국어교육의 이중적인 면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새로운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언어를 이용해 학문을 교육하는 것.
916	{몰입교육3/5} 대한민국에서 영어몰입교육 혜택받을수있는 인간 10%. 영어몰입교육이 필요할만큼 영어가 필요한직업 10%. 90%는 시간낭비, 돈낭비, 인생낭비. 10%도 잘~봐준거다.
917	{몰입교육4/5} 모름지기 시스템설계 핵심은 최대의 효율을 얻는것. 뭐든지 영어로 한다는 영어몰입교육은 최악의 효율을 갖는 시스템이다. 바가지에다가 양동이를 물은 쏟아붓는격.
918	{몰입교육5/5} 솔직히 영어로먹고 사는 내입장에서 멸절한 자국어봐두고 학생-교수가 유치원 영어로 의사교환하는거보면 완전코메디. 그렇게 난리쳐서 영어해봤자 미국 홈리스보다 하류민이다
919	{창의적교육1/5} 세상을 혁명적으로 뒤집은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창업자들이 중퇴자라는건 우연아니다. 창업자들이 기존교육시스템이라는 철로에서 탈선했으니 그들이 만든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게 당연.
920	{창의적교육2/5} 창의적교육이 이뤄지는 대안학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온라인+오프라인. 이곳에서 기존 교육의 역할은 세상이라는 교재를 읽을수 있는 기본언어를 가르치는 것뿐.
921	{창의적교육3/5} 현교육이 창의적사고를 말살시키는 증거: 모두 내게 답을 찾는다. 아니 답만 듣고 싶어한다. 난 세상읽는법을 알려주고 나의 답을 예로 들 뿐. 당신질문의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안다.
922	{창의적교육4/5} 창조적교육이 모순인 이유는 교육의 최고의 목표가 기존질서 잘따르는 말잘듣는 대중만드는 것이기때문이다. 창의성은 금칙어다. 현존질서파괴와 동의어니까.
923	{창의적교육5/5} 창의적이라는건 남과 다르다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찾는 행위다. 당신이 찾은 대부분은 다른이들과 겹치겠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면 언젠가 나만의 새로운 무언가가 손에 잡힐것이다.

# Bozart said

924	{창의적교육6/5}사족: 대기업이 창의적인재 확보에 목매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곳에서 창의적인일을 저질러 자신들의 목을 조일확률을 줄이기위함이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은 무슨말이지 알거다.
925	{춘향전1/3} 춘향이가 이몽룡과 연애탈때 나이가 16세. 로미오와 연애탈때 줄리엣 나이가 14세였다. 지금 운명을 건 연애탈려면 10년더 등록금내고 학교다녀야한다.
926	{춘향전2/3} 예전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생활했지만, 학력인플레인 지금은 대학원은 나와야 사람구실한다. 흔해빠진 대학원졸업장받으려면 20대후반까지 학생신분. 사회가 학생좀비 양산하고있다.
927	{춘향전3/3} 늘어나는 교육기간과 교육비는 교육업계의 성공적인 마켓확장 덕분이며, 이는 교육계와 집권층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 권력유착면에서 미디어업계와 유사한 패턴 갖는다.
928	{모범답안1/4} 교육이란 철도시스템이다. 학제,커리큘럼은 철도노선이다. 학생들은 20년동안 모범답안이 존재하는 시험문제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답안지없는 시험문제란 사실.
929	{모범답안2/4} 나는 우리사회 특징인 획일성과 경직성의 근본원인을 구시대적인 교육시스템에서 찾는다. 과연 누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모범답안을 만들까? 그들은 왜 이런 답을 제시할까?
930	{모범답안3/4} 반란군은 제일 먼저 방송국부터 점령한다. 민심을 잡아야하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은후 쟈 먼저하는일은 교과서 바꾸는 일이다. 새싹들이 자라나 뒤통수 치지못하게.
931	{모범답안4/4} 모범답안과 인생공식이 강요된 교육과 사회시스템에서 길러진사람은 결국 모범답안대로 인생을 살게되어있다. 학창시절 당신과 당신친구들 인생목표가 동일했다는게 이상하지않은가?
932	{변화의시간1/4} 지난4년간 우리 삶의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아이폰은 이제 우리 의식구조마저 바꾸고 있다. 아이폰출시후 사람들은 그동안 불만없이 살던 경제사회시스템에 의문을 갖기시작한다.
933	{변화의시간2/4} 지난10년간 유지되어온 대기업중심의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균열조짐을 보인다. 거기저에는 속고살아왔다는 대중의 피해의식이 잠재되어있다.독이 무너지면 그시발점은 아이폰이다.
934	{변화의시간3/4}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다고? 꿈을갖는 것은 꿈도 꿀수없을만큼 사고를 고정시켜놓고 이제와 꿈을 꾸라고? 사회구조적으로 삶을 조이는 대한민국에 꿈이란없다. 현재까지는..
935	{변화의시간4/4}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가진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신의꿈을 펼칠수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나는 그때가 가까워짐을 느낀다. 그때를 준비하라.
936	{스마트폰1위?1/7} 다음질문을 받았습시다: "한국스마트폰 눈부신성장이란 기사봤습시다. 과연 삼성이 1위가 될수있을까요?" 답변보내드립니다.글자수제한으로 평서문씁니다.
937	{스마트폰1위?2/7} 첫째, 현재상황에서 스마트폰1위가 어떤의미가 있는지 따져야한다. 지금은 햅폰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던때와 다르다. 레드오션의 극치인 PC시장을 따라가는중.
938	{스마트폰1위?3/7} 둘째, 스마트폰이 PC시장을 따라가는건 기술적인 이유다. SOC의 발달과 구글OS전략으로 곧 시장을 장악할 안드로이드폰간에 차별성은 없다. 남은건 가격경쟁뿐.
939	{스마트폰1위?4/7} 셋째, 애플이 3%시장점유율 아이폰하나로 매출기준 노키아를 넘어 1위가 되었다. 이는 핸드폰 실제 판매가격이 추락하고있음을 의미한다. 이걸 시작일뿐이다.

# Bozart said

940	{스마트폰1위?5/7} 넷째, 애플은 3%점유율로 전체핸드폰시장 이익의 50%를 쓸어담고있다. 한 종류 폰만 팔기때문에 개발비,부품협상,재고관리(!)면에서 타회사들이 따라잡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941	{스마트폰1위?6/7} 다섯째, 핸드폰기계만 팔아 돈버는 다른회사와 애플은 수익구조가 자체가 다르다. 애플 에코시스템의 축인 아이튠스토어가 모든 제품을 기능,서비스,금전적으로 묶고있다.
942	{스마트폰1위?7/7} 결론: 언급한 기사는 갤럭시2출시에 즈음한 삼성띠우기로 큰의미를 두지않는게 좋음. 스마트폰자체시장에 집착을 버리고 넓고 복합적 마켓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함.
943	마보춘뉴스에서 살인사건 여과없이 방영사태로 본 방송의 역할 두가지: 1.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2.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서 다른 것을 못보게한다. 역시 MBC는 늘앞서간다.
944	{과학벨트1/8} 한동안 시끄럽던 과학벨트선정결과 발표보고, 예전 신도시선정 발표장면 떠오르는건 왜일까? '과학단지'란 단어대신 '아파트단지'를 치환해보면 감이올거다.
945	{과학벨트2/8} 과학벨트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비정상적으로 심하다. 우리동네서 노벨상 안나온다고 이렇게 서운해할리없지. 이사업의 핵심은 부.동.산.개.발.이다.
946	{과학벨트3/8} 최근 저축은행사태에서보듯 무분별한 부동산투자로 지방경제는 붕괴직전. 과학벨트명목으로 풀리게될 돈이 가뭄의단비였는데, 이게 날라갔으니 난리치는게 당연.
947	{과학벨트4/8} 과학벨트조성에 배정된 5.2조원의 예산중 상당부분은 땅고르고 단지짓는데 들어간다. 건물다짓고 과학기술개발해야할 때쯤되면 연구비/운영비는 다시 따내야할걸?
948	{과학벨트5/8} 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설비구매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몇배 더많이 든다는 사실은 한국에선 고려사항아니다. 건물앞에서 사진찍는게 중요하거든. 전국에 난립한 나노센터 벌써 잇었지?
949	{과학벨트6/8} 새건물로 이사가면 연구 더잘되나? 연구원에겐 한창 연구하는 중간에 이사가는 것만큼 싫은게없다. 같은자리,같은환경이 유지되어야한다. 안도와취도 좋으니 일좀하게 내버려두지.
950	{과학벨트7/8} 진정 과학기술계위한 사업의지있었다면, 그돈으로 수많은 고학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었어야지. 연구는 시멘트건물이 하는거 아니다. 사람이 하는거다.
951	{과학벨트8/8} 결론: 예전엔"과학기술계의 숙원인.."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젠 과학기술계 숙원조차 없는듯. 과학벨트? 과기인과 관계없는 이권사업의 종합선물셋트일뿐.
952	{발사대1/7} 영어에 launch pad라는 표현있다.원래 로켓발사대인데, 짤릴사람을 일컫는 속어. 요즘 IT업계에 launch pad오른 CEO들이 많다. 다음은 누굴까?
953	{발사대2/7} 인텔프로세서 탑재된 스마트폰이 2012년 출시된다고 CEO께서 호언. 어떤 OS가 탑재될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참,MS는 차기윈도우 ARM지원한다고 공언했다.
954	{발사대3/7} 인텔의 폴오텔리니 CEO는 구글의 프래그먼트 문제와 오픈정책의 비현실을 지적. 맞는말이긴 한데, 그 의도가 뭐냐가 중요. 스마트폰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955	{발사대4/7} 인텔은 삼성-애플 특허전쟁시작하자 삼성이 만드는 애플A5의 위탁생산 가능성을 흘렸다.인텔의 파운드리사업은 기술적,비즈니스적으로 현실성없다.더구나 애플은 세계1위 TSMC와 작업중.
956	{발사대5/7} 인텔의 자다가봉창식 장미빛 립서비스 내놓는 이유는 명백하다. 폴오텔리니가 궁지에 몰린거다. 현재 실적이 문제가아니다. PC시대에서 모바일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가 안보이는게 문제.

# Bozart said

957	{발사대6/7}인텔이 모바일시대에 대비하지않은건 아니다.혹시 UMPC라는 괴물PC를 기억하는지.. 근본적문제인 기존아키텍처를 버리지못한게 패착.이건 기술적문제가 아닌 정치적문제다.
958	{발사대7/7}인텔은 빙하기시대를 맞는 공룡의 처지. PC시장은 죽어가는데, 떠오르는 모바일시대 경쟁력이 없다. 이제 이사회는 선택은 한가지뿐. 폴호텔리니는 자신이 launch pad에 올라있다는걸 안다.
959	{아이폰언제나오나1/8} 경남일보 (@gndomin) 님의 "아이폰5(혹은 4s)가 언제 출시될 것 같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서문을 쓰는점 이해해주세요.
960	{아이폰언제나오나2/8} 도대체 왜수많은 출시시기 루머가 돌아다니는걸까? 한두달 늦게나오는게 뭐그리중요한가? 참고로 2007년 아이폰1부터 지금까지 출시시기는 1달내에서 변한적없다.
961	{아이폰언제나오나3/8}애플의 모바일제품의 출시사이클이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월 아이패드, 6-7월 아이폰, 9월 아이팟. 여기에 1월의 CDMA가 정규사이클에 추가될지는 미지수.
962	{아이폰언제나오나4/8}미안하지만 애플제품사이클의 축은 아이폰아니라 아이팟이다. 아이팟 9월출시는 최대대목 크리스마스 대비. 가을 개학에맞춰 재고정리차원에서 아이팟무료로 뿌리는이유.
963	{아이폰언제나오나5/8} 만약 아이폰출시가 늦어진다면 이유는 핵심부품 수급차질인데, 4S라는 이름루머에서보듯 하드웨어측면에서 이번 업데이트는 크지않을것이다. 내가 출시연기가능성 낮게보는 이유.
964	{아이폰언제나오나6/8}나는 애플이 아이폰 새모델에대해 입다무는 이유를 NFC에의한 무선지불 때문으로 본다. 새아이폰에 NFC를 장착할지 아닐지 매우 중요.이게 출시보다 백배중요.
965	{아이폰언제나오나7/8}또하나 주목할점은 곧공개될 iCloud와의 연동.'라라'인수에따른 강력한 스트리밍기능 포함 예상. 이경우 iCloud 먼저 발표하고 아이폰발표하는게 순서.
966	{아이폰언제나오나8/8}나는 새아이폰 6월중 공개 늦어도 7월중 판매개시할것으로 예상. 그래야 애플 제품출시사이클이 정상작동하니까. 부품수급 안되 아이패드2처럼 품귀현상나도 일단 출시한다고봄.
967	{아이폰언제나오나9/8}사족: 의도했던 안했던 아이폰 연기에대한 수많은 자기복제기사들은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인식 부정적영향을 준다. 사실을 보자면 아이폰출시는 한번도 연기된적없었다. 설사 몇 달 연기된들 그게 뭐대수인가?
968	오바마미대통령의 뜬금없는 팔레스타인 옹호정책으로 국제긴장이 고조되고있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며칠전 읽었던 국제기름값이 추락한다는 기사가 떠오르는건 왜일까?
969	{나의미디어읽는법1/9} @sshtel 님의 "미국의 IT 관련 온라인 미디어(신문,잡지,컬럼 등)은 무엇을 보시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평서문쓰는점 이해해주세요.
970	{나의미디어읽는법2/9} 꽤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미디어를 보는지 물어본다.내가 쓰는 글의 관점이 특이한경우 많기때문이겠지. 솔직히 나는 남이 쓰는글 잘안본다.
971	{나의미디어읽는법3/9} 내가 남의 글을 전혀안볼수는 없지만, 나는 철저히 주관적인의견 배제하고 팩트만 취한다. 여러분이 내글이 다른글과 다르다고 느꼈다면, 이게 그이유다.
972	{나의미디어읽는법4/9}내가 보는 매체는 구글뉴스다. 이외에 WSJ 월터모스버그와 NYT 데이빗포그 칼럼을 가끔본다. 그들은 신제품출시전 먼저 써보고 나름 공정한 사용기를 올리니까.
973	{나의미디어읽는법5/9}낚시꾼은 물고기잡기전 물고기무리를 찾는다. 나는 구글뉴스에서 뉴스가 쏟아지는 흐름을 본다. 특정주제의 관련기사 갯수도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좋은정보다.

# Bozart said

974	{나의미디어읽는법6/9} 동일사안에 대한 여러매체의 기사들을 비교한다. 기사들간의 차이점 (대개 주관적 생각) 제거하면 순수한팩트만 남는다. 이게 Bozart식 기사정제법이다.
975	{나의미디어읽는법7/9} 세상모든것은 연결돼있다. 독립적인뉴스는 천재지변과 자동차사고뿐이다. 나는 정제된팩트에 내가 쌓아놓은 복합적지식과 경험(기술적,사회적)간의 인과관계를 찾는다.
976	{나의미디어읽는법8/9}기술적이해가 결여된 기사가 선정적제목으로 클릭 유혹하고, 다시 타매체가 받아서 확대재생한다. 부동산뺏다방과 유사한 에코시스템. 안테나게이트가 대표적예.
977	{나의미디어읽는법9/9}평생 기술동네에 몸담은 입장에서, 기술적이해가 결여된 낚시성기사에 일희일비하는 대중들의 쓸림현상을 보는것이 안타까울뿐이다. 그래서 글을 쓴다.
978	{스트롱암1/8} 요즘 인텔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은 느낌이다. 지들이 무슨 삼성이라고. 지금부터 IT역사를 바꾼 인텔의 닭질얘기를 해주겠다. 인텔이 망하면 이거때문인줄 알라.
979	{스트롱암2/8} 2011년5월. 현재: 인텔CEO 폴오텔리니는 2012년부터 인텔프로세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출시된다고 호언장담한다. 자, 이제 필립을 거꾸로돌려 8년전으로 돌아가보자.
980	{스트롱암3/8} 2003년 인텔은 DEC의 StrongARM부서를 사들여 Xscale시리즈를 내놓는다. 타겟은 PDA와 모바일폰용. 그때 인텔은 모바일용 ARM프로세서를 팔았다!
981	{스트롱암4/8} 2005년 CEO취임한 폴오텔리니는 이듬해 만명을 짜르는 사상최대 구조조정단행. 정리된부서에 모바일용 임베디드프로세서 StrongARM포함. 죄목:돈먹는하마
982	{스트롱암5/8}2006년 인텔이 모바일부서정리한다는 소식들은 내척마디: 미.친.놈.들. 당시 인텔의 고객이 블랙베리였다. 인텔은 아이폰출시직전 ARM기반 모바일프로세서를 죽였다.
983	{스트롱암6/8}인텔ARM부서폭파가 정치적살해였다는건 기다렸다는듯이 아톰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아톰은 인텔PC프로세서의 저성능(좋은말로 저전력) 버전이거든. 싸구려넷북 떠올려라.
984	{스트롱암7/8}인텔은 이렇게 항변한다: "모바일 변성할수록 클라우드용 서버수요 늘어날것" 맞는말이긴한데, 서버도 ARM의 공격받는중. 이젠 데이터센터 전력소모가 최대 골치거리거든.
985	{스트롱암8/8}인텔 CEO왈 "우리는 PC시장이 성장을 멈출것으로 생각하지않는다" 미안하지만 저작권침해다. 에이서 컴퓨터사장이 이 얘기했다가 이사회에서 짤렸거든.
986	{스트롱암9/8}사족:인텔이 구렁텅이에 빠진건 윈텔에코시스템때문. 앉아서 돈벌리니 다들 입만갓고 먹고사는 정치판된거다. 모바일시대가 울줄 알면서 ARM부서를 정리하다니..쫄쫄
987	{핸드폰얼마라구1/9}핸드폰이 실제 얼마에 팔리는지 며느리도 모른다. 입도선매로 캐리어에 멩텅이로 파니까. 수출물량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추정해봤다.
988	{핸드폰얼마라구2/9}asymco에 따르면 올해1Q에 애플 5%점유율로 핸드폰시장이익 55%먹었다. 엉뚱하게 나는 이 자료토대로 핸드폰단가를 추정해봤다.결과에 놀라지마라.
989	{핸드폰얼마라구3/9} 먼저 애플. 11Q1에 1천8백만대 아이폰팔아 점유율5%, 매출 \$12.3B (전체 20%). 영업이익률 40%. 대당판매가는 \$680로 나온다.
990	{핸드폰얼마라구4/9} 삼성은 7천만대팔아 매출은 \$10.6B, 대당판매가는 150불. 그중 1천만대가 스마트폰. 내맘대로 스마트폰 500불,피쳐폰100불잡으면 대충맞는다. 한국내 삼성폰 가격이 얼마지?
991	{핸드폰얼마라구5/9} 노키아 11Q1에 1억1천만대팔아 매출 \$10.5B. 대당판매가는 \$100. 그중스마트폰 2천4백만대. 도데체 계산이 안나온다. 스마트폰200불,피쳐폰 60불에 팔면대충 맞긴하는데.

# Bozart said

992	{핸드폰얼마라구6/9} 나는 총매출을 핸드폰판매수로 나눠서 계산했는데, 혹자는 매출시점과 판매대금입금사이 시간때문이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애플처럼 매출이 두배로 늘어난 경우에 만 해당.
993	{핸드폰얼마라구7/9} 제조업체 최대이익은 구매부가 창출한다. 부품회사 조지는게 그들 업이거든. 언론에 뿌려지는 부품가격기준 핸드폰원가추정은 지나치게 부풀려있다고 본다.
994	{핸드폰얼마라구8/9} 내 추정가격의 절대값이 틀렸다고해도, 아이폰과 노키아폰간의 7배의 상대적 가격비는 꽤 신빙성있다고 본다. 기존 핸드폰회사는 캐리어에게 백만대단위로 파니까.
995	{핸드폰얼마라구9/9} 삼성이 노키아보다 1.5배 비싼건 삼성폰 금태들러서 그런거아니다. 국내에서 90만원에 날개돋힌듯 팔린 갤럭시가 미국에선 출시되자마자 아마존에서 1센트에 팔렸다.뭔 소린지 알겠지?
996	{등록금1/4} 요즘 1천만원에달하는 등록금이 이슈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나는 대학교육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등록금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계층분화를 촉진할 것이다.
997	{등록금2/4} 대학정원은 학생수를 능가하니 학생수는 한정되었는데, 정부지원받기위해 교원 왕창뽑고 건물짓느라 비용은 증가. 대학이 할수있는건 소수 학생들에게 최대한 돈을 짜내는것 뿐.
998	{등록금3/4} 교육도 비즈니스다. 적은비용으로 최대이익창출해야한다. 소요비용측면에서 1천만원받고 학생 1명 받는것이 유리할까, 5백만원씩에 학생 2명 받는것이 유리할까?
999	{등록금4/4} 이정도 등록금이면 대학포기계획이 진작 형성됐어야했는데, 한국인의 교육집착은 지독하다. 그래도 결국은 중산층붕괴와 영구적계층분화의 길을 걷게될것이다.
1000	{천트윗돌파1/6} 2010년10월21일 시작한 내 글이 1000개를 돌파했다. 딱 7개월만이다. 처음 예상은 2년은 걸릴줄알았는데..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소리.
1001	{천트윗돌파2/6} 2007년여름 아이폰구입후 노트북안들고 퇴근해도 아무 문제없단걸 깨달은순간 나는 매트릭스를 빠져나온 네오와 동일한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1002	{천트윗돌파3/6} 2011년1Q 애플은 노키아누르고 핸드폰시장 1위를잡았다. 애플스토어매출은 넣지도않았다. 나는 이렇게될 것을 4년전부터 한국사회에 경.고.해왔다. 그랬더니 나를보고 애플빠란다.
1003	{천트윗돌파4/6} 애플은 아이폰 단한개 모델과 4%시장점유율로 전체 핸드폰시장이익의 55%를 먹었다. 지난 4년간 내말을 듣지않던 그들은 지금 무슨생각을 하고있을까?
1004	{천트윗돌파5/6} 아이패드느 태블릿시장 82%먹고있고 수백종 태블릿 출시대기중.나는 철저한 기술-경제-사회적관점에서 PC시대끝난다고 예상했을뿐.내가 글로 먹고사는 사람아니라고 분명 말했다?
1005	{천트윗돌파6/6} 내가 왜 아까운 내시간써가며 당신에게 글을쓰고 소통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다면, 예전 내가 쓴글 읽어보기바란다. 제목은"해변의여인" <a href="http://bit.ly/jqwT8S">http://bit.ly/jqwT8S</a>
1006	{어느박사과정의고민1/9} 모대학박사과정이 자신의고민을 보내왔습니다. 그의고민이 우리시대 젊은이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이라, 답을 이곳에 올립니다.평서문쓰는점 양해바랍니다.
1007	{어느박사과정의고민2/9} 현상황: 회사다니다 박사과정입학. 연구와 관계없는 잡일성프로젝트에 치임. 열심히 논문써가면 교수가 면박. 졸업은 언제일지 알수없는데 어느덧 나이는 30.
1008	{어느박사과정의고민3/9} 우선 박사과정을 들어온 동기가 희미하다. 남들다하니까. 취직하고 장가가려면 스펙올려야하니까.. 하지만 속내는 바깥세상에대한 도피가 아니었을까?
1009	{어느박사과정의고민4/9} 한국대학원문화는 미국과 유럽의 나쁜점만 골라따왔다.뭔소리냐면 교수편한쪽으로만 발전해왔단얘기. 한국에서 교수의 사회적위상이 지나치게 높기때문.

# Bozart said

1010	{어느박사과정의고민5/9}상당수 대학원생의 착각은 연구를 누군가 가르쳐줄거라는 기대. 20년간 정해진 커리큘럼과 평가에 익숙해왔으니..연구에 정도는 없다.스스로 길을 찾아라.
1011	{어느박사과정의고민6/9}연구란 남이 하지못한걸 하는 것. 자신에맞는 연구법을 찾아야한다. 박사과정에선 뒤흔느나보다 어떻게했냐가 중요. 연구결과? 2년지나면 99%쓸모없다.
1012	{어느박사과정의고민7/9} 교수가 따오는 프로젝트로 논문을 제조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후세에 남을 연구결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 버려라. 현시스템에 맞춰 논문 많이 쓰는게 장땡.
1013	{어느박사과정의고민8/9} 논문퀄리티에대해서만큼은 교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라.교수가 당신 미워서 그러는거 아니다.부족해서그런다.남의 비판 수용하는법 배우는게 인생에서 중요.
1014	{어느박사과정의고민9/9}결론: 마인드가 문제다. 세상보는 시각바꾸고, 의존에서 벗어나라.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듯이 논문써서 도망가라. 대학원준비되지않으려면.
1015	{압박축구1/8}나는 트위터 타임라인을 소셜판 서브리미날리즘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서브리미날효과} 를 먼저 읽어보라 -> <a href="http://bit.ly/jB41cw">http://bit.ly/jB41cw</a>
1016	{압박축구2/8}압박축구란 말이다. 강력한체력을 바탕으로 중원을 점령하는 전략. 트위터 타임라인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거게임의 미드필드가 되고있다.
1017	{압박축구3/8}당신이 지켜워서 무시하는 반복적인 정치멘션들은 당신이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한다. 내가 정의한 디지털서브리미날의 대표적 예이다.
1018	{압박축구4/8}대한민국 트위터의 정치적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집권층이 인식하고있는지 잘모르겠다. 지난번 선거에서보듯 정치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1019	{압박축구5/8}우리가 트윗에 열광하는이유는 철새가 쉼곳찾아 떼지어 이동하는것과 같다. 대중이란 애니멀은 미디어가 통제되어 마음놓고 듣고말할곳 없다는 현실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있다
1020	{압박축구6/8}트윗의 정치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번째 방법: 자기쪽 유리한 멘션 많이 올리는 육박전. 트윗애용하는 사람들 성향이 원래 그렇기때문에 큰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봄.
1021	{압박축구7/8}트윗의 정치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두번째 방법: 늘 쓰던 방법. 뭘소리냐고? 꼬투리잡아 시범케이스로 조지는거지. 한놈만 조지면 잠잠해진다. 대중이란게 원래 그렇다.
1022	{압박축구8/8}SNS의 정치적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마음놓고 말할수있는 곳이 이젠 이곳밖에 없기때문이며,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곳도 정리되라는 것을 의미한다.
1023	{e지갑삼국지1/8}드디어 구글이 NFC기반 안드로이드용 e지갑솔루션을 발표했다. 우선 내가 전에쓴 {지갑전쟁} 읽어보라 -> <a href="http://bit.ly/kyy7qh">http://bit.ly/kyy7qh</a>
1024	{e지갑삼국지2/8}이번 e지갑솔루션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상은 구글이 아니라 파트너사 First Data이다. 사실 말은안했지만 나는 구글이 몇일날 발표할지도 알고있었다.
1025	{e지갑삼국지3/8}First Data가 SK C&C와 모바일 페이먼트관련 공동프로젝트하는 사실은 국내에 잘알려져 있지않다. 아마 First Data위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리라.
1026	{e지갑삼국지4/8}First Data는 전세계 신용거래의 75%를 점유하고있다. 당신이 신용카드 사용한 돈의 반이상 이회사서버를 거쳐간다. 돈을 흐름을 쥐고있단 얘기.
1027	{e지갑삼국지5/8} 구글-First Data의 e지갑솔루션발표직후페이팔이 기다렸다는듯이 소송했다는 사실은 향후 금융거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028	{e지갑삼국지6/8}애플은 내가 이미 언급한데로 아이폰과 아이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것이다. 아이튠은 이미 개인컨텐츠뿐 아니라 금융의 허브역할을 하고있다.
1029	{e지갑삼국지7/8}미국 전자상거래의 세축은 구글-애플-아마존이다. 문제는 아마존. 자체 모바일플랫폼이 없다는게 가장 큰 고민. 결국 MS,페이팔등과 연합전선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 # Bozart said

1030	{e지갑삼국지8/8} 강건너볼구경 아니니까 얘기해준다. First data가 한국 전자결제시장에 들어 올 준비하고있거든. 일반인들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없으니 그냥 그런줄 알면됨.
1031	{내가책안쓰는이유1/6} 지난 수년간 Bozart이름으로 글쓰면서 많은분들이 내가 왜 책내지않는 지 의아해한다. 이에 대한 나의 변이다. 우선 나는 책쓰기엔 너무 바쁘다.
1032	{내가책안쓰는이유2/6} 나는 인간자체가 컨텐츠이며 책은 인간의 생각을담는 오래된 그릇중 하나로 본다. 우리는 기술의발달로 다양한종류의 그릇을 선택해 쓸수있는 시대에 살고있다.
1033	{내가책안쓰는이유3/6} 나는 글만으로 내생각을 불특정다수(독자)에 전달하는데 한계느꼈다. 그래서 오프라인강연을 시작했다. 일반강연과는 전혀다르니 공연에 가깝다고 할까.
1034	{내가책안쓰는이유4/6} 내게 책쓰라는건 현대전쟁터에 칼과 창 들고 싸우란 소리다. 기관총, 대포, 미사일.. 이런거 쓰면 반칙인가? 안쓰는게 바보지. 근데 이게 교육의 현실이거든.
1035	{내가책안쓰는이유5/6} 내 공연에서는 내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의기억에 오래남게 하기위한 모든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스토리, 음악, 영상, 이미지, 인터랙티브..
1036	{내가책안쓰는이유6/6} 애들은 레고조각을 모아 빌딩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든다. 내가 트윗에 던지는 글은 내 생각의 레고조각이다. 때가되면 시키지않아도 레고조각 모아 책쓸거다. 것도 아주 많이.
1037	{6/18강연프리뷰1/6} 내가 두번째강연 "3M"을 준비하며빠진 딜레마는 어디까지 내용을 알려주어야하는가이다. 일반강연아닌 공연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미리 알면 임팩트 떨어지고, 너무 안 알려주면 관심이 적고.
1038	{6/18강연프리뷰2/6} 나의 강연을 관통하는 큰흐름은 전보다 나은 내가 되기위한 세상을보는 법이다. 내 강연은 크게 4단락으로 나뉘진다. 첫째 원리의 제시, 둘째 원리의 전개, 셋째 SNS기반 인터랙티브 세션, 넷째 세상보기 및 마무리.
1039	{6/18강연프리뷰3/6} 이번 강연에 사용할 텍스트는 2008년 경제위기를 다룬 금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수상작"인사이드잡"이다. 우리의 영웅 제이슨본.멧데이먼이 나레이션맡았다. 아! 백투터뷰쳐 얘기도 잠깐 나온다.
1040	{6/18강연프리뷰4/6} 나는 인사이드잡의 내용을 설명하려는게 아니다. 이 영화의 프레임을 재 해석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원리를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가 재밌으니 보면 좋겠지만, 못봐도 상관없다.
1041	{6/18강연프리뷰5/6}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사운드트랙외에 강연중 배경음악으로 내가 직접 믹스한 음악을 쓸생각이다. 샘플링한거 가져다 쓰는 수준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이 판단.
1042	{6/18강연프리뷰6/6} 끝으로 지난번 강연에서 가장 호평받은 인터랙티브세션을 이번엔 좀더 밀도있게 추진할생각이다. 참석하시는 분은 트윗계정 꼭 하나씩 만들어오기바란다. 준비하는 나도 무척 기대된다. CU@Seoul!
1043	{동물의왕국1/7} 짐승같은 놈이란 말이있다. 내가보기엔 거시적관점에서 인간의 문명사회란 동물의 군집시스템운영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인간을 과대평가하지말라.
1044	{동물의왕국2/7} 나는 누군가 인간을 동물들과 다른 우월한존재라고 말할때마다 심한 역겨움을 느낀다. 거시적관점에서 당신도 동물이고, 우리 사회는 정글일뿐이다.
1045	{동물의왕국3/7} 멸종위기 사슴 보존위해 정부가 맹수를 없앴다. 초기에 숫자가 불어났지만, 먹이가 부족해지자 자기들끼리 치고만다 원래 숫자로 돌아왔다. 한국출산율세계최저라며?
1046	{동물의왕국4/7} 출산율저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현상. 지나친 경쟁, 교육비, 양육비를 감당할수없다. 지금 인간사회는 자동 개체수 조절시스템이 작동중이다.

# Bozart said

1047	{동물의왕국5/7} 동물군집이 개체수를 자가조정하는 세가지방법: 전쟁.기아.저출산. 한동안 큰 전쟁없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니 고통분담형인 스트레스성 저출산으로 가는중.
1048	{동물의왕국6/7} 출산율의 저하, 즉 출산의지의 상실은 결혼/가족이라는 전통적사회의 세포단위를 무너뜨린다. 여기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공황이 시작된다. 나는 왜사는가?
1049	{동물의왕국7/7}사회를 지탱하던 가족과 결혼의 위상하락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게된다. 이 틈새를 SNS가 파고들고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있으면 덜 불안해지니까.
1050	{고릴라글래스1/6}삼성이재용사장이 라이벌 LG화학에 축하화분보낸 훈훈한기사보다 올1분기 삼성과 LG의 LCD부분실적이 2천4백억적자라는 사실발견. 나만 모르고 있었나?
1051	{고릴라글래스2/6}아이폰, 드로이드등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중하나가 유리관결 아는사람은 많지않다. 코닝의 고릴라글래스라는 강화유리제품이 비싼가격에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1052	{고릴라글래스3/6} 삼성코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삼성의 딜레마. 삼성LCD와 핸드폰은 경쟁에 치이는데 유리공급하는 코닝은 콧대가 하늘.
1053	{고릴라글래스4/6} 코닝입장에선 아이폰, 드로이드등에 자기제품 들어가니 대형고객 위주로 배짱튀기며 장사할수밖에. 여기에 불맨 삼성의 LG러브콜 성사가능성이 높은것.
1054	{고릴라글래스5/6} 현대 IT및 가전시장에서 승패는 부품수급에서 이미 갈려버린다. 이것은 축구에서 중원을 지배하는 팀이 승리하는것과 같은이치다. 애플이 부품싸움이한다는 내말 실감나지?
1055	{고릴라글래스6/6} 또하나 우리가 주목할점은 LCD의 어마어마한 공급과잉. 더꿀때리는건 지금도 계속 공장짓고있다는 사실. 생활의 지혜: TV는 좀 기다렸다 사라.
1056	{SK개혁1/6}나는 4월강연에서 캐리어가 가야할방향 이렇게 제시했다 "컨텐츠등 새로운사업 시도 바람직, 가입자묶어두고 돈빨아먹는 방식버려라" 전문-> <a href="http://bit.ly/mgiYV2">http://bit.ly/mgiYV2</a>
1057	{SK개혁2/6} SK가 플랫폼부분을 통신과 완전분리하는 개혁단행. 이제 플랫폼부분은, 통신사업그늘에 벗어나 SNS기반 컨텐츠사업을 자유롭게 추진. 정확히 내가 지적한 방향.
1058	{SK개혁3/6} SK개편의 숨겨진 포인트는 SK C&C가 FDC와 함께 추진하는 모바일전자결제사업. 모바일지불은 미래 금융인프라의 새로운 축이 될것. SK는 맥을 제대로 짚었다.
1059	{SK개혁4/6}방법이야 어찌됐든 SK는 안정적수익기반갖는 인프라사업진출에 강하다. 기존의 에너지,통신에 이어 컨텐츠와 금융인프라 확장에 성공하면 더이상 삼성부러워할일 없을듯.
1060	{SK개혁5/6} 이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건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장된 KT근황. 사장님이 뭔가 발표하긴했는데 중구난방. 쪼이니까 그냥하던거 굶어모은느낌. 핵심이 안보인다.
1061	{SK변혁6/6}KT얘기는 나중에 따로하겠지만, 소프트뱅크와 한다고 설레발치는 클라우드사업 딱한마디만 하자. 클라우드 어디 위치하는게 뭐그리 중요한가? 한국회사도 아마존 쓰거든.
1062	{납량특집1/8} 공포영화에서 관객은 공포의실체가 나타나기전 두려움 느끼다 막상 정체가 드러나면 급실망한다. 인간이 보이지않는 위협에 더큰 공포느낀다는 사실은 미디어는 잘안다.
1063	{납량특집2/8} WHO가 핸드폰이 암유발할수 있다고발표해 시끄럽다. 핸드폰 최대출력 4W. 당신이 효도한답시고 부모님 사드린 전기담요출력은 30배. 이런 불효자가 있다.
1064	{납량특집3/8}혹자는 핸드폰전자파가 전자렌지처럼 머리 데운다고 주장. 사우나가면 당신 머리통 온도 몇배 더 올라가거든. 차라리 대머리가 늘어난다고하면 믿겠다.
1065	{납량특집4/8}한국서 방사능공포로 이정도난리면 일본에선 수천명사망했어야정상.사상최악 체르노빌사고 피폭사망자 28명.후유증3명.체르노빌피해보고서 <a href="http://bit.ly/iL2ydo">http://bit.ly/iL2ydo</a>
1066	{납량특집5/8} 미кус서 땅콩알러지로 죽는사람수 한해 50명.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몇명? 미국산 고깃집안간다고 자랑마라. 설령탕은?갈비탕은?육회는? 회식가서 미국산이면 도로나올래?

# Bozart said

1067	{납량특집6/8} 사회적공포는 다음 세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엄습한다: 1.주류언론의 뉴스 2.그 뉴스 인용한 블로그,인터넷 3.그블로그,인터넷 본 친구의 공포에 찬 목소리.
1068	{납량특집7/8} 대중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공포심을 불러넣는 것이며, 이게 현대미디어의 특기다. 공포는 클릭을 낚고, 클릭을 돈을 부르거든.
1069	{납량특집8/8}여러분이 두려워해야할 진짜 공포는 누군가가 조작된 공포로 당신의혼을 빼앗으려한다는 사실. 당신의생각이 누군가에게 조종받고 있다는것..섬뜩하지않은가?
1070	{악몽-프롤로그} "엔지니어는 빌딩을 짓고 물건을 만들지만, 금융엔지니어는 꿈을 만든다. 문제는 그 꿈이 악.몽.이라는 것이다" - 인사이드 잠 중에서 -
1071	{악몽-한국1/5} 무디스와 WSJ이 잇달아 한국의 천조 넘는 가계부채 경고. 내가 걱정하는건 가계부채 아니다. 왜 그들이 지금 입을 맞춰 경고 신호를 보내는가이다.
1072	{악몽-한국2/5}최근 이유없는 원화강세가 이어지고있다. 이런 쟁장. 곧 한국출장가야하는데. 한국증시의 외국인매도에 이은 원화강세가 가리키는 것은 한가지: 먹.튀.
1073	{악몽-한국3/5}정부는 작년 환율방어에 5조원사용.이돈은 장부상존재하는 주식/부동산 평가 손실이아닌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낸 세금,연기금이다.이걸 환투기꾼 호주머니에 꽂아준 것.
1074	{악몽-한국4/5}외국자본은 먹튀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한국투자회수-달러환전@원강세-부동산추락@금리인상-원화로환전@달러강세-한국자본혈값인수@자산추락..그리고 도돌이표
1075	{악몽-한국5/5}연일 언론에서 금감원 작살내는 시점에서 드는 2가지의문 : 1.금감원이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나쁜놈이 된건가 2.금감원이 폭파되면 그자리는 누가 채울까.
1076	{악몽-미국1/5}최근 미국경제지표에 빨간불켜졌다.우려하던 부동산 더블딕현상 확실해짐. 무차별 달라찍어 겨우막은 반창고가 떨어지려는 조짐. 2008년위기는 현재진행형.
1077	{악몽-미국2/5}미국은 페이스북,징가,링크드인등 SNS분야 문지마 투자붐일고있다.제대로된 수익구조없는 기업에 엄청난돈 몰린다는건 정상아니다. 문제는 처음아니란 사실.
1078	{악몽-미국3/5}나는 페북 마크쥬커버그볼 때마다 넷스케이프 창업자 마크안드리슨이 생각난다. SNS붐은 20년전 인터넷버블과 동일한패턴 보인다. Nerd의 영웅만들기까지.
1079	{악몽-미국4/5}최근 페이스북은 시티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월가의만행 시티은행은 페북이용해 신종버블을 키우는 중. 그들은 절.대.손해보는 게임 안한다.
1080	{악몽-미국5/5}나는 실물경기및 부동산하락과 완전 디커플된 비현실적인 SNS투자붐을 매우 우려한다. 재선에 발목인 오바마는 여느 미대통령처럼 이상황에서 손댈방법이 없다.
1081	{악몽-재현1/5} 2008년 불량채권에 AAA등급매긴 금융위기 일등공신 3대신용평가기관(무디스,S&P,피치)은 청문회에서 "우리가 내린 평가는 그저 참조용 의견일뿐"이라고발뺌.
1082	{악몽-재현2/5} 인터넷버블때 자기들끼리 쓰레기주식이라고 판정한주식을 최고등급추천한 애널리스트들의 변명, "너무 말도안되는 얘기라 아무도 안믿을거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믿었지?
1083	{악몽-재현3/5} 월가에코시스템구성원들은 일사분란하게 각자임무를 충실히수행하고, 한번 폭탄투여에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다각적으로 수익챙긴다. 그들은 시장이 붕괴해도 떼돈번다.
1084	{악몽의재현4/5}버블터지는건 자연의법칙이지만, 언제 터질지는 FRB가 결정. 그리고 그뒤에는 월가있다. 불현듯 뉴욕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IMF총재가 떠오르는건 왜일까?
1085	{악몽의재현5/5} 내가 궁금한건 언제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이다. 오바마는 2012년 미대선 전까지는 간쓸개 다빼주며 막을거다. 혁 미대선후면 한국은 대선 1년전인데..?!
1086	{악몽-에필로그} 내가 만약 한국에있는 외국자본이라면 나는 한국을 떠나지않고, 계속 장난치며 놀거다. 내가 태어난 고향을 왜떠나냐. 읍스! What did I say?

# Bozart said

1087	{미디어숨바꼭질1/5}미디어에대해 오해하지말아야할 것: 그들이 절대 없는말 만들어내지않는다. 다만 있는 사실을 확대포장하여 대중의 관심끌어낸다. 미디어는 정보의 2차산업이다.
1088	{미디어숨바꼭질2/5}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뉴스가 쏟아진다. 다른 저축은행들은 문제가 없나? 찬물로 세수한번하라. 이사태의 핵심은 PF에의한 부동산버블붕괴 가능성대두였다.
1089	{미디어숨바꼭질3/5}미국CNN에 선정적인사건 하루종일 다루는 낸시그레이스라는 프로가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건공통점: 섹스+살인+미스테리. 오늘 뉴스보니 우리도 머지않았군.
1090	{미디어숨바꼭질4/5}미디어의 또하나의역할은 대중들이 울분에 차있을때 매맛을 곳 찾아주기. 일본 지진대책부위원장이 림싸롱접대 뉴스보고. 우리나라 얘기아니니 오해마라.
1091	{미디어숨바꼭질5/5}저축은행문제가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축은행만 조지는 걸보니,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아직도 견딜만한모양이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수없다.
1092	{발암물질1/7} 나는 {납량특집}에서 WHO의 핸드폰의 발암물질포함과 미디어의 공포드라이브를 다뤘다. <a href="http://bit.ly/mdFcP5">http://bit.ly/mdFcP5</a> 지금부터 더 실감나게 해주겠다.
1093	{발암물질2/7}WHO산하 IARC는 최근 핸드폰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미디어가 이떡밥으로 두고두고 대중을 현혹할 것뻔하기 때문에 WHO의 발암물질리스트를 여러분께 공개한다. 놀라지 마라.
1094	{발암물질3/7} 핸드폰이 속한 2B는 3번째위험등급으로 암 유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 그룹엔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와 아시아식피클-단.무.지.가 포함된다.
1095	{발암물질4/7} 영예의 1등급은 암발생시키는 증거확실한 경우. 술,담배는 당연하고 동양식 소금절인 생선. 여기에 화장품, 사탕, 후라이팬코팅에 쓰는 미네랄오일 포함. 정신이 바짝들지?
1096	{발암물질5/7}난 그렇게 안살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건강염려증을 비난하진않는다. 다만 걱정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걱정하란얘기다. 물론 그래봤자 현대사회에서 피해갈 방법은 없지만.
1097	{발암물질6/7}저녁귀가 늦었네.화장지우는동안 보채는 아이 사탕 물려줬다. 조기를 후라이팬에 맛있게 튀겨 소주걸들여 먹은 후 남편과 커피마시며 뉴스에서 본 핸드폰 발암얘기해야지.
1098	{발암물질7/7} 사족. 유럽에서 E.coli 박테리아창궐했다고 난리났다. 물론 질병은 이겨내야한다. 하지만 언론이 병을 고치지는 못한다. 때론 너무 아는게 병이다.
1099	{안방극장1/9} 지금부터 @pavilion1114 님의 질문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다음은 어떤 기기가 나올까요?" 에 대한 답변올립니다. 평서문쓰는 점이해하세요.
1100	{안방극장2/9} 나는 이미 애플의 다음프로젝트는 가정용 미디어허브가 될것으로 예측했다. 18개월전에 쓴 글 "냉장고이야기" <a href="http://bit.ly/ipoRG">http://bit.ly/ipoRG</a>
1101	{안방극장3/9}애플TV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때 이름이 iTV였다가 출시될땐 애플TV로 바뀌었다. 앞으로 애플이 내놓을 제품 이름은 iTV 확실. 이것은 취미가아닌 안방장악이 목적.
1102	{안방극장4/9}잡스는 애플TV라는 혁신적인컨셉으로 안방극장 장악노렸지만 보기좋게 실패. 애플TV의 실패를 다룬 글 "애플의 최악의적" <a href="http://bit.ly/iCWDWz">http://bit.ly/iCWDWz</a>
1103	{안방극장5/9}애플이 아이클라우드 내놓았지만, 모바일제품들을 클라우드로 완전히 묶는건 통신대역폭 부족으로 당분간불가능. 가정마다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허브 필요하다.
1104	{안방극장6/9} iTV출현에 긴장할 곳은 가전/방송사만 아니다. Facetime연동한 영상통신, 그리고 콘솔게임시장까지 잡아먹을것. iTV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통신 허브가 될것.
1105	{안방극장7/9}기술적으론 iTV가 안나오는게 비정상. A5프로세서에 iOS, iCloud에 미디어스트리밍, iTune에서 컨텐츠, 앱스토어에서 게임/앱. 문제는 포지셔닝.
1106	{안방극장8/9}결론: 애플의 다음빅프로젝트는 TV예상. 스트리밍애플TV 아닌 빅스크린에 iOS를 장착한 미디어/통신/엔터테인먼트 허브. 컨텐츠허브인 아이튠과 단짝을 이룰것.

# Bozart said

1107	{안방극장9/9}보충: 잡스는 애플TV실패 인정하며 인간에대한 이해부족을 시인한다. 안방극장 점령 고군분투를 그린 {iTV를 기다리며} 읽어보라. <a href="http://bit.ly/j6qBng">http://bit.ly/j6qBng</a>
1108	{바가지1/6} 이 글을 읽기전에 트위터상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묘사한 {압박축구}라는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a href="http://bit.ly/iHr96x">http://bit.ly/iHr96x</a>
1109	{바가지2/6} 나는 {압박축구}에서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격렬한 미드필드 쟁탈전으로 표현했다.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공들이 골대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1110	{바가지3/6}바가지 새는 모습을 본 적있는가? 낡은 바가지에 계속 물부으면 처음엔 한곳에서 실처럼 물이 새다가, 여러곳이 새고, 급기야 그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바가지가 부숴진다.
1111	{바가지4/6}요즘 이슈되는 반값등록금은 단순한 대학등록금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권력층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등록금이란 이슈를 통해 채널링아웃하는 중.
1112	{바가지5/6} 등록금은 시작일뿐. 일단 뚫고나온 국민불만은 다른 이슈에도 쉽게 반응한다. 이게 바가지메카니즘. 더구나 메가톤급 이슈들이 줄지어 대기중. 한미FTA-총선-대선.
1113	{바가지6/6}트위터는 대한민국에서 대중이 신뢰보내는 거의 유일한매체이며, 영향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중. 레임덕에빠진 권력층이 이를 막을수있는 옵션이 많지않다는게 걱정.
1114	{WWDC-프롤로그} 이번 2011년6월 WWDC키노트는 소비자아닌 개발자위해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소프트웨어중심 유료행사. 아이폰5발표 안했다고 실망하는사람이 더황당.
1115	{i클라우드1/7}우선 i클라우드얘기부터. 미디어들이 잡스의 빵을 그대로 옮겨서 포스트PC니 어쩌구 난리가 났다. 미안하지만 꿈깨라. 여러분은 또한번 잡스에게 보기좋게 속았다.
1116	{i클라우드2/7}잡스는 모바일3총사를 PC없이 클라우드에 바로 연결할수있다고 주장. 이거 사기다. iCloud 제공하는 개인공간 5G. 당신 아이폰은 최소16G. 잘해봐야 보조역할.
1117	{i클라우드3/7} i클라우드-PC프리가 사기라는 다른 이유: 현 무선통신 한계를 전혀고려하지않았다.당신 잠들때마다 수G씩 백업을 해준다?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해도 무선데이터사용료는?
1118	{i클라우드4/7}i클라우드통해 문서공유하는건 훌륭하다. 그런데 옆사람과 20M짜리 문서공동 작업한다고 할때, 업/다운로딩할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냥 USB드라이브로 주는게 훨씬 편함.
1119	{i클라우드5/7}를 통해 음악,문서,주소,사진,e북,앱등을 모바일기기간에 자동으로 공유하는건, 우리가 바라던 클라우드 핵심기능이다. 이번.에.는.꼭.성공했으면 좋겠다. 제발.
1120	{i클라우드6/7}의 가장 실망스러운점. 음악스트리밍 발표안하고, 기존 CD구운것 아이튠음악으로 바꿔주겠다는 작은 발표로 때움(잡스의 표현). 음악스트리밍은 결국 9월 미디어이벤트에 나올 것.
1121	{i클라우드7/7}결론: 사실 타업체와 차별화되는 애플판 클라우드 핵심은 콘텐츠분배인데, 이번엔 하나도 나온게없다. 이번 언급은 iCloud가 정식오픈할 9월에 열리는 미디어이벤트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라.
1122	{구름잡기1/5}잡스는 클라우드원조 구글이 클라우드에 대해 왜 침묵을 지키는지 알아야한다. 사용자가 불편느끼지않을만큼 충분한 통신대역과 저장용량을 클라우드가 제공할수없다는걸 구글은 안다.
1123	{구름잡기2/5}잡스가 i클라우드에서 간과한것은 클라우드 구현위한 무선통신인프라가 턱도없이 부족하단 사실.기존서버의 클라우드이전에 고려사항이 통.신.비.다.그것도 광대역유선망.
1124	{구름잡기3/5}구글은 2003년부터 FCC뒤에서 새주파수자원 발굴에 힘썼다.자신들이 그리는 클라우드-모바일구현에 지금과 비교안되게 엄청난 무선인프라 필요하단 사실 깨달았기때문.

# Bozart said

1125	{구름잡기4/5} 8년전 콜리파웰의 아들이자 FCC위원장인 마이크파웰은 구글과함께 TV주파수를 통신으로 쓰겠다는 계획수립.이게 작년확정된 화이트스페이스다.물론 미룩얘기다.
1126	{구름잡기5/5}끝으로 클라우드실현의 현실적문제를 다룬"구름위의 산책"읽어보라. <a href="http://bit.ly/jaXQEN">http://bit.ly/jaXQEN</a> 내가 2년전 쓴글이다.우리가 꿈꾸는 클라우드까지 아직도 같길이 멀다.
1127	{라이언1/8}매년 이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인것이 OS.X다. 자세한 내용은 각종 미디어를 참조하시고, 나는 라이언의 기능중 눈에 띄는것 몇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다.
1128	{라이언2/8}엉뚱하게 이번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건 트위터떠우기. 라이온데모중 사과리만 나오면 트위터가 떠있다.iOS에서 사진 트윗으로 바로올리기추가.얼마전 트윗이 자체사진서비스 시작했지?
1129	{라이언3/8}안녕 스크롤바. 터치 도입으로 아이폰처럼 필요할때만 스크롤바가 나타남.덕분에 웹브라우저와 문서 화면이 더욱 단순해짐. 이젠 마우스로 스크롤바를 움직일없음.
1130	{라이언4/8}Resume: 화일작업중 모든 상태를 시간별로 저장. 필요할때 시간대별 트래킹가능. 마치 타이머신기능을 애플리케이션별로 구현한것같음. 문서작업할때 꼭 필요한기능이다.
1131	{라이언5/8}미션콘트롤: 기존 스페이스/엑스포제 통합한 작업정리화면. 나는 핫키로 화면전환하기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일지는 써봐야하겠지만 일반유저들에겐 매우 편리할듯.
1132	{라이언6/8}AirDrop: 주변 동료들과 무선으로 화일을 주고받게 해준다.자동으로 주변 컴퓨터를 찾아 네트워크 형성. 내가 보기엔 이게 클라우드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유용하다.
1133	{라이언7/8}런치패드: 사용하는 모든앱들을 iOS와 똑같이 격자모양으로 정렬. 애플이 Mac상에서 폴스크린업 지원시작. OS.X가 iOS쪽으로 진화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
1134	{라이언8/8}내가 라이온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차를 두고 라이온의 기능들이 iOS에 구현되왔기 때문이다. 더욱 심플한 화면에 새롭고 복합적기능 추가돼 경쟁자들은 점점 따라오기 어려워질 것.
1135	{iOS5-1/9}이제 마지막으로 iOS5의 신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내 느낌은 획기적인 서비스보다는 사용자들이 사용중느끼는 불편한점을 해소하려는 점이 돋보였음.
1136	{iOS5-2/9}Notification Center. 이번에 가장 획기적인 기능.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모든 푸시정보 및 날씨, 주식등의 정보를 한눈에 보여준다. 클릭하면 바로 그앱으로 이동.
1137	{iOS5-3/9}뉴스스탠드: 그동안 말랐던 잡지구독용 앱이 이제서야 공개되었다. 잡지사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추진하다가 실적이 좋지않자, 결국 백기를 들은것. 아이북과 쌍을 이루게 될것.
1138	{iOS5-4/9}백그라운드 푸시. 지금까지는 푸시메시지 들어오면 사용중이던 앱이 정지되어, 특히 게임하는사람 불편 겪었다. 새로운 푸시는 기존앱을 중단않고 상단에 예쁘게 떴다 사라진다.
1139	{iOS5-5/9} 그동안 잠금화면에서 슬라이드 언락하고 카메라앱 열어야했었다. 이젠 잠금화면에서 곧바로 카메라액세스. 사진촬영은 볼륨업버튼으로. 관객들이 제일 환영.
1140	{iOS5-6/9} 무선싱크OTA: 이게 황당한 클라우드니 PC프리니하는 공수표보다 훨씬 의미있고 중요한기능이다. 드디어 USB선 연결하지않고 아이폰을 아이튠에 무선싱크할수있다.
1141	{iOS5-7/9}엄지족용 키보드. 엄지로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착안 아이패드에서 키보드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엄지손가락으로만 타이핑할수 있게 해줌.
1142	{iOS5-8/9}통합메시징서비스 iMessage. 애플은 메시징앱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메시징업체들 초긴장. 잠재력은 크지만 애플이 시장을 장악하기위해선 다른 기기도 지원해야한다.
1143	{iOS-9/9}위치기반의 To-Do 리스트. 당신이 특정장소에 들어가거나, 벗어나면 해야할일을 알려준다. 스카트는 키노트마치고 강연장벗어나는순간 아내에게 전화하란 경고문뜬다. 놀라운기능.

# Bozart said

1144	{WWDC-총평}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OS.X라이언과 iOS.5는 경쟁자들이 따라오는것이 불가능해보인다. 반면 iCloud는 알맹이없고 변죽만 올림. 그래도 모바일미 보단 쓸만하겠지. 공짜니까.
1145	등록금 맘대로올릴수있게 사학법개정해놓고, 이제와서 감사를 한다? 그래도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않다는 걸 인지하고있다는 건 칭찬해줄만하다. 많이 발전했네.
1146	그동안 이통사들이 막으려고 난리치던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한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근데 어찌냐 아이폰이 iMessage 내놓았는데.
1147	나는 애플의 우주선형상의 신사옥발표를 깜짝놀랐다. 왜 놀랐는지 궁금하면 내가 2010년1월 쓴 "그들은 안드로메다로 떠났다"를 보라. <a href="http://bit.ly/1174Bs">bit.ly/1174Bs</a>
1148	{추락1/6} 나는 몇년전부터 꾸준히 노키아몰락 경고했다.영리목적의 회사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순간 추락은 시작된다.1년전글"추락하는 것은 날개가없다" <a href="http://bit.ly/iQrpJX">http://bit.ly/iQrpJX</a>
1149	{추락2/6} 삼성개발자에게 아이폰걱정안하냐문자"회사에선 아이폰애기도 못꺼내요.우린 노키아 잡아야해요" 2년전글:I'm Not Smart~ Smarter phone-> <a href="http://bit.ly/myv0lt">bit.ly/myv0lt</a>
1150	{추락3/6}4년전 내가 헨폰부문 LG임원에게 아이폰 걱정안하냐고 문자 "우린 그런거 신경안써요.잘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LG가 월급주는지 매우 궁금하다.
1151	{추락4/6} 노키아 매각설 돈다. 거품이 사라지는 모습 보면 주변의 거품들과 합한후 사라진다. 그게 세상의 질서가 변하는 원리다. 누가 사든 그 회사도 같이 꺼진다.
1152	{추락5/6} 나는 4년전 철저한 기술적관점에서 노키아에 위기가올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조직이 구제불능이란 사실알고는 확신했다. 나는 남의 말듣지않는다. 기술적으로 판단한것뿐.
1153	{추락6/6} 노키아의 끝모를 추락은 스펙타클 재난영화 보는듯하다. 한 나라 경제가 일개회사와 연동될때 일어날수있는 최악의상황을 보여준다. 남의 나라얘기니까 참 다행이다.
1154	{FB퍼즐0/9} FB는 소셜네트워크 프렌지의 핵. FB의 미래가 향후 IT질서를 바꿀것이다. 때마침 FB에대한 상반된 소식두개가 들린다.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1155	{FB퍼즐1/9} 2012년 상장앞둔 FB 평가가치 110조를 돌파. 과연 FB이 그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넷스케이프 필두로 한 인터넷버블을 다시한번 돌이켜볼 필요가있다.
1156	{FB퍼즐2/9} FB사용자가 곧 10억 돌파. 전세계인구 7명중 한명 페이스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설사 그렇다해도 돈될만한 충성고객 비율은 매우 낮다.
1157	{FB퍼즐3/9}미국 FB사용자수가 6백만명 줄어 1억5천만이 되었다. 캐나다와 영국도 마찬가지. 매출에 영향력큰 선진국사용자가 점점 적었다. 제길 아직 상장안했는데.
1158	{FB퍼즐4/9}미국 온라인사용자 2억명중 FB사용자가 1억5천만. 전체인터넷 사용자중 72%가 FB사용자다. 이것은 분명한 거품이다. 단지 아무도 언급하고 싶지않을뿐.
1159	{FB퍼즐5/9}FB의 숙제는 1년내 기존사용자로부터 획기적방법으로 거부감없이(거부감 밀줄 짹!) 돈뜯는 것. 내머리로는 그 방법 생각나지 않는다.더구나 FB의 CTR은 현저히 낮다.
1160	{FB퍼즐6/9} 봐줘서 액티브유저가 10억명이라쳐도, 돈짜내기 쉽지않다. 10억이 될수있었던건 공.짜.였기때문. 돈뜯어내려고 귀찮게하면 떠난다. 그게 온라인 대중의 본질.
1161	{FB퍼즐7/9}어쨌든 나는 FB는 살아남을 것으로 본다. 그이유는 거창한 소셜어쩌구가 아니라 FB에 뒷돈 대준 월가가 절대 지는 게임하지않을 것이란 확신때문이다.
1162	{FB퍼즐8/9} 소셜거품의 진짜문제는 FB 뒤이을 워나비소셜회사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높다. FB에 돈을 넣지못한 눈먼돈들이 소셜간판만 걸어도 앞다퉈 투자했거든.
1163	{FB퍼즐9/9} 앞으로 소셜이 어찌될지 궁금하면 WSJ 기사 잘들여다봐라. 금융권에서 미디어를 움직일테니. 긍정적인 이야기가 줄지어 나오면 추락한다는 신호인줄 알면됨.

# Bozart said

1164	{박카스1/7} 나는 지난글 {골목길}에서 의약품의 일반상점판매허용 논의를 한국사회구조 개편 작업의 축으로 보았다-> <a href="http://bit.ly/mgny7g">http://bit.ly/mgny7g</a>
1165	{박카스2/7} 약사회와 정부의 협상과정에서 알게된사실. 박카스가 약품이었고,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가 처방전이 필요하다? 힘의 충돌로 이권의 먹이사슬이 드러나는중.
1166	{박카스3/7} 약사회의 실력행사로 주춤하던 정부는 슬그머니 의약품 약국판매 논의재개. 정부 협상재개가 미디어와 시민단체의 일사분란한 협조, 일명 짜고치는 고스톱이러는데 주목하라.
1167	{박카스4/7} 아무리들여다봐도 국민건강측면에서 약사회는 논리가 약하다. 그래도 예전엔 약사회가 상당한 전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싸우는 상대의 스케일이 자체가 다르다.
1168	{박카스5/7}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상점약판매논의는 단순한 약품판매구조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건강산업구조 및 소비자소매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의미한다.
1169	{박카스6/7} 약사회는 눈앞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얻어내기위해 고군분투중. 미안하지만 궁극적으로 약국은 사라진다. 플랜B, 즉 약사들의 생계보장 장치를 고려할때다.
1170	{박카스7/7}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건강관련 먹이사슬을 알려줄테니 잘기억해두기바란다: 의료-건강보험-제약-의료장비-약품판매-그리고 상점.
1171	{박카스8/7} 사족: 약국문제가 어느정도 정리되고나면, 다음 손 볼 대상은 제약회사와 건강보험이다. 그리고나면 거대 의료네트워크가 탄생하는 것이다.
1172	{고추장1/4} 최근 공정위는 CJ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액수가 무려 3억4천만..어? 달라가 아니라 원이구나.
1173	{고추장2/4} 미국에서 CJ처럼 배제란식 조사방해했다면, 그회사는 존폐위기에 놓인다. 내가 2년6개월전 쓴 "담배이야기"-> <a href="http://goo.gl/vDwLS">http://goo.gl/vDwLS</a>
1174	{고추장3/4} 고추장담합 적발등 공정위의 눈부신 활약상들을 다룬 뉴스 접하면서 드는 생각: 공정위가 존폐위기에 놓여있구나. 우려했던데로..
1175	{고추장4/4} 공정위는 균형잡힌 경제시스템 유지하는 급소. 다른말로 공정위는 대기업의 저승사자이지만, 대기업천국 한국에선 꺼져가는 촛불
1176	{신의비지니스1/4} 한나라당이 등록금 2014년까지 30%인하하겠다고 발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나서지말았어야 했다.
1177	{신의비지니스2/4} 내가 경악한건 한나라당이 등록금문제가 그동안 쌓여온 국민불만의 표출이란 것을 전~혀 인식하지못하고있단 사실. 등록금이 아니라도 어차피 터졌을것.
1178	{신의비지니스3/4} 우리가 주목해야할점은 등록금이 인하되는게 아니란사실. 학생이 덜내는 부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운다. 덕분에 대학생과 관련없던 국민의 불만까지 보너스로 얻겠군.
1179	{신의비지니스4/4} 대학은 꽃놀이패. 학교문만 열어두면 가만히 앉아 세금보조받는다. 원가개념? 필요없다. 교육은 종교와 맞먹는 신의 비지니스니까.
1180	나는 지난 강연"3M"에서 인간과 대중의 생각을 정량화하는 것이 미래기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구글+1이 바로 대중의 생각을 읽는 도구다.
1181	애플 2011년 예상: 아이폰 75백만, 아이팟 39백만대, 아이패드 3천만. 맥 1천7백만. 아이폰은 아이팟두배. 아이패드는 맥 두배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보일거다
1182	{애플vs삼성1/5} 삼성-애플 싸움이 이제 모바일시장 미래를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삼성이기면 애플과 2강, 지면 이쪽 사업을 반포기할상황. 어느쪽도 물러설 수 없다.
1183	{애플vs삼성2/5} 애플이 삼성과 특허전쟁에서 배팅올렸다. 이미 특허침해 범위확대한데 이어, 한국에도 소송개시. 애플이 9조원어치 삼성부품을 다른곳에서 확보할수있을까?

# Bozart said

1184	{애플vs삼성3/5}이번엔 삼성이 ITC에 애플제소. 삼성 이기면 중국산인 아이폰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법원보다 결정이 빠르기때문에 애플도 상당한 부담될 것.
1185	{애플vs삼성4/5}이번 사태 결과에따라 업계는 희비엇갈릴 것. 부품회사는 애플이 이겨 삼성몹 따오기 원하고, 셋트회사는 삼성이 이겨 아이폰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
1186	{애플vs삼성5/5}전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전쟁에 승리하는쪽도 국지전투에 상처받게될 상황임. 극적 타협가능성 약간 높아짐. 물론 잡스성격상 어렵긴하겠지.
1187	{복집사건1/6} KBS의 민주당 도청사건으로 꽤 시끄럽다. 나는 워터게이트보다는 도청당한 김영삼후보를 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었던 부산복집사건이 생각난다.
1188	{복집사건2/6} KBS시청료인상은 당사자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아냐고? 종편관련 신문들을 아무리 뒤져도 관련기사가 안보이니까. 민주당은 아군이 없다.
1189	{복집사건3/6} KBS시청료인상으로 신생 종편에 광고수익을 더 떼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적어도 대선때까지는 미디어에게 밭보이면 안되거든.
1190	{복집사건4/6} 미디어를 신격화하는 이들에게: 미디어는 권력기관이며, 미디어업 종사자들은 당신처럼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직업인일 뿐이다. 사명감같은 기대는 버려라.
1191	{복집사건5/6} 워터게이트와 반대로 도청당사자가 언론이므로 민주당은 아군이 없는 상황. 요 대목에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트위터의 파워이며, 총선으로 연결될 것.
1192	{복집사건6/6} 사죽: 내 생각엔 조만간 큰 거 하나 터뜨릴것 같다.. 예를들면 연예인 마약복용이나 북한의 위협이 좋겠다. 아님 도박? 성폭력? 연쇄살인? 교실폭력?
1193	{스마트폰제국1/4} 2Q2011미국신규판매 핸드폰중 스마트폰(55%) 비율이 피쳐폰(45%) 처음 앞지름. 이유는 간단. 캐리어가 스마트폰만 보여주니까. 소비자는 선택권없다.
1194	{스마트폰제국2/4} 핸드폰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은 38%. OS 점유율: 안드로이드38%, 애플 27%. 가만..심미안은 고작2%. 명목상 스마트폰1위 노키아는 무슨 OS쓸까?
1195	{스마트폰제국3/4} 최근3개월의 OS점유율: 안드로이드27%, 아이폰17%. 안드로이드1위라고 좋아할것없다.경제적으로 의미없는 허.수. 애플은 핸드폰시장전체이익 절반쓸어간다.
1196	{스마트폰제국4/4}4년전 아이폰폭풍 경고할때 많은 이들(핸폰개발자포함) 스마트폰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했다.미안하지만 핸드폰구매자는 소비자아닌 캐리어. 그들은 가격만 맞으면 별상관안한다
1197	{상가주인잡스1/6} 애플앱스토어의 In-App Purchase (IAP)조항 바뀐다. 앱스토어-아이튠거치지않고 외부판매루트로 연결되는 앱은 퇴출. 싫으면 외부링크를 삭제하든지.
1198	{상가주인잡스2/6} 외부판매 금지하는 애플 IAP정책변경은 아마존과 반스앤노블등 e북스토어에 직격탄. 아마도 그들은 떠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홀루, 넷플릭스는 항복.
1199	{상가주인잡스3/6}아이튠 IAP 거치면 30%를 애플에 떼줘야하니 e북스토어에겐 용납될 수 없다. 웃기는건 애플앱스토어 출현전 아마존은 70%를 먹고있었다는 사실.
1200	{상가주인잡스4/6}상가주인 애플입장에서선 상가임대료안내고 장사하는 e북서점주인들이 못마땅한 것이 당연.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있었는데? 누누히 강조하지만 애플은 천사아니다.
1201	{상가주인잡스5/6}애플이 IAP로 당장 매출수익을 높이는게 일차적 목표인건 사실이지만 나는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돈.의.흐.름.을 질수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1202	{상가주인잡스6/6}모바일은 소비자금융과 결합하는중. 다시강조하지만 돈의 흐름을 쥐는자가 미래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지갑전쟁} 다시읽어보라-> <a href="http://bit.ly/kyy7qh">bit.ly/kyy7qh</a>
1203	{퀴바디스검찰1/5} 검찰의 수사권약화(일명 조정)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법조계 개혁로드맵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저항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게 대세이니까.

# Bozart said

1204	{퀴바디스검찰2/5}검찰영향력 약화의 웅대한 로드맵의 시작이 로스쿨제도의 출현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많지않을 것이다. 즉 개혁의 핵심은 사법고시로부터의 해방.
1205	{퀴바디스검찰3/5} 로스쿨 졸업생중에서 검사후보를 발탁한다는 발상으로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한 사실을 기억하는가? 최근 검사 수사권약화 논쟁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라.
1206	{퀴바디스검찰4/5}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꽃뱀사건으로 대표되는 외무부 때리기도 동일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있다. 앞으로 행정부가 50%를 특채하기로 한 것도 잊으면 안되지.
1207	{퀴바디스검찰5/5}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뜬금없이 대한민국 사법 및 행정구조가 재편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나한테 묻지 마라. 난 모른다.
1208	요즘 통신사들이 LTE서비스개시하며 4G시대개막이라고 설레발친다. 4G는 무슨개뿔. 원래 LTE는 자칭 3.7G로 불렸다. 이름만 바꾸면 4G되는 편리한 세상.
1209	{노텔특허1/5} 파산한 캐나다통신사인 Nortel이 보유한 6천개의 특허경매에서 애플+MS+RIM 포함한 컨소시엄이 구글 누르고 승리했다. 가격은 5조원.
1210	{노텔특허2/5} 노텔의 특허풀에는 LTE관련 특허가 다수포함되어 있어 캐나다국가재산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차세대 무선 및 스마트폰시장의 영향력 다툼에 영향을 줄수도있다.
1211	{노텔특허3/5} LTE원조인 GSM원천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노키아는 이번 컨소시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미 MS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팩트는 더욱 커진다.
1212	{노텔특허4/5} 노텔특허 사들인 컨소시엄 구성이 철저히 반 안드로이드라는데 주목하라. 명목은 특허괴물 방어지만, 노키아특허와 묶어 구글진영을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
1213	{노텔특허5/5} 애플과 피터지는 특허전쟁 시작한 국민기업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의 LTE특허 지분 확보가 매우 달갑지않은 소식이다. CDMA종주국 한국은 GSM 특허풀이 약하다.
1214	{전격애플작전1/5}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전쟁에서 전격 기습작전감행: 캘리포니아법원에 3개 디자인, 1개특허침해를 이유로 갤럭시, 갤럭시10등 4개 모델 미국판매금지요청.
1215	{전격애플작전2/5}내가 이번 애플공격을 기습작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용과 범위가 심플하고 결과가 빠르고 효과적이기때문. 8월에 청문회, 2012년 2월에 결정난다.
1216	{전격애플작전3/5} 만에하나라도 애플이 이기면 4개제품은 미국서 퇴출. 진행중인 다국적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건 당연. 애플은 갤럭시2등 미출시제품에도 추가 공격가능.
1217	{전격애플작전4/5}애플은 예상되었고 ITC아닌 산호세법원에 injunction 요청했다.삼성이 이미 소송취소한 산호세법원은 애플의 동네법원으로, 나는 홈코트이점 노린것으로 봄.
1218	{전격애플작전5/5}최근 삼성이 캘법원 맞고소 취하한건 알고있겠지만, 삼성이 애플에게 아이폰5 공개하라는 황당요구 기각된건 아마 몰랐을걸? 지금 삼성은 한국처럼 언론플레이할때 아니다.
1219	세상일에 우연은 없다.2008년 월가발 경제위기그린 영화 인사이드잡에서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IMF수장으로 월가 비판하는것이 부담스럽지않느냐 질문에"아니요"라고 답한다.
1220	때는 한여름이지만 구글에겐 겨울이 온다. 구글이 로비스트에 막대한 돈 쏟아부었지만, 미공정거래위원회의 서치엔진의 시장독점행위 조사를 막지 못했다.MS가 겪었던 고난의계절이 시작된다.
1221	{LCD블루스1/8} 삼성이 LCD사장을 실적부진으로 바로 잘랐다. 삼성사장 경질은 사상처음 있는 일. 문제는 사장이 아닌 시장이다. 누가와도 잘릴자리였다.
1222	{LCD블루스2/8} LCD실적부진은 올것이 온것뿐. 나는 이미 {고릴라글래스}란 글타래에서 LCD부분의 적자를 지적하고 향후전망했다. 필독~ <a href="http://bit.ly/kcPIIr">http://bit.ly/kcPIIr</a>
1223	{LCD블루스3/8}사실 LCD는 삼성전자가 SDI한테 뺏어온것. 당시 SDI는 우울한PDP를 울며겨자먹기로 떠안아야했다. SDI는 지금도 만성적자 태양전지 떠안아 죽을맛.

# Bozart said

1224	{LCD블루스4/8} LCD부진이유 두가지: 1.과도한 설비증설경쟁따른 공급과잉, 2. 대형TV시장 정체. 결론: LCD부진은 세계적,구조적추세이며, 돌파구가 보이지않는다.
1225	{LCD블루스5/8}LCD를 살리려면 대형TV수요가 증대해야하는데, 밀어내기식 과당경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 씨알도 안먹히는 3D-TV를 왜 애타게 외쳐야했는지 이해갈거다.
1226	{LCD블루스6/8}삼성은 째잘한 반도체,LCD등 부품사업을 기반으로 핸드폰,TV등 셋트시장을 키워왔다.장사가 잘될때는 좋았는데, 셋트 시장정체되자 과잉설비투자 늪에 빠진것.
1227	{LCD블루스7/8}삼성의 수직계열화의 문제점이 드러난건 애플이 아이폰발표하면서부터. 스마트폰 인기로 소형화면수요만 늘어나는 반면 대형TV시장은 정체. 살만한 가정은 다 샀다.
1228	{LCD블루스8/8}삼성전자의 알짜사업 독식은 LCD만 국한된건 아니다. 비슷한예: 카메라의 테크윈, LED의 삼성전기. 만형 전자 떠받히려 동생들이 피보는격. 왜냐구 묻지마라.
1229	{LCD블루스9/8}사족: 앞으로 TV는 대형화가아닌 스마트로 간다. 한국대기업이 설레발치는 이름만 스마트TV말구. 애플이 개발중인 가정의 미디어 허브역할 하게될 진짜 스마트TV.
<i>to be continued...</i>	

## Bozart 는 누구인가?



- 미국/아카데미아/엔지니어/스타트업 // 표준화 의장/화이트스페이스
- 사과전쟁: 압축된언어로 IT혁명과 통신-미디어-네트워크 미래상을 논함
- 키워드: 기술, 사회, 변화, 꿈
- 프로페셔널커리어: <http://www.linkedin.com/in/kyutae>
- 사과전쟁 by Bozart 당 홈페이지: <http://bit.ly/kEt41z>
- 사과전쟁 트윗 글모음 블로그: <http://bozartapplewar.blogspot.com>
- 사과전쟁 사이언지 연재글모음 (총 22편) : <http://bit.ly/lmUJTj>
- 사과전쟁 판도라 글모음: <http://twitaddons.com/forum/?gfg=bozart>

## Bozart 사과전쟁 콘서트 안내

### 세번째 이야기 “H2H”



Bozart 콘서트 시리즈 세번째는 “H-2-H” 로 정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기술, 사회, 인간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강연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는데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저의 트윗에 주목해주세요.

Bozart